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 박사 학위논문

조선인민군의 조직적 특성과 상징 체계에 대한 연구

- 소련의 유산을 중심으로 -

2017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 전공

째르치즈스키 표도르(이휘성)

조선인민군의 조직적 특성과 상징 체계에 대한 연구

- 소련의 유산을 중심으로 -

지도 교수 박명규

이 논문을 사회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4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 전공

째르치즈스키 표도르(이휘성)

째르치즈스키 표도르(이휘성)의 사회학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4 월

위 원 장	정 근 식	(인)
부위원장	이 재 열	(인)
위 원	김 병 로	(인)
위 원	김 동 엽	(인)
위 원	박 명 규	(인)

초록

이 논문은 조선인민군의 조직적 특성과 상징 체계 연구다. 조선인민군에 대한 기존 연구는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언급된 기록을 기초로 하여 북한 군대에 관한 공식 담론 분석들이 많았으며, 이것은 실제 북한군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탈북 군인과의 인터뷰, 북한 영화, 소련 기록원 자료 등 폭넓은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군의 실제 모습에 다가가려고 노력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조직을 연구할 때 그것의 형성과정과 발전의 경로를 고려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북한 군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은 '경로 의존'이다. 이는 모든 사회조직들이 사회적 타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조직 설립 당시의 특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조선인민군의 기원 연구로 시작했다. 북한 군대 창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사회·정치적 세력이 있었는데, 일본제국 황군의 유산, 소련 군대 전통, 중국 공산당 소속 유격대 전통이다. 이들 중에서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소련군의 전통이다. 인민군 창군 시 소련의 영향은 결정적이며 중국 공산당이 일본군 전통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1962 년의 '4 대 군사 로선'이나 1998 년의 '선군'을 사실상 중대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원칙은 북한의 국가 선전과 공식 담론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북한 군대의 사회적 특징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사회조직이 외부적 자극을 받아 변화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변화의 계기는 '중대한 시점'을 의미한다. 조선인민군 역사에서 두 가지 중대한 시점은 1953 년 한국

전쟁 휴전과 1991 년 냉전의 종결이다. 이 중대한 시점은 북한 군대를 각각 구조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런데, 이 변화에서 지체된 반응이 나타난다. 북한이 전시 동원을 평화시의 징병제로 바꾼 개혁은 1956 년이었고, 군사복무 기간을 공식적으로 10 년으로 연장하는 결정은 1993 년에 이루어졌다. 이 지체된 반응은 정책결정권자의 명령으로만 변경되는 군대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 군대의 진화를 3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 3 장은 조선인민군이 창립됐던 북한 군대 초기다. 부대 단위, 정치 장교, 군대 당 조직 제도 등 북한 군대의 사회적 특징 대부분은 이 시기부터 유지돼 왔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특징들이 항일 빨치산 전통이나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소련 전통에 따라 설립했다는 점이다. 제 4 장은 냉전 시기의 북한군의 변화이다. 이 시기에 북한 군대는 다른 사회주의권 나라들에 비해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북한 군대에서의 초기 제도의 지속성은 북한의 상대적 고립과 자율성을 보여준다. 김일성은 북한 사회에 전체주의 정책을 실시했고, 이를 잘 구현하는 군대식 조직원리를 사회 전체에 작용하였다. 제 5 장은 탈냉전 시기에 관한 것이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북한은 새로운 군사·경제적 문제에 직면했고 군대 복무기간을 연장시키면서 노동동원을 대규모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정의 사회적 결과를 분석하고 설명한다.

제 6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다. 북한 군대 창립 시기 북한은 소련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다. 북한군의 구조, 군복, 상징의 대부분뿐 아니라 월급 제도, 표창과 징벌 제도 등을 소련에서 차용했다. 북한 사회 전체 그리고 북한 군대의 폐쇄성 때문에 조선인민군의 변화 속도는 비교적 느리고 초기에 형성된 조직원리나 상징문화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 군대는 '경로 의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제 7 장은 논문의 결론이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 북한군 사회학 연구를 전망한다.

주요어: 조선인민군, 북한 군대, 군사 상징, 붉은 군대, 소련 군대, 군사 사회학

학번: 2014-31486

목차

감사의 글

초록

서론 ····· 1
연구의 중요성 ····· "
선행 연구 검토 ····· 3
본 연구의 문제 설정 ····· 17
연구 방법 및 범위 ····· 21
이론적 검토 ····· 28
담론중심주의의 한계 ····· "
연구방법과 시각 ····· 31
조선인민군 창건: 소련식 군사 특징 도입(1948-1956) ····· 61
소련식 조직 특성의 도입 ····· "
소련의 상징 제도 차용 ····· 84
소결: 소련 모델 이식 ····· 105
조선인민군의 독립 발전기: 소련 유산 퇴조의 시작(1956-1993) ····· 109
소련식 편제에서 퇴조의 시작 ····· 110
독립적인 상징의 도입 ····· 121
소결: 소련 유산의 퇴조와 유지 ····· 136
조선인민군의 단독 발전기: 소련 모델에서 제한적인 퇴조 지속(1993-현재) ····· 142
소련식 편제 퇴조의 지속 ····· "
소련 상징 제도에서 퇴조 ····· 156
소결: 탈냉전 시기 소련의 유산 ····· 165
연구의 결과 ····· 172
새로운 연구 방법의 효율성 ····· "
연구의 가설 확증 ····· 173
북한 군대 변화의 중대한 시점: 지체된 반응 ····· 180
결론 ····· 182
참고 문헌 ····· 185
부록 1. 인터뷰 대상자 목록 ····· 204
부록 2. “조선인민군 상급 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205
부록 3. 조선인민군 군관 직위표 (한국전쟁 당시) ····· 207
부록 4. 1955 년 당시 군인 개인 표창과 징벌 제도 ····· 208
부록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노농적위대 설립에 대하여»라는 소련대사관 참고서 번역문 ····· 213

Abstrac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System of Symbols in the North Korean Army: Focusing on the Soviet Legacy · · · · · · · · · · · · · · · · · · 215

표 목차

[표 3-1] 북한, 소련, 중국, 일본 제국 육군의 부대 체계 비교 · · · · · 62
[표 3-2] 북한과 소련군의 부대 인원 비교 · 63
[표 3-3] 북한과 소련의 정치 장교 체계 비교 · · · · · · · · · · · · · · · · · · 65
[표 3-4] 붉은 군대와 조선인민군 군사 직위 비교 · · · · · · · · · · · · · · · 70
[표 3-5] 북한, 소련, 일본 제국 군사 계급 비교 · · · · · · · · · · · · · · · · 75
[표 4-1] 조선인민군 징병제의 진화 · 112
[표 4-2] 조선인민군 징병제 대상자로 신체검사 합격 조건 · · · · · · · · 114
[표 4-3] 북한 민간용과 군사용 '계층' 명칭 비교 · · · · · · · · · · · · · · · 115
[표 5-1] 현재 조선인민군 군사 계급과 군사 직무의 연결 · · · · · · · · · 145
[표 5-2] 조선인민군 군인 일정표 · 147
[표 5-3] 2008 년 **5** 월호 '군인생활' 잡지의 내용 · · · · · · · · · · · · · · · 153
[표 5-4] 북한 군대의 현대성 파악 · 167

그림 목차

[그림 2-1] 자본주의 군대와 사회주의 군대의 군대 지휘 제도 · · · · · 39
[그림 2-2] 자본주의 군대와 사회주의 군대의 부대 지휘 제도 · · · · · 40
[그림 2-3]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군대 군복 비교 · · · · · · · · · · · · · · · 44
[그림 3-1] 조선인민군 모자표 · 90
[그림 3-2] 붉은 군대와 일본 황군 휘장 비교 · · · · · · · · · · · · · · · · · · "
[그림 3-3] 조선인민군 군기 · 92
[그림 3-4] 소련과 북한 근위대 상징 비교 · 93
[그림 3-5] 조선인민군 군복 · 95
[그림 3-6] 조선인민군 견장 · 97
[그림 3-7] 1990 년대 중반 이전에 사용했던 영장 마크(견장이 있는 군복) · 98
[그림 3-8] 붉은 군대 병과 마크 · 99
[그림 3-9] 조선인민군 시대별 견장**(1948-1956)** · · · · · · · · · · · · · · · · 100
[그림 3-10] 조선 인민군 해군 수장 · 102
[그림 3-11] 소련과 일본 제국 해군 수장 · "

[그림 3-12] 소련과 북한 종합군사대학 졸업생의 휘장 ····· 103
[그림 3-13] 소련, 몽골, 북한 원수 별 ····· 104
[그림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차수와 조선인민군 차수 견장 · 123
[그림 4-2] 중화인민공화국 대원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견장 ····· "
[그림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와 조선인민군 원수 견장 · 124
[그림 4-4] 북한 대원수, 원수, 차수 별 ····· "
[그림 4-5] 조선인민군 군기 ····· 125
[그림 4-6] 3 대혁명 붉은 기 ····· 128
[그림 4-7] 오중흡 7 련대 기 ····· 129
[그림 4-8] 금성친위부대의 깃발 사례 ····· 130
[그림 4-9] 판문점 부대 마크 ····· 131
[그림 4-10]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제복 ····· 132
[그림 4-11] 평양 지하철, 철도성, 광부 제복 비교 ····· 134
[그림 5-1] 현재 조선인민군 견장 제도 ····· 157
[그림 5-2] 1990 년대 중반부터 사용하는 영장 마크(견장이 있는 군복) ····· 158
[그림 5-3]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군기 ····· 159
[그림 5-4] 소련, 일본 제국, 중국의 군기 비교 ····· 163
[그림 5-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 모양 분석 ····· 164
[그림 5-6] 소련 최고사령관기 ····· "
[그림 5-7] 북한 군대의 구조와 이의 폐쇄성 ····· 166

제 1 장 서론

본 연구는 북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조선인민군 조직적 특성과 상징체계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 사회에서 군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군대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군대와 군사력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북한 연구자 중에는 강력한 군사주의에 주목하여 북한을 '군국주의 나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1]

지금까지의 연구는 군사학 중심의 논의, 예컨대 북한 군대가 사용하는 전투차량과 무기, 한국전쟁 당시의 활동,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는 논문이 많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을 좀더 사회학적 맥락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군사조직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도 여러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조선인민군이 구성되고 운용되는 원리가 어떤 배경과 요인에 의해 마련되었는지, 그 장기적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연구의 중요성

북한은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군대의 비중이 큰 사회다. 정권수립 당시부터 반제 해방투쟁이라는 빨치산 전통을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았다. 지배이념 뿐 아니라 정치엘리트의 조직적 핵심을 여기로부

[1] Michael J. Seth. *A Concise History of Modern Korea: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10), p. 218.

터 끌어왔으며, 특히 1990 년대 탈냉전기에 북한이 겪은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군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국방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구로 자리했던 것도 군사부문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경제력과 함께 군사력을 국가전략의 최고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형성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징병제를 도입하였고, 군사적 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성 복무기간 10 년의 제도를 만들었다.[2] 여성도 2015 년부터 징병제 대상이 되었다. 즉, 북한 주민 대부분에게 청년기는 바로 군사 복무 시기다. 군복무 경험은 북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경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북한 군대 연구는 단지 정치체제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북한 사회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군에 대한 자료는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접근하기도 어렵다. 체계적인 통계나 북한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공간되는 대중매체들, 예컨대 '함남일보'나 '평북일보' 같은 지방 매체에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이나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기도 쉽지 않다. 자료의 부족은 군대경험과 군사문화가 북한의 사회·경제·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어렵게 한다.

현재의 여건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불가피하게 조직과 제도의 차원에서 군대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군대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뚜렷하고 일원적인 구조를 가진 사회 집단이다. 부대마다 각기 다른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점이 훨씬 많다. 군대의 일부를 선택하여 분석

---

[2] "북한군, 여성 '의무복무제' 올해 4 월부터 실시," 『DailyNK』, 2015 년 1 월 27 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105446&cataId=nk04500.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한다고 하거라도 일반화의 어려움이 다른 사회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군종과 직위가 다르더라도, 군인의 의무와 권리, 생활방식은 매우 비슷하므로, 비교적 작은 샘플만 살펴봐도 전체 군대의 대표적인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군대제도는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으며 조직적 특성과 운영원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주제는 북한 군대의 조직원리와 상징 체계이다. 북한에 방문할 수 없고 자료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상징 연구는 북한 군대를 연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군사 상징은 군대 최고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정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군사적 정책 의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상징을 소련 등 사회주의권 나라들과 비교하면 북한 군사의 특징을 더 잘 알아 볼 수 있다.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군대는 근대국가의 필수적 제도이자 주요한 조직이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군대 자체는 일반사회 영역과 상당한 정도 분리되어 있고 정보 및 인력의 내부화가 높은 조직이다. 따라서 일반사회와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의 독립성, 규범의 독자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폭력수단을 독점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특수조직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외부의 접근이 쉽지 않고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기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안보나 전쟁을 연구하는 군사학 뿐 아니라, 군대의 직제, 전략과 전술, 무기체계, 안보전략 등이 정치학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군사사회학은 군대의 변화, 군인력의 충원제도로서의 징병제와 모병제,

군대의 탈냉전 시대 적응, 군대와 민간 사회의 관계, 여성 군인,[3] 동성애자의 군사 복무 문제, 군사 도덕 등을 다룬다.[4] 군사사회학의 대표적인 국제 학술지 '군대와 사회',[5] '정치와 군사사회학' 등이 보여주듯이 군대와 사회의 관계나 정치적 맥락에서의 군사적인 문제가 주요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6]

사회주의권 국가의 군대, 특히 북한과 같은 나라의 군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자료의 문제, 현지접근의 어려움, 정치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연구가 저조하지만, 북한은 군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였던만큼 여러 측면에서 군대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연구에는 역사학, 정치학, 군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관심주제도 다양하다. 지금까지 북한의 군대와 연관되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쟁점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선인민군 창군과정 연구

일차적으로 꼽을 수 있는 연구는 북한의 군대, 즉 조선인민군의 창군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이다. 북한 군대 창건은 1945 년 광복 이후의 일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만주 빨치산 투쟁의 경험과 소련군의 지원을 검토해야 하며, 그 변화는 한국전쟁 3 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 창군 과정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 인민군 창설이 소련의 지도 하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러시아어 기록물을 포함하여 북한 군대 창립 과정에 관한 핵심자료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많은 경우, 연구자들은 1950 년 가을 연합군이 반

[3] Helena Carreiras, *Gender and the Military: Women in the Armed Forces of Western Democracies* (Abingdon-on-Thames: Taylor & Francis, 2006).
[4] Guy L. Siebold, "Core Issues and Theory of Military sociology,"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Vol.29 (Summer 2001), pp. 140-159.
[5] *Armed Forces & Societ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6]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격할 당시에 얻었던 자료나 러시아 기록원에 보관된 자료를 활용하지만, 북한 내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 창군과 관련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장준익의 '북한 인민군 대사'가 있다.[7] 장준익은 소련 군정 당국의 영도를 받아 북한 보안대 등 무장 부대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정식군대로 변화했는지를 살폈다. 장준익은 1940 년대 후반의 북한 군대의 실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북한 해군과 공군의 설립에 관한 정보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보다는 폭넓은 사료를 사용했지만, 러시아어 사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허동찬의 '조선인민군의 건설'에 관한 연구는 인민군이 김일성의 만주빨치산 부대를 계승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공식입장을 반증하는 사료를 소개하고, 북한 창군 과정이 소련 통제 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8]

'북한 인민군 정치기관 특성연구(1945~1950)'의 저자인 고재홍은 북한 정치기관 및 정치장교의 기원을 연구했다. 그는 주로 영문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 정치 장교의 역할을 소련과 비교함으로써 소련모델의 영향력을 밝히는데 기여했다. 당시 소련 자료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 주제를 정확하게 검토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약점이 되었다.[9] 같은 저자가 비슷한 주제로 쓴 '북한 군 창설기 문화군관의 지위와 역할 연구'[10]의 성격도 비슷하다.

---

[7] 張浚翼, 『北韓 人民軍隊史』, (서울: 서문당, 1991).

[8] 許東粲, "조선인민군의 건설(1945. 8. 15-1950. 6. 25)," 『국제문제연구』, 16 권 1 호 (1992), pp. 67-107.

[9] 고재홍, 『북한 인민군 정치기관 특성연구 (1945~1950)』, (서울: 통일부, 2002).

[10] 고재홍, "북한 군 창설기 문화군관의 지위와 역할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8 권, 1 호, (2004), pp. 19-38.

한용원은 '남북한의 창군: 미·소의 역할을 중심으로'[11]라는 글에서 남북한의 군대창설에 미국과 소련이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함으로써 국제적 맥락에서 한반도 군대조직을 검토하는 성과를 얻었다. 남북한이 분단 이후 각기 다른 발전모델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대립, 대조를 보였음을 언급하는 연구는 다양한데, 한용원의 연구는 군대조직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상이한 체제논리와 군대조직 모델이 대조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소련 기록원 자료들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 저자가 쓴 '남북한 군대 창설과정 비교: 1945-1948',[12] 그리고 장성진의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13]라는 논문에도 마찬가지의 한계가 있다.

2. 한국전쟁과 조선인민군 연구

한국전쟁은 제 2 차 세계대전 종결과 냉전 시작 이후 친미와 친소 정권 사이에 발발한 대규모 전쟁으로 수많은 연구자의 이목을 끌었다. 전체 한국사에 가장 많은 연구주제가 바로 한국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는 수천 편에 이르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몇 연구만 소개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우선 박명림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4]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를 들 수 있다.[15]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에서 저자는 전쟁의 배경과 여러 쟁점을 남북한 및 미국과 러시아의 자료를 포괄

---

[11] 한용원, 『남북한의 창군: 미·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 오름, 2008).

[12] 한용원, "남북한 군대 창설과정 비교: 1945-1948," 『남북한 정부수립과정 비교, 1945-1948』, (고양: 인간사랑, 2010).

[13]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5 권, 3 호, (2012), pp. 146-202.

[14] 박명림,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 1-2 권, (서울: 나남, 1996).

[15]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파주: 나남, 2002).

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했다. 예컨대 박헌영의 역할, 소련군사고문단의 영향력, 북한에서의 군대 조직화 과정 및 전쟁 준비 과정 등이 비교적 잘 검토되고 있다.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에서는 1950 년 전쟁 발발부터 1951 년 1.4 후퇴, 그리고 교착 상태 발생까지 전쟁 진행과정을 분석했다.

김명섭은 '한국전쟁이 냉전체제의 구성에 미친 영향'[16]에 대표적인 프랑스 자유주의 사상가인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의 냉전과 관련한 개념을 이용하였다. 아롱은 냉전을 '이룰 수 없는 평화'(la paix impossible)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전쟁'(la guerre improbable)의 역설적인 결합으로 보았다. 김명섭은 이 세계 질서의 건설에 한국전쟁이 심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영·일 재무장, 미영 동맹 강화, 그리스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과 이 조직 자체의 형성화 등 1950 년대 초기 중요한 사건들은 한국전쟁의 직접이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국제 학술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러시아 연구자들은 공산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이 전쟁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특히 한국전쟁 침략국이 북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문헌을 절대 게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연구자들은 소련 시대 기록원 자료를 활용한 자세한 연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문헌은 이고리 포포브 등이 쓴 '병화(兵火) 속의 한반도'이다.[17] 이 책의 저자들은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료를 사용해 스탈린이 언제, 왜 전쟁 계획을 승인했는지 그리고 북한 전쟁 준비와 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

[16] 김명섭, "한국전쟁이 냉전체제의 구성에 미친 영향," 『국제정치논총』, 43 권, 1 호, (2003), pp. 115-133.

[17] Игорь Попов (이고리 보포브) et al. *Корея в огне войны: к 55-летию начала войны в Корее 1950-1953 гг.* (병화 속의 한반도: 1950-53 년대의 한국전쟁 발발 55 주년 기념) (모스크바: Кучково поле (구찌코보 폴레), 2005).

영문으로 쓴 연구들 중 가장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쉐일라 미요시 재거의 '전쟁을 하는 형제들'[18]이 있다. 이 연구자는 북한과 남한, 미국 사료 등을 통해 6.25 전쟁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한국전쟁 연구는 사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소련의 자료와 미국의 자료, 북한의 자료와 남한의 자료가 각기 보여주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료의 선택과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연구자의 언어구사능력이다. 어떤 학자는 한국어를 하면서 러시아어를 모르고, 반대로 러시아어를 구사하면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연구자가 접근하는 사료에 편향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는 연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언어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 중에는 일본 출신 연구자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가 있다. 와다의 '한국전쟁'[19]이라는 문헌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의 자료를 사용해 자세한 한국전쟁 내용을 담은 뛰어난 연구 중 하나다. 또한,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인맥이 있는 중국 연구자인 침지화(沈志华, 션즈화)는 다른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중국자료를 사용했으며,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러시아기록원 사료들도 계속 발간하고 있다. 이 연구자의 대표적인 한국어 번역서는 '조선전쟁의 재탐구'[20]이다.

3. 조선인민군 엘리트 연구

인민군 엘리트, 즉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등 조직의 형성과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다. 특히 북한의 정

---

[18] Sheila Miyoshi Jager. *Brothers at War: The Unending Conflict in Korea* (London: Profile Books, 2013).

[19]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朝鮮戦争全史』, 서동만 역, 『한국전쟁』, (파주: 찬비, 2003).

[20] 션즈화(沈志华), 김동길 역, 『조선전쟁의 재탐구』, (서울: 선인, 2014).

치적 결정에 군부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인민군 엘리트 연구가 북한의 정책선택과 대외전략에 핵심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 연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들은 정성장과 고재홍이 있다. 정성장은 북한 군대의 지도 조직을 분석하는 여러 연구를 했고 대표적인 논문으로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 승계 문제'가 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총정치국의 기원, 형성, 그리고 북한 정치에서의 위치이다.[21]

고재홍의 논문 중 김정일 시대 군사 엘리트를 분석하는 '북한군의 차기 수뇌부 구성과 성격 연구',[22] 그리고 1998 년 새로운 북한 헌법 채택으로 김정일 시대 형식상 최고 국가기관이 된 국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23]이 있다. 두 번째 논문은 김정은 세습 이전에 쓴 것으로 저자는 김정일 급사 시 국방위원회가 권력 세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예측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북한의 군부 엘리트층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엘리트 연구자는 북한 외교관 출신 현성일이다. 현성일의 '북한의 국가 전략과 파워 엘리트: 간부 정책을 중심으로'[24]는 북한 출신자의 눈으로 본 북한 엘리트에 관한 연구로 새로운 시각을 전한다.

---

[21] 정성장,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 과 권력 승계 문제』, (경기도 성남: 세종연구소, 2013).

[22] 고재홍, "북한군의 차기 수뇌부 구성과 성격 연구,"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0 권, 1 호, (2007), pp. 111-148.

[23]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北韓硏究學會報』, 2 호, (2008), pp. 33-64.

[24] 현성일, 『북한의 국가 전략과 파워 엘리트: 간부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북한군대 조직들에 관한 출처로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공식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엘리트층의 정확한 구성과 변화, 그들의 생각과 지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는 큰 한계가 있다. 실제로 군부의 최고엘리트의 신상변동에 대한 판단이 부정확하여 번복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다른 연구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후 연구자들이 북한 기록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군사엘리트 연구의 한계는 좀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심영삼의 박사학위 논문 '김정일 정권 군사기구 및 정책수립·집행과정'은 비교적 자료의 활용과 해석이 균형을 이룬 좋은 연구라 여겨진다. 이 연구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기밀 자료에 접근해 국방위원회,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부력부, 보위사령부[25] 등 북한 지도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했다.[26] 2003 년 조웅이 쓴 '남·북한 장교 양성제도 비교 연구'도 언급해야 한다.[27] 석사학위논문이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군관학교 제도를 매우 세부적이고 깊게 분석한 연구 중 하나다.

---

[25] 현재 명칭은 "보위총국"이다.

[26] 놀랍게도 2012 년에 나온 이영훈이 쓴 책에는 심영삼의 연구와 동일한 부분이 많지만, 심영삼 논문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영훈, 『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파주: 살림출판사, 2012) 참조.

[27] 조웅. "남·북한 장교 양성제도 비교 연구." 東國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2003.

4. 당[28]·군 관계 연구

북한은 당국가로서 실제적인 국가의 지도권한을 조선로동당이 지닌다. 당은 모든 사회적인 과정을 통제하고, 국내외 정책을 결정한다. 북한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기본 조건이 입당하여 당원증을 갖는 것이다. 내각, 지방 사무소 등 국가 기관들은 당의 영도 하에 진행되며, 인민위원회들은 실권이 없다.

이 점에서 당과 군 사이의 관계는 중요한 주제이다. 북한은 인민군을 '당의 군대'라고 부르면서 당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또한 '선군(先軍)'과 '선군후로(先軍後勞)'라는 구호처럼 군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당중심 국가이고 그런 맥락에서 당군관계의 정확한 이해는 핵심적인 과제다.

김일성 시대 군사 지도부에는 김일성의 만주 빨치산파 구성원이 아닌 인물들도 많아 조선노동당이 이를 어느 정도 통제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서동만은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에서 북한 공개 자료를 통해 빨치산파의 군대 권력 장악 과정을 살펴보고, 당과 군의 당국이 일원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29] 필자도 김일성 시기 후반부터는 군사 당국이나 당 당국을 독립적인 사회 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서동만의 평가에 동의한다.

---

[28] 북한에서 명목상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3 가지 정당이 존재하지만,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 1 인 당원 밖에 없는 유령과 같은 조직이다. 이휘성, "김정은 一族의 독재강화와 북한 小黨의 존재이유," 『DailyNK』, 2014 년 7 월 2 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10&num=104035.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이로 본 논문에서 '당'이라는 호칭은 조선로동당에 대해만 사용한다.

[29]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통일문제연구』, 제 8 권, 2 호, (1996), pp. 159-193.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에서 백학순은 북한 당, 국가기구, 군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4 단계로 구성된 모델을 소개한다. 바로 1945-1956 년, 1956-1967 년, 1967-1994 년, 1994 년부터 현재까지 등이다.[30] 북한 역사의 주요 전환점은 1956 년 반김일성 음모 실패, 1967 년 유일사상체계 도입, 1994 년 김일성의 사망 등이다. 때문에 이 모델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 초기의 당군관계 연구에서, 김태일과 김용현의 ‘북한 권력 내부의 당·정·군 관계 지도인맥을 중심으로’가 대표적이다.[31]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당, 정부기관 그리고 군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김정일 승계를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북한 엘리트가 어떻게 구성이 변경됐는지를 살핀다. 김동엽 역시 선군시대 북한의 당-국가-군 관계를 상세히 검토한 대표적인 연구자다.[32] 그의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라는 논문[33] 역시 비교적 복잡한 북한 군대의 지휘체계를 설명하고 북한 지휘 기관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 좋은 연구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 정, 군 관계’의 저자 김갑식은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핵심조직은 로동당이며 북한 정부 기관이나 군대도 당의 영도를 받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김정일 시대에 당의 지위는 낮아졌지만 이 시대 역시 북한의 핵심지도 조직으로 당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30] 백학순 등,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파주: 한울, 2007).

[31] 김태일 · 김용현, “북한 권력 내부의 당·정·군 관계 지도인맥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31 권, 9 호, (1996), pp. 63-83.

[32]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3] 김동엽,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17 권 제 2 호, (2013), pp. 87-117.

5. 안보전략 연구

북한 군대를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연구한 성과들은 국제정치학 분야와 군사학 분야에서 똑같이 확인된다. 인민군이 사용하는 무기나 전투 차량 연구, 전쟁 발발시 북한군 그리고 그와 싸울 대한민국 군대와 미합중국 군대가 사용할 전술과 전략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主敵)이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 전략과 남북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연구가 한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안보·전략 연구들은 최근 상황을 분석한 것이므로 단행본보다 학술지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더 정치화되어 있으며, 보수주의적 메시지가 강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북한의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34]의 저자 변창구는 다양한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군대의 반응 전략을 본 뒤 한일이나 한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재홍의 '북한의 위기전망과 대응방안'[35]과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도 저자는 김정일 급사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고재홍은 북한에서의 권력 승계, 비핵화 여부 그리고 외국의 개입 가능성까지 살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를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국제적 개입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박휘락은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36]에서 2009-2013 년 북한 군사도발과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분석하고

---

[34] 변창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안보외교전략," 『통일전략』, 9 권, 1 호, (2009), pp. 9-40.

[35] 고재홍, "북한의 위기전망과 대응방안,"『전략연구』16 권, 3 호, (2009), pp. 7-36.

[36] 박휘락,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전략연구통권』, 57 호, (2013), pp. 273-307.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밀타격으로 김정은을 암살하자고 하는 극단적인 해결방법을 제안한다.

박성용의 '북한의 해양 비대칭 전력과 한국의 해양안보'[37]는 최근 상황뿐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파악한다. 북한이 중국에게 받았던 '인민전쟁전략'도 파악하고, 북한 군대의 군사 경험도 고려한다. 저자는 북한의 잠수함 등 해군 전략이 이 경험과 연결된다고 본다.

북한군대의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 역시 군사학, 안보연구의 주요한 주제이지만 자료 접근이 크게 제한되는 분야여서 연구 역시 충분치 못하다. 대표적인 문헌은 요세프 베르무데스의 '북한의 무장력'을 들 수 있다.[38] 저자는 북한 육·해·공군 그리고 준군사 조직의 일반 무기, 대량 파괴 무기와 군사 차량 등을 파악했다. 제임스 뮤니히의 '북한 인민군의 기원과 현재 전술' 제 2 장도 북한 군대의 무기를 파악하고 있는데 베르무데스의 연구와는 달리 북한 군대의 전술을 중심으로 쓴 연구다.

안보·전략 학술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상기한 박성용의 논문과 같은 예외가 있지만, 이런 연구들은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쓴 것이다. 둘째, 정치적인 문제가 많으며, 안보·전략 연구자들은 한국 정부에 정책 조언과 제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정치적인 객관성이 부족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연구자 중에는 한국 보수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더욱 그렇다.

또한 군대의 전략을 분석하려면 군대 내부 기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안보·전략 학자들은 북한은 물론 남한 기밀 자료에도 접근하기 어려워 '안보·전략 연구'의 대부분은 학술적인 가치가 높지 않은 편이다.

---

[37] 박성용, "북한의 해양 비대칭 전력과 한국의 해양안보: 비대칭적 위협 양상 및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정치정보연구』, 14 권, 2 호, (2011), pp. 105-130.

[38] Joseph S. Bermudez.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London&New York: I.B. Tauris&Co., Ltd., 2001).

6. 인민군의 일상 연구

사회학 입장에서 북한 군인 생활을 분석하는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은 군인들의 일상생활이나 병영문화에 관한 연구다. 연구 방식은 대개 서술적이며, 어떤 면에서 이 연구는 사회학과 인류학 등 두 영역에 걸쳐 쓴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의 미개방에 따른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다.

북한군대에 대한 정보제약은 상대적으로 백과사전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킨다. 백과사전은 당시 대표적인 북한학 문헌이므로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다. 1968 년[39]과 1983 년[40] 출판된 '북한총람', 그리고 1974 년 출판된 '북한 전서'[41]에는 북한 군대에 관한 부분이 있다. 당시 국가의 반공주의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놀랍게도 대체로 객관적이다. 김일성 독재를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는 것은 거의 없다. 여기에는 북한 군대의 편제, 규칙, 군인 생활 소개가 언급되어 있다. 지금까지 그 시대 북한 사료에 대한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문헌들은 학술적인 가치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42]

한국의 민주화 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의 하나로, 서동익은 '인민이 사는 모습'[43]에서 김일성 시대 북한에 대한 고전적인 사회학 연구를 통해 '북한 청년들의 군대생활'에 관해 언급했다. 1995 년 연구한 것이지만 기본 사료로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사용했으며, 현재까지 김일성 시대 북한 사회 연구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

39 『北韓總覽:'45-'68』, (서울: 共産圈問題硏究所, 1968).

40 『北韓總覽』, (서울: 北韓硏究所, 1983).

41 『北韓全書』, (서울: 極東問題硏究所, 1974).

42 필자는 이 시대에 북한 군대 연구에 이필은의 증언이 기여했다고 본다. 당시 북한 해군 대위였던 이필은은 1965 년 탈북해 남한 연구자와 수많은 인터뷰를 했다. 지금도 이필은의 증언은 매우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43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서울: 자료원, 1995).

북한 군대 출신자인 이정연이 쓴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라는 책은 북한 군대 생활에 대한 소중한 자료다.[44] 또한 2013 년 '북한군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군대 출신 탈북자들의 회의록도 나왔다.[45] 이 책도 북한 군인 생활 분석보다는 이를 서술해 형식상 2 차 사료이지만 실제 1 차 사료에 더 가깝다.

북한 군대에 대한 중요한 자료는 대한민국 정보사령부와 육군본부가 발간한 자료이다. 대외비나 기밀 자료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료는 공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1970-80 년대 발간된 정보사령부와 육군본부 자료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볼 수 있다.[46] 정보사령부 자료를 사용한 논문 중에는 박균열의 '북한 군대문화의 형성과정과 평가'[47]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정보사령부의 비공개 자료를 사용했고, 북한군 출신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넣어 다른 연구들보다 폭넓은 사료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저자는 북한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군사 계급인 '지도원'이나 '부사장'을 언급하며 다른 연구를 인용해 북한 징병제가 1958 년 내각 명령 제 148 호로 도입됐다는 오류도 있다.

또한, 정성임은 '북한의 민군관계: 군의 성격을 중심으로'[48]라는 글의 서론에서 서양학자의 군대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모델에 기초하여 북한의 민군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군 편제와 군인의 일상생활에 대해

---

44 이정연,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45 『북한군의 불편한 진실: 탈북 군인 이야기』, (성남: 대한출판사, 2013).

46 『적전술편람』, (서울: 육군본부, 1978); 『북괴군 연대전술』, (서울: 정보사령부, 1974); 『북괴군참모업무』, (서울: 육군본부, 1977); 『북괴군 개인전기』, (서울: 육군본부, 1976); 『북괴군 경보병대대 소개』, (서울: 육군 사령부, 1978) 등 참조.

47 박균열, "북한 군대문화의 형성과정과 평가," 『윤리교육연구』, 1 권, (2001), pp. 1-22.

48 정성임, "북한의 민군관계: 군의 성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6 권 1 호, (2012), pp. 25-59.

서는 한상용이 쓴 '북한군 병영 문화 연구: 선군 시대를 중심으로'[49]라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 중요한 연구성과의 하나다. 이 논문의 장점은 다른 연구에서 이용해 본 적이 없었던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보사령부가 발간한 군사 교육에 관한 자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북한 군사 학습제강 등 소중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김용현의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 1948~1980'이라는 논문 역시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해 인민군의 사회적 존재양식을 살펴보고 있다.[50] 김용현은 1 차 사료로 주로 '로동신문'과 '김일성저작집'을 사용했기 때문에 논문이 담론 분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인민군의 사회적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기여했다.

제 3 절 본 연구의 문제 설정

1. 문제의식

한국에서 북한 군대 연구를 포함한 북한학 연구의 전환점은 1990년대 초반이다. 첫째, 소련 해체와 동구 공산주의정권 붕괴로 연구자들은 이들 나라의 기록원 사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 둘째, 1990년대부터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연구자들에게는 이들에 대한 접근이 이전보다 쉬워졌다. 다양한 배경과 생활 경험을 가진 북한 이탈주민들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 사회를 좀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중국의 개방으로 북중접경 지역에서 현지 인터뷰와 같은 연구도 가능해졌다. 넷째, 1980년대 말 한국의 민주화로 한국에서 북한 자료에 대

[49] 한상용. "북한군 병영 문화 연구: 선군 시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50] 김용현,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 1948~1980," 『북한연구학회보』, 제 17 권 제 2 호, (2013), pp. 149-169.

한 통제가 극히 약해졌고, 국가 단체들은 북한 연구에 대한 독점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보천보 전투에 참가한 김일성과 북한 지도자인 김일성이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한 '가짜 김일성론', 6.25전쟁 침략자가 남한이라고 주장한 '북침설' 등 기존에 일부 학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여러 가설들은 완전히 반증되었다. 이 모든 이유로 1990년 이후에 쓴 연구들의 수준은 기존 연구들보다 대체로 훨씬 높다.

그런데, 필자는 기존 연구에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연구 범위가 제한적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북한 군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북한군 상징을 분석하거나 북한 군대 편제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다. 즉, 이러한 중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둘째, 상기한 바와 같이 연구자들 중에는 북한 공식 자료만 사용해 사실상 북한 현실보다 북한 공식 공개 담론만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연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북한 군대 비교 연구, 특히 소련 군대와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북한 군대는 소련 군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소련 군대를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교 연구를 하면, 북한군의 어떤 측면이 소련에서 도입됐고, 어떤 측면이 북한 당국의 단독 결정에 따라 형성되었는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연구 방법만이 북한 군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소련군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로 작성된 소련군 관련 자료나 연구를 독해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북한 군대 연구자들이 부족하여 북한군 창립과 역사 초기 연구에 소련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북한 군인의 일상 생활뿐 아니라 군사 편제와 군사 상징이다. 소련군과의 비교를 위하여 러시아어를 비롯한 여러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보다는 북한 군대를 좀더 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북한 군대의 형성과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잠정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토해 가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군대는 소련식 군대의 조직원리와 상징을 모델로 하여 창군되었다.

1948년 2월 북한 군대 창군 당시 한반도의 북반부는 소련이 직접 통치하고 있었다. 소련 당국은 북한 군대를 소련 군대를 따라 창군시켰다. 일부 학자는 북한 군대를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라기보다는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계승 조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51] 본 연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1948년 인민군 창군 당시 북한 군대는 동시대의 소련 요인을 차용했을 뿐 아니라 이미 폐지된 소련군의 특징 일부를 도입하였다. 소련의 영향은 '동시대 소련군의 특징'과 '기존 소련군의 특징' 등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대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조선인민군은 원형으로서의 소련군 모델에서 점차 이탈하게 되었다. 차이화는 주로 상징 분야에서 먼저 나타났고, 편제상의 차이화는 1990년대 이후에 확인된다.

---

[51] Jae-Jung Suh, *Origins of North Korea's Juche: Colonialism, War, and Development*,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3), p. 72.

1950년대 말부터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얻었다. 김일성은 더 이상 소련의 지시에 따르거나 소련군 모델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완벽한 사회주의 나라인 소련'의 전통을 차용하기보다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군대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북한의 경제와 정치는 소련과 사회적 상황이 달라 북한 군대와 소련 군대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셋째,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의 사회 진화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군대에서의 변화도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초기에 형성된 특성들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매우 폐쇄적인 나라인 북한에 존재하는 폐쇄적인 조직이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외국 방문이 허락되지 않았고, 외국 매체를 읽거나 듣는 것 역시 불법이었다.[52]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폐쇄적인 나라다. 조선인민군 자체도 폐쇄적이다. 민간사회와의 사회적 연결이 약한 조직이다. 다른 나라 군인들은 대개 복무 중 여러 차례 휴가도 받고,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에게 연락도 할 수 있지만, 북한 군인은 입대부터 제대까지 집에 방문하거나 가족과 만날 수 없고 부모 사망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외출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O1).[53] 군인들은 편지를 보내는 것도 제한이 있다.[54] 즉, 북한 군대는 폐쇄적 국가 내부에 있는 폐쇄적 조직이다.

---

[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 185 조(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 2012. ;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53] O1, S2 등의 표현은 인터뷰 대상자의 증언에 따라 썼다는 것을 뜻한다. 인터뷰 대상자 목록은 부록 1 참조.

[54] 소대장 이상 장교들은 편지를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지만, 일반 병사나 하사관은 소대장이나 중대장과 동행하는 경우만 우체국에 나갈 수 있다. 게다가 편지도 검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O5).

이 때문에 북한군의 진화는 국제사회와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의 군대에 대한 의식 변화, 군대 형성 변화는 북한 군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 분리된 조선인민군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사회 변화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북한 군대의 조직과 사회적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제 4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3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단계는 북한 군대에 대한 자료 수집이며, 둘째는 외국 군대와의 비교이고, 셋째는 이론적 분석이다.

안드레 델라노 에보트(Andrew Delano Abbott)는 '발견의 방법'이라는 책에서 사회학 방법 중 '서술(narration)'과 '분석(analysis)'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55] 본 논문의 목적 중 하나는 북한 군대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초적인 사실들을 수집해야 하는데, 북한군에 관한 사실들을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학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료 부족인데, 북한 군대 연구에서 더욱 더 그렇다.

[55] Andrew Delano Abbott. *Methods of Discovery: Heur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4), pp. 45-46.

1. 사료 소개

현재 연구자들은 북한 기록원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북한에 방문해 군인과 인터뷰 할 수도 없다. 북한은 군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1980 년대 이후에 나온 북한 책에서는 군사 계급 목록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마저도 찾을 수 없다. 북한에서 군대 관련 법칙, 규칙과 자료는 모두 국가 비밀인데, 군사 신문 '조선인민군'까지도 대외비다.

북한 공개 매체에는 사실을 왜곡한 경우가 많고 아래 인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 기록원 자료 중에도 사실에서 벗어나 날조된 자료가 있다.

이들은(북한 당국) **군사 기록원을 설립하고 있었는데**, **기록원장으로 김웅 씨를 임명하였습니다**. (중간 생략) 1950 **년대 말 김웅 씨의 지도 하에 기록원은 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 작전과 관련된 사료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명령서**, **제령서나 자료는 사후**(事後)**에 참가자들의 기억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40 **년 정도 지나 만일 당신이 북한 총참모부의 기록원에서 일하게 된다면 전쟁 시기에 관한 모든** (**아니면 거의 모든**) **사료가 날조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료들은 전쟁 때가 아니라 종전 후** 10 **년쯤 지나서 작성되었습니다**.[56]

현재까지 작성된 논문들은 대체로 공개된 북한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군인 출신 탈북자 인터뷰를 활용했다. 본 연구는 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 수집을 시도하였다.

[56] 안드레이 란코프가 한 게오르기이 플로트니코프와의 인터뷰, 1990 년 2 월 1 일.

1) 역사기록원 자료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시대가 끝나면서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았던 한국어 자료들은 모두 공개되었고 대부분은 러시아 국립도서관 동양문학센터(Центр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РГБ)에 보관돼 있다. 1960 년대 초까지는 북·소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군사와 관련한 자료도 찾을 수가 있다. 필자는 '조선인민군 내무규정'과 '조선인민군 기률규정'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북한 관련 자료들 중에서 인민군 관련 자료들을 사용했다. 이들은 한국전쟁에서 국제연합군의 반격 당시에 획득된 자료다.

2) 군대 출신 탈북자와의 인터뷰

오늘날 북한학의 기본적인 연구방법은 바로 탈북자와의 인터뷰이다. 필자는 논문 작성을 위하여 북한 인민군을 경험한 여러 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병종과 군사 칭호[57](계급)는 다양하였다. 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각각 복무하였으므로,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군의 변화를 알 수 있다. .

3) 탈북 군인이 작성한 연구 단행본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책들 중 탈북 군인이 북한 군대를 소개하는 단행본 2 권이 있다. 첫째는 북한 군관 출신 이정연의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이다. 이 책은 북한 군인 생활에 대한 소중한 자료다.[58]

---

[57] 북한에서는 군사 계급을 '군사 칭호'라고 부른다.
[58] 이정연,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또한 2013 년에 '북한군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군대 출신 탈북자들의 책도 나왔다.[59] 저자마다 서술 방식과 스타일이 매우 다르다.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격문(檄文)도 포함되어 있지만, 북한군 현실 분석과 객관적인 회고록도 있다. 이 책들은 형식상 2 차 사료인데, 실제로 북한군에서 복무한 경험을 서술(제 1 차 사료)과 분석(제 2 차 사료)으로 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의 1 차 사료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본 논문에 사용하였다.

4) 북한 기밀 자료

북한 당국은 기밀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지만, 일부는 외부로 노출되기도 한다. 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 자료를 논문에 사용하였다. 이 자료 일부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접근한 것이고 나머진 일부를 북한학 동료에게 받았다.

기밀자료는 북한 군대 신문 '조선인민군', 군사 잡지 '군인 생활', 다양한 기밀 명령, 참고서, 군사 교과서 등이다.

5) 공개 북한 자료

북한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군대 편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북한 군사 상징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북한 당국이 공개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북한 계급장, 군기 등 다양한 군사 상징을 알게 되었다.

---

[59] 『북한군의 불편한 진실: 탈북 군인 이야기』, (성남: 대한출판사, 2013).

6) 국군정보사령부·육군 본부 문서

대한민국 국군정보사령부와 육군 본부는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일부는 국가기밀이 아니지만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1980 년대 나온 정보사령부·육군 본부 보고서가 북한자료센터에 보관되어 있어, 이를 통해 김일성 시대 중기 북한 군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7) 안드레이 란코프의 인터뷰 자료

러시아 출신 북한 연구자 안드레이 란코프(Андрей Ланьков, 국민대학교 교수)는 1980 년대 말부터 북한과 관계 있는 중요한 인물들과 인터뷰를 하였다. 그는 이 인터뷰들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필자에게 제공해 주었다. 필자는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 북한 군대 창건 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인터뷰 내용 일부를 논문에 사용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한 국가의 전체 군대를 살펴보는 연구이므로 대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군대의 특성 중 하나는 획일적인 조직이라는 것이다. 즉, 부대마다 규칙, 생활이나 훈련 방식은 대체로 비슷해 군인 몇 명과의 인터뷰만으로도 전체 군대의 객관적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로 규정, 명령 등 공식 규칙 중심으로 쓴 논문이기 때문에 주로 '위로부터의' 시각을 보여준다. 즉, 북한 당국이 군대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군대와 같은 조직에서 '위로부터의' 시각은 일반 사회조직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필자는 '아래로부터의' 시각의 중요성도 부인하지 않는다. 아쉽게도 현재 상황에서 일반 군인 눈으로 보는 조선인민군에 관한 객관적인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듯하다. 단 제 4 장에 필자가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군내 일상생활에 관한 군인

인식을 어느 정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학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북한 군대의 무기나 전투 차량은 연구대상이 아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조선인민군뿐이기 때문에 로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인민내무군,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준군사 조직은 대상이 아니다.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는 조선인민군과 달리 대중조직으로 볼 수 없다. 보안원, 특히 보위원이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소수만 받는 특권이다. 범죄와 싸우거나 사회를 통제하는 이들 단체의 목적은 군대의 목적과 완전히 다르다.

로농적위군(勞農赤衛軍, 2011년까지 로농적위대)의 편제, 상징, 사회적 목적은 정규군과 완전히 다르다.[60] 이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므로 군사 조직이라기보다는 민방위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으로 설립한 붉은청년근위대와 대학생들로 설립한 교도대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기초적인 군사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정규군과 매우 다르다. 또한 로농적위대는 1959년, 교도대는 1962년,[61] 붉은청년근위대는 1970년에 설립되었고,[62] 이 시대에 김일성은 이미 소련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련의 모델을 따라 조직하라는 강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이 조직들의 설립은 김일성의 '전민 무장화' 정책의 발현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모택동 시대 중국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예컨대, 로농적위군은 분명히 중국인민해방군의 민병(民兵)에서 차용된

60 "노농적위군,"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6&koreanChrctr=&dicaryId=4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61 "교도대,"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3&koreanChrctr=&dicaryId=12.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62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서울: 자료원, 1995), p. 197.

조직이다.[63] 특히, 상징 분야에서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로농적위군의 군복은 계급장이나 부대 마크가 없으며, 단순한 옷과 붉은 별형 모장(帽章)이 있는 모자로 구성된다. 즉, 민병(民兵)이나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 군대처럼 로농적위군 구성원들은 군복을 통해 '평등한 사회주의 제도 옹위자'인 것을 강조한다. 이는 정규군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로농적위군 편제는 북한의 행정구역에 따라 정해진다. 즉, 도(道), 시(市), 리(里)까지 적위대 부대가 있다. 하지만 군대는 그런 특징이 아예 없다.[64]

즉, 북한의 준군사 조직의 역사, 구성방식, 의무와 목적은 정규군과 완전히 다르다.

---

[63] "민병에 대해," 『中國人民解放軍史』, (서울: 國防軍史硏究所, 1998), pp. 309-340.
[64] 로농적위대에 대해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서울: 자료원: 1995), pp. 85-87 참조.

제2장 이론적 검토

제 1 절 담론중심주의의 한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연구는 자료의 제약과 현장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해 로동신문을 비롯한 공식적인 매체의 주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공식매체에서 표방된 언술과 담론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는 데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식매체의 담론은 대체로 선전의 기능이 강하며, 이 때문에 공식매체 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가지고 상호비교함으로써 북한의 현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군대와 같은 조직은 보안유지가 중요하므로 의미있는 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실제 군대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의 인터뷰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연구방법의 한계 때문에 북한 군대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던 사례는 소위 '선군 정치'에 관한 연구에서 종종 발견된다. 선군(先軍)이라는 단어는 로동신문 1998 년 6 월 19 일자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력사"라는 기사에서 처음 언급되었다.[65] 선군은 말 그대로 "군대가 우선이다"라는 뜻인데, 군국주의를 표현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군국주의'라는 말은 1930~40 년대 일본제국을 비롯한 우익 독재와 결부 짓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1998 년 도입된 선군 개념은 북한 공식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담론에 기초하여 연구할 경우 선군시대는 실질적인 새로운 시대로 간주된다. 실제로 "선군 시대의 ○○○"를 주제

[65]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력사," 『로동신문』, 1998 년 6 월 19 일.

로 쓴 수많은 논문이 존재한다. 선군 시대의 북한 농촌 여성,[66] 문학,[67] 경제 정책[68] 등의 연구가 나와 있다. 이 모든 연구에서 얘기하는 주제들은 '선군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를 실재(實在)로 보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과연 담론상의 주장이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지는 엄밀하고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선군은 구호에 불과하고 북한 사회에 상징적인 영향만 미쳤을 뿐 실제 구조나 현실은 그런 구호의 등장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필자는 이런 관점을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선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군대조직 및 군대의 역할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 선군이 도입된 시대에 실행된 군사개혁은 한 가지뿐이었다.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선언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직을 국가 원수(元首)로 정의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김정일의 독재적 실권에 어떤 심대한 전환이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제 영향과는 거리가 먼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선군 시대'에 군대가 당보다 권력이 더 강화되었다는 주장도 있다.[69] 하지만 이런 주장 역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군이란 개념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북한을 지배한 세력은 군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김씨 일가였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입대를 위하여 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입당을 위하여 입대하는 경향도 오래된 것이다. 즉, 당원 자격을 군인 자

---

[66] 오창은, "선군시대 북한 농촌 여성의 형상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13 권, 2 호, (2010), pp. 84-117.
[67] 임옥규,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 형상된 주도적 감성," 『남북문화예술연구』, 14 호, (2014), pp. 243-266.
[68] 박형중, "'선군시대' 북한의 경제정책: 2002 년 7 월 조치 이후 9 월의 '중공업 우선 발전'론의 대두," 『아세아연구』, 46 권, 2 호, (2003), pp. 11-32.
[69] "2011.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p. 39; https://www.unikorea.go.kr/cwsboard/board.do?mode=download&bid=1031&cid=19750&filename=19750_201405142001003830.pdf.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격보다 훨씬 높고 소중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도 선군이란 개념의 등장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공식 담론에 의존하는 것은 현재 북한사회 연구의 한계이고 극복해야 할 과제다. 연구들 중에는 로동신문이나 '김일성 저작집' 중심으로 쓴 논문이 매우 많다. 담론 분석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실제 북한 사회가 아니라 북한 사회에 관한 공식 담론을 분석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 북한 사회를 연구하려면 탈북자와 인터뷰하거나 북한을 방문해야 하고, 외국 문헌을 통해 연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질적 방법론적 접근은 어렵거나 시간이 걸린다.

북한 군대의 경우 특히 이런 한계가 두드러진다. 선전 구호 변경에 불과한 수사적 현상과 실제 북한사회의 변화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틀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선군'이나 '병진 로선'에 관한 연구들은 실제의 현실과 괴리된 경우가 많다. 담론 분석은 북한의 공식 사상과 북한 당국의 사고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 2 절 연구방법과 시각

북한 당국의 구호나 담론을 넘어 실체에 좀더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채택하고자 한다. 첫째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상징에 대한 접근이다.

1.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는 한 사회의 중요한 기능수행을 위한 다양한 지위와 역할의 안정적 구조화를 의미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지만 담론에 비해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 교육제도, 정치제도 등과 같이 군사제도는 더더욱 손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역사적, 사회적 지속성이 발견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러한 제도의 형성과 유지, 변화에 주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학과 사회학의 시각을 결합하고 사회적 실체의 시대성, 지속성, 물질성을 중시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각은 주로 사회 조직의 원형과 변화에 시간과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즉, 조직을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현존하는 제도의 뿌리를 긴 시간대 속에서 확인하고 그 지속성과 변화의 추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도와준다. 다양한 사료더미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긴 역사 속에서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틀도 이로부터 얻을 수 있다. 공식적 담론의 경우도 그 자체만으로 분석될 경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역사적 제도분석과 함께 분석될 경우는 훨씬 더 생생한 실체적 모습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이 방법론은 특정한 제도영역의 독특한 지속성 또는 변화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에 걸친 시기에 왜 북한 군대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할 때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이 큰 도움을 준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는 '경로 의존'이다.[70] 이 개념은 모든 사회 조직들이 사회적 타성을 갖고 있다고 보며, 이 때문에 조직 설립 당시의 특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개념을 사용하면 1940년대 말 소련이 북한 군대에 개입시킨 특징이 어떻게 수십 년간 유지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으로 진행하는 분석은 북한 군대를 단독 조직이라기보다는 북한 사회질서의 일부로 보는 데 유용하다. 즉, 북한 군대의 특징들은 북한체제가 지닌 다양한 제도적 특성들, 예컨대 북한의 정치제도 및 경제제도, 교육제도 일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여러 층위, 여러 영역들이 어떤 원리로 상호작용하고 또 유사성을 지니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넷째,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은 북한 군대를 사회주의 국가 군대의 일종으로 보며,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군대의 특징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북한군대의 특징은 그 제도적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유럽에서 확인되는 '사회주의 군대'와 깊은 연관성이 발견된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군대조직은 20세기 전 지구적으로 나타났던 사회주의적 국가형성, 그 핵심제도의 하나로 물리적 폭력의 제도화의 한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군대를 '북한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북한 내부의 동학에 의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불충분하고 오류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역사적 제도주의는 북한 군대를 더 객관적으로 또 더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

[70] Adam Sheingate, *The Oxford Handboo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 11.

2. 상징의 연구

한 사회의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적 시각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정치학자들의 경우 제도화의 바탕에는 권력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지배와 복종,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구조, 그에 기초한 강압과 통제가 제도의 근간이 된다고 본다. 반면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물질적 생산과 유통, 교환의 틀이 제도의 근간이 된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사회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반복, 그것을 통해 구성원을 통합시키는 공통의 문화적 기반, 공유되는 요소를 주목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의 경우 이러한 통합의 핵심, 제도의 근간을 '상징'으로 간주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징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이 군대조직 연구에 어떤 적합성을 갖는지를 언급해보고자 한다. 군대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물리적 폭력이 조직화, 제도화, 구조화 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런 특징 때문에 군대는 어떤 사회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자리잡지만, 군대 자체가 어떤 이미지, 가치, 지향을 반영하는지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즉 중세봉건시대의 군대는 영주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효과를 중시했고 근대국가형성기의 군대는 국민국가의 권위, 민족적 자존감을 표상하는 존재가 된다.

오늘날 의장대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의례적인 군대행렬은 물리적 폭력수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 국가나 도시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군대가 어떤 지향성과 상징성을 나타내는가는 그 군대가 속한 사회와 국가, 시대의 특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상징의 연구는 군대의 존재 그 자체가 갖는 시대적 의미, 사회문화적 효과를 정확하게 밝혀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군대는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상징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집단이다. 제복을 입고 정형화된 행동이 요구되며 민간사회와는 구별되는 언행

과 도구들을 사용하는 영역이 바로 군대다. 계급을 표시하는 방식, 군복이 표상하는 이미지, 군인 상호간의 행동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과 가치 등이 매우 중요시된다. 명예에 대한 존경심, 국가나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숭고함, 적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과 억지력을 담당한다는 절박함 등이 군대에 연결된 상징적 요소의 한 부분이다. 동시에 강한 위계의식, 권위의식, 자율보다는 타율적 규제, 강압과 복종이 중시되는 특성도 군대문화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종 권위주의적 체제의 근간을 군사문화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상징은 주관적 의미이지만 그 상징적 함의를 표출하는 요소는 객관적인 문화적 품목인 경우가 적지 않다. 군대의 경우 민간인과는 한눈에 구별되는 제복과 견장 등이 보편적이다. 또한 이런 문화적 요소들은 근대에 접어들어 전 지구적으로 전파되고 확산되며 수용된 어떤 문화 전파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북한의 군대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 일본과 미국의 군대에서도 그 차이 못지 않게 형태상 유사한 문화적 품목이 확인되는 것은 이런 상징요소의 보편성에 기인한 것이다. 군대상징의 연구는 앞서 언급한 군대조직의 전 지구적 비교연구, 근대적 제도로서의 공통점과 국가별 차이를 드러내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상징연구는 군대연구에 있어서 유용한 접근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3. 모델로서의 소련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제도주의와 상징연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20 세기에 등장했던 소련의 모델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련은 제도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많은 후발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강대국이었던 소련 그리고 현재 강대국 중 하나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군사학이나 역사학 연구인제, 부분적으로는 제도의 문화적 기반, 상징체계에 대한 연구도 있다. 소·중 군대의 편제, 상징이나 일상 생활에 관한 연구는 북한군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출발점을 이룬다.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자신의 군대를 연구하는 데 제한이 많았다. 군대 연구는 국가 안보와 직접 연결돼 있어 엄격한 검열의 대상이 되며, 군사 상징과 같은 비교적 정치화되지 않는 주제도 검열로 인하여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는 자국 군대에 관한 공개적인 연구가 비교적 많지 않았다.

소련에서는 1976 년부터 1980 년까지 출판돼 온 '군사 백과 사전'[71]이 있다. 소련 시대 대표적인 단행본으로서 이 백과사전은 소련 군대의 구조를 소개하고 군사 상징에 관한 언급도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는 소련 군대의 편제나 일상 생활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단행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연구자는 유리이 웨레메예프이다. 이 연구자가 쓴 단행본 중 하나는 '제 2 차세계대전 초기 붉은 군대 병사와 원수들은 어떻게 전쟁에 대비하였는가'이다. [72] 또한, 웨레메예프가 운영하는 '군대의 해부'[73]라는 사이트에서 소련 군대의 일상 생활, 월급 제도, 군복 등을 소개하는 문서를 찾을 수 있다.

---

[71]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소련 군사 백과사전) (모스크바: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소련 국방부 군사출판사), 1976-1980).
[72] Юрий Веремеев(유리이 웨레메예프). *Красная Армия в нача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Как готовились к войне солдаты и маршалы* (제 2 차세계대전 초기에 붉은 군대. 병사와 원수들 어떻게 전쟁에 대비하였는가), (모스크바: Litres, 2016).
[73] Юрий Веремеев(유리이 웨레메예프). *Анатомия армии* (군대의 해부) http://army.armor.kiev.ua/.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군사 상징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매우 서술적이다. 즉, 상징 분석보다 군복, 군기(軍旗), 계급장 등을 분석 없이 서술하는 책들이 많다. 소련 군대의 군복과 상징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연구는 '소련과 러시아의 군복(1917-1990)'이다.[74] 이 연구는 사회주의 혁명 때부터 소련 체제 최후까지 소련 군복과 다양한 군사 상징을 소개한다. 그러나, 소련에서 자기 군대의 상징에 대한 연구는 당국 입장에서 의심스러운 행위였고, 현재 러시아 역사사회학에도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내 학자가 소련 군대에 대해 쓴 연구들 중 심경욱의 '다민족 문제에 직면한 소련 군대: 현재 상황과 전망, 그리고 통합 매커니즘?'을 특별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 학자가 불어로 쓴 소련 군대에 대한 이 예외적인 논문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민족 문제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있다.[75]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 중국 본토에서는 평화 시기에 인민해방군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는 것이 어려워 중국 군대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중국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중국군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는 나영주이다. 그의 '중국인민해방군의 역할 변화'[76]는 중국 군대의 편제, 계급체계, 특징, 경제적 역할 등 소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국가 사상의 변경과 연결을 분석한다.

---

[74] М. М. Хренов, И. Ф. Коновалов, Н. В. Дементиюк (흐레노프, 코노왈로프, 데멘티육), *Военная одежд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и России (1917-1990)* (소련과 러시아의 군복 (1917-1990)) (모스크바: Воениздат (군사 출판사), 1999).

[75] Shim Kyong-wook, "Les forces armées soviétiques face à la diversité des nationalités : situation et perspectives. Un mécanisme d'intégration?" (다민족 문제에 직면한 소련 군대: 현재 상황과 전망, 그리고 통합 매커니즘?) Thèse de doctorat à l'IEP de Paris(파리 정치대학 박사학위논문) (1989).

[76] 나영주, 『中國人民解放軍의 役割 變化』,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또한, 대표적인 연구들 중에는 국방군사연구소가 발행한 '중국인민해방군사'[77]가 있다. 이 단행본의 제 1 장은 중국 군대의 역사를 소개하지만 제 2 장은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종, 군사학교, 규칙, 중국의 핵심적인 준군사 조직인 민병에 관한 연구이다.

서양 문헌들 중에는 '조직으로 본 중국인민해방군'[78]과 '중국인민해방군 평람'[79]을 대표적인 연구로 보아야 한다. '조직으로 본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 군사 연구자가 회의에서 나온 보고서를 모아 만든 책이다. 그런데, 이 문서는 발표집이 아니라 중국 군대를 소개하는 단행본 형태로 작성됐다. 이 책에는 중국 군 편제와 지휘 체제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발행한 '중국인민해방군 평람'은 학술논문보다는 백과사전형 단행본인데, 군사 편제와 상징 모두 소개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필자가 알기로는 전체 사회주의권 군대를 비교해 쓴 연구는 현재까지 하나도 없었다. 때문에 필자는 1 차 사료와 2 차 사료를 파악해 직접 사회주의 나라 군대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파악하였다.

---

77 『中國人民解放軍史』, (서울: 國防軍史硏究所, 1998).

78 James C. Mulvenon, Andrew N. D. Yang,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s Organization* (Santa Monica: Rand, 2002).

79 *Handbook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Washington: Department of Defense, 1984).

4. 소련 군대에서의 제도와 상징

소련군의 조직적 원리와 상징은 근대 군대가 공유하는 요소,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도입한 요소 그리고 러시아의 민족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이다. 이들 각각을 살펴보자.

1) 근대 군대의 요소

민주 국가의 군대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은 시민사회가 군대에 미치는 영향, 소수민족, 다문화, 종교, 여성 군인, 동성애자 복무 문제, 장교의 지도 능력과 방식, 노병 문제, 국제 군사 협력 등의 문제를 분석한다. 또한, 군대를 어떤 특이한 전통이 있는 특수한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도주의자' 못지 않게 군대를 또 하나의 직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직업주의자'의 관점도 큰 힘을 지닌다.[80] 군사 독재 정권 하의 군대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군대가 사회와 정부의 어느 약점을 사용해 권력을 장악하는지 연구하고 그런 긴장 구조 및 갈등 관리의 차원에서 군사 정권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군사 정권을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 친위대(Praetoriani)와 비교하고, 이들을 군대가 친위대처럼 간접적으로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자형 친위대 정권' 그리고 군대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형 친위대 정권'으로 나누는 방식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81]

2) 사회주의 군대의 요소

사회주의 군대의 경우 시민 사회가 없거나 허용되지 않는 체제 하에서의 군대로서 매우 다른 조건을 지닌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성공적인 군사 정변이 나타난 사례도 없었다. 때문에 사회주의 군대를 연구하

---

[80] Guy L. Siebold, "Core Issues and Theory of Military sociology,"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Vol.29 (Summer 2001), pp. 140-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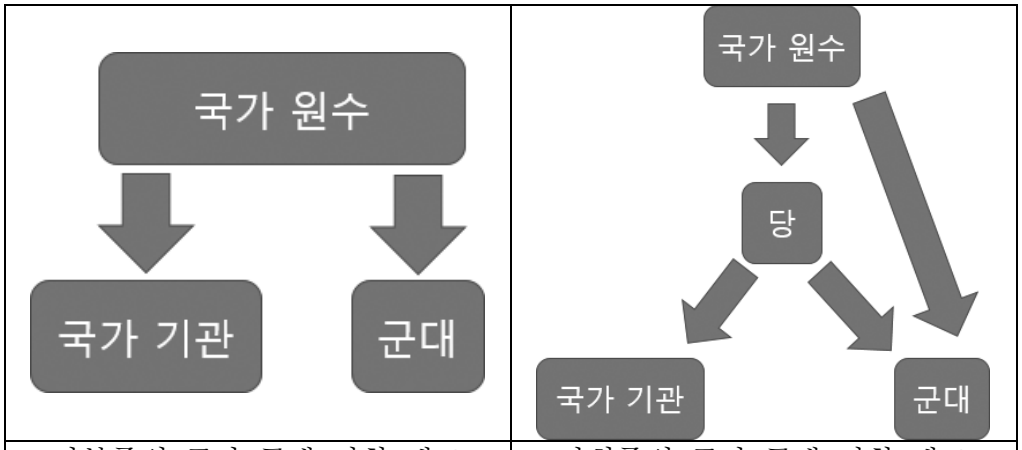
[81] Amos Perlmutter, "The Praetorian State and the Praetorian Army: Toward a Taxonom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Developing Polities," *Comparative Politics*, Vol. 1, No. 3 (1969), pp. 382-404.

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나라 군대가 지니는 독특한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첫째,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는 당에 복종한다. 사회도 군대도 당(黨)의 지도부로부터 통제를 받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떠나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당은 곧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 조직이면서 핵심이다. 사회주의 국가 사상도 어디든지 당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군대도 당 조직들이 다스릴 뿐 아니라 큰 부대마다 당 조직이 존재하며 장교는 대다수 혹은 모두가 당원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군대 지휘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림 2-1] 자본주의 군대와 사회주의 군대의 군대 지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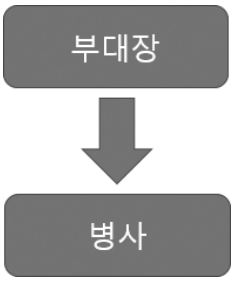
자본주의 국가 군대 지휘 제도 | 사회주의 국가 군대 지휘 제도

둘째, 사회주의 군대에는 정치장교 체계가 있다. 정치 장교는 당의 대표자로서 부대 당위원회 위원장이다. 당원을 관리하고 당 모임을 설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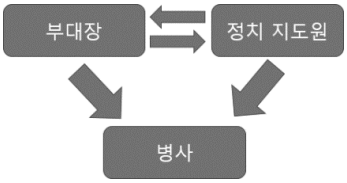
며 부대 구성원 입당 문제도 관리한다. 그리고 정치 장교는 부대 구성원들에게 정치 및 사상 교육을 시킨다.[82]

정치 장교의 권리는 나라와 시대마다 달랐다. 이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공동 지휘 제도'에서 부대장과 정치 장교는 같이 부대를 다스리고, 정치 장교가 당 대표자로서 부대장을 감시한다. '유일 지휘 제도'에서 정치 장교는 부대장의 보좌관에 불과하다.[83] 사회주의권 역사에 공동 지휘 제도와 유일 지휘 제도의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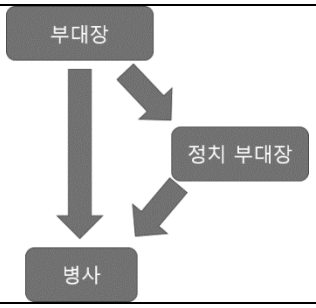
[그림 2-2] 자본주의 군대와 사회주의 군대의 부대 지휘 제도



근대 군대 부대 지휘 제도



사회주의 군대의 공동 지휘 제도



사회주의 군대의 유일 지휘 제도

셋째, 사회주의 군대에서는 군사 계급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사 계급을 '자본주의적 현상'으로 봐 군사 계급

---

[82] 북한 군대의 정치 지도원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 3 장 참조할 것.

[83] 소비에트 러시아에 1918 년 정치 장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볼셰비키당 대표자로서 러시아 제국 황군 출신 장교들을 감시했다. 부대장과 부대 정치 장교는 같은 지위를 가졌다. 1925 년 '유일 영도 체계'가 도입돼 정치 장교의 권리는 크게 줄었고 정치장교 제도는 부대장이 당원인 부대에서 완전히 폐지됐다. 그러나, 1937 년 대숙청 때 정치 장교 제도가 완전히 복권되고, 이들은 원래처럼 부대장과 같은 권리를 얻게 되었다. 1940 년 유일 영도 체계가 복원됐지만, 1941 년 독소 전쟁 발발 이후 다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1942 년 10 월에 소련 당국은 또 다시 유일 영도 체계를 복원시켜 소련의 해산 때까지 유지하였다.
Юрий Веремеев (유리이 웨레메예프). *Знаки различи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РККА по званиям. 1935-40 гг.* (노동자·농민의 붉은 군대 군인의 계급장, 1935-40 년), http://army.armor.kiev.ua/forma/rkka-35-40.php.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1920 년대 초기 소련,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 그리고 1952 년까지의 북한이다.

3) 붉은 군대의 약사(略史)

소련 · 유고슬라비아 분열까지 소련 군대는 전체 사회주의권의 모범이었다. 소련의 무력 발전 과정은 사회주의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에 북한 군대를 이해하려면 소련의 군대 약사(略史)를 파악하여야 한다.

노동자 · 농민의 붉은 군대(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ая Красная армия)는 1917 년 10 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이후 1918 년 1 월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의 최고 국가 기관인 인민위원회 명령으로 설립되었다.[84] 당시 볼셰비키 정권은 붉은 군대를 기존과 관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주의 시대의 노동계급군대로 보고 붉은 군대에서 러시아 제국의 황군 유산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블라디미르 레닌 소련 지도자와 레프 트로츠키 혁명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볼셰비키 당국은 여러 가지 조치를 채택하였다.

1) '착취 계층' 출신자(신부, 귀족 출신 등)는 일반적으로 입대가 금지되었다. 대신 이들은 정식 군대의 보좌 조직인 '후방 민병대'(тыловое ополчение)에 복무해야 했다.

2)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前) 황군 장교를 관리 감독하는 볼셰비키 당의 대표자인 정치위원(комиссар) 제도가 설립됐다.

3) 큰 부대마다 볼셰비키 당 조직이 설립되었다.

4) 붉은 군대에서 군사 계급은 폐지되었고, 대신 직위(소대장, 대대장 등)를 사용하였다.

---

[84] *Декретъ Совѣта Народныхъ Комиссаровъ* (인민위원회의 명령), 1918 년 1 월 15 일, (날짜는 당시 사용했던 율리우스력에 따라 작성), http://www.istorya.ru/imagens/sobytya/rkka-dekret.gif.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1920 년대 말까지 이 제도가 유지됐지만 스탈린 정권 확립 이후 소련에서는 사실상 '혁명적 신시대의 나라'에서 '러시아 제국을 계승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의 이탈이 시작됐다. 1936 년 붉은 군대에는 일부 군사 계급이 도입됐고, 1937 년에는 후방 민병대가 폐지됐으며 모든 국민은 출신과 상관 없이 입대할 수 있었다. 1940 년 군사 계급 제도는 완전히 복권되었다.

1930 년대 말 대숙청 시대에 붉은 군대의 수많은 지휘관들은 숙청의 피해자가 되었다. 고급 지휘관 대부분이 체포되었고, 이들 대다수는 사형되었다.[85] 이 때문에 1941 년 독소전쟁 시 붉은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옛 엘리트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독소전쟁 시 스탈린은 사실상 민족주의 강화 정책을 시행했고, 선전 구호방식으로는 '사회주의 제도 옹위'보다 '조국을 위하여 싸우자'를 사용했다. 따라서 붉은 군대도 '사회주의 군대'보다 '나라의 군대'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조직으로는 1942 년 정치위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개혁이었다. 이에 따라 붉은 군대에는 일반 군대처럼 유일 관리제가 도입되었다. 정치위원의 직위는 '정치 부대장(заместитель командира по политической части, замполит)'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들은 부대장을 감독하는 지위에서 부대장을 보좌하는 지위로 바뀌었다.

즉, 1945 년 북조선 점령 시 붉은 군대는 명확하게 사회주의 군대였지만 초창기의 여러 가지 극단적인 특징들은 잃게 되었다.

---

[85] 군대 대숙청에 대해 Николай Черушев (니콜라이 체루셰프), *1937 год: элита Красной армии на Голгофе* (1937 년: 붉은 군대 엘리트의 골고타), (모스크바: Вече (웨체), 2003) 참조.

4) 붉은 군대의 상징 제도

상기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권 대부분 나라들은 소련 군대를 모범으로 보았다. 1940-50 년대의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58 년 출간된 북한 책을 보면 조선인민군이 소련군을 따르는 것이 인정됐다.

선진적 쏘베트 군사 과학의 제 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 무력 건설의 모범으로 되는 위대한 쏘련 군대의 풍부한 경험들에 의거하였다.[86]

이 때문에 사회주의권 나라 군대의 편제를 보면 '사회주의 특징'과 '소련 특징'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군사 상징 분야에서 소련 군대를 따르지 않았던 사회주의권 군대들이 존재해 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군사 상징 제도를 파악해 봐야 한다.

우선, 소련 군대의 상징 약사를 살펴보자.

창건 시기 붉은 군대의 상징 제도는 이 군대가 러시아 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착취 계급'의 군대라는 것을 강조했다. 붉은 군대의 군복에서 구형 계급장, 부대 그리고 병과 마크를 폐지하고 군인의 직위를 표시하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등 단순한 상징을 사용하였다. 게다가 1924 년까지는 단순한 붉은 기를 군기(軍旗)로 사용하였다.

단, 상기한 바와 같이 독소 전쟁 발발 이후 소련은 군대를 '사회주의 군대'보다는 '나라의 군대'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상징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1943 년 군복 개혁으로 표현됐다. 새로운 군복은 러시아 제국 시기의 군복과 매우 닮았다.[87]

---

[86] 리권무,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8), p. 24

[87] 이 러시아 제국의 군복은 1854-55 년 니콜라이 1 세와 알렉산드르 2 세 황제의 칙령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크림 전쟁 중이었고 대부분의 유럽

[그림 2-3]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군대 군복 비교

러시아 제국 황군 준위	붉은 군대 대령 (구형 군복)	소련 군대 사관장 (신형 군복)

또한 수보로프 훈장(орден Суворова), 쿠투조프 훈장(орден Кутузова), 알레크산드르 넵스키 훈장(орден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보그단 흐멜니츠키 훈장(орден Богдана Хмельницкого), 우싸코프 훈장(орден Ушакова), 나히모프 훈장(орден Нахимова) 등 제정 시대의 군을 지휘한 인물 이름을 가진 6 개 종류의 훈장도 도입됐다. 원래 이 인물들은 봉건주의적 반동 지휘관으로 묘사됐지만, 1940 년대부터는 애국자로 찬양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군대를 공식적으로 개명하는 것이었다. 1946 년 2 월 25 일 '노동자·농민의 붉은 군대'는 '소비에트 군대(Советская армия)'로 개명되었다. 즉, 이름에서도 이 군대는 어느 계급의 군대라기보다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국가의 군대라는 것이 강조됐다.

나라들과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이 군복의 디자인은 다른 어떤 유럽국과도 구분되는 독특한 것이었다.

5. 조선인민군의 제도적 원형

조선인민군의 원형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1945 년 해방 직후 상황에서 참조가 가능한 제도적인 자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최소한 세 가지의 제도적인 선행 사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련의 노동자·농민의 붉은 군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인민해방군, 그리고 1945 년까지 존재했던 일본 황군의 제도적 유산이 그것이다.

첫째 소련의 붉은 군대를 검토해보자. 소련은 북한을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어 북한 군대인 조선인민군도 자국 군대 모습으로 창군하였다. 소련 군대의 구조, 규칙, 문화, 풍습 등은 북한 군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북한 군대 비교연구를 하려면 먼저 소련 군대와 비교를 해봐야 한다.

1945년 한반도에서 일제가 물러나고 미소 양국 군대에 의해 남북한이 분할점령된 이래 상당기간 북한지역은 소련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다. 실제 북한정권의 출범, 북한의 체제형성과정에 소련이 미친 영향력은 매우 크다. 어떤 점에서 당시 북한의 명목상 지도자는 김일성이었지만, 최고실권자는 테렌티이 시트코프(Терентий Штыков)[88] 상장(上將, 3성 장군)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사람은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북한 헌법도 편집하였고, 북한 첫 내각 구조에 대한 결정도 내렸다. 물론 조선인민군 설립 과정도 시트코프를 비롯한 소련 간부의 감시 하에 진행되었다.

소련 당국은 1945 년 10 월 조선인이 세운 무장 조직을 해산시키고 보안대를 설립하였다.[89] 이 보안대는 형식상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지도 하

---

[88] 데렌티이 시트코프는 1945 년 8 월부터 제 1 극동 전역 군사위원회 위원, 1948 년 10 월 16 일부터 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련 대사였다. 한국전쟁 발발까지 이 사람은 북한의 실제적인 지도자였다.

[89] 張浚翼, 『北韓 人民軍隊史』(서울: 서문당, 1991), p. 44.

에 있었지만 실권자들은 소련 고문관들(советники)이었다. 1946 년에는 군관 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은 아직 정식 군대 창건에 대한 허가를 주지 않았다. 당시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제 25 군의 군사위원회 위원인 니콜라이 레베데프 소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맨 처음에 새로운 조선 국가의 군대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김일성은 새로운 무력의 창립을 주장했지만, 저희는 망설였어요. 모스크바 당국은 확신하지 못했고, 창군이 미국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조선측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우리 입장을 표현하라고 요청했어요. 우리는 이 요청들을 모스크바에 계속 보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날 최고인민회의의[90] 회의가 시작했어요. 김일성, 김두봉 등 조선 최고 지도자들이 참가하였고, 저도 회의실에 있었어요. 의장은 휴식 이후 창군 문제를 토론하자는 의사일정을 선언했죠. 우리는 그 때까지 모스크바로부터 아무 답을 듣지 못했어요. 휴식시간에 저는 조선 지도자와 함께 식당으로 나간 뒤 대의원들이 매우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회의 첫날 토론하자는 결정은 안 좋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대의원들이 잘 쉬고 난 다음 날 이 문제를 토론하면 좋겠다고 했죠. 김일성이 동의해서 우리는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의장을 대신해 김두봉이 말을 이었고, 토론 연기를 선언했죠. 저는 즉시 모스크바 즈다노프[91]에게

[90] 당시에 형식상 북한 최고 기관은 최고인민회의가 아니고, 북조선인민위원회라고 호칭되었다.

[91] 안드레이 즈다노프가 볼셰비키 당의 정치국 위원이었고, 실제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였다.

전화했어요. 그 때 시트코프[92]가 즈다노프 집에 있었어요. 즈다노프는 집에 없었는데, 저는 그의 보좌인 쿠즈네조프[93]와 통화했어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는 나를 브쉬느스키이[94]와 연결시켰어요. 나는 다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죠. 아침에 모스크바에서 창군 승인을 확인하는 암호문이 왔어요.[95]

1948 년 2 월 3 일 소련의 전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레베데프와 시트코프의 요청에 따라 조선인민군 설립에 대해 결정을 내렸고 2 월 8 일 조선인민군이 창군되었다. 다음은 볼셰비키당 정치국 결정서의 인용이다.

3.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민족보위국을 설립하고 인민회의의 회의 마지막 날에는 평양시에 시위를 진행하며 사관 1개와 군관 학교가 참가하는 조선 민족적 무장력의 열병식 진행을 허가함.**[96]

(3. Разрешить Народному Комите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здать Департамент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и в день окончания сессии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вести в городе Пхеньяне митинг и парад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войск с участием одной дивизии и офицерской школы.)

고문관 수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다. 인민군대에는 대대마다 고문

---

92 테렌티이 시트코프 상장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대표팀의 팀장으로서 당시 실제 북한의 최고 실권자였다.
93 알레크세이 쿠즈네초프는 볼셰비키 당의 중앙위 비서였다.
94 안드레이 브쉬느스키이는 당시에 소련 외교 차관이었다.
95 안드레이 란코프가 니콜라이 레베데프와 한 인터뷰, 1989 년 11 월 3 일.
96 Протокол № 62 (제 62 기록), *Решения Политбюро ЦК ВКП(б) за 27 января - 17 марта 1948 года* (1948 년 1 월 27 일부터 3 월 7 일까지 전소련공산당 (볼셰비키)의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 От 3.II.48 г. (1948 년 2 월 3 일).

관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97] 연대마다 고문관이 1-2명 정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98] 이 고문들은 창군 과정을 지도하였다. 당시 북한 군사 규칙, 군대 구조, 군복 등은 소련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소련의 북한 군대 전문가인 게오르기이 플로트니코프는 고문관들이 북한 군대의 발전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고 북한 군의 대비 수준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99]

1948년 12월 소련 군대는 철수됐지만 북한은 소련의 통제를 받았다. 김일성은 원래 남침을 통한 한반도 통일 계획이 있었고,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이 소련에게 군사 지원을 받아 조선인민군이 소련 무기와 전투용 기재로 무장됐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1950 년 봄 소련은 남침 계획을 승인했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있는모든 고문관들은 새로운 인원으로 교체됐다. 이 새로운 고문관 팀은 한국전쟁 준비 과정도 지도했다.[100]

한국전쟁 발발 당시 북한은 비행사와 고사포수가 매우 부족했고, 소련은 자국의 공군 장교와 병사들을 북한에 파견하였다. 휴전 이후 소련 고문관들은 북한에서 1950 년대 말까지 복무했고, 이 고문관들은 김일성의 요구에 따라 1958-59 년 차례차례 귀국하였다.[101]

1956년 종파사건 이후 소련의 영향력은 매우 감소되었고 중소분쟁 때 북한은 중국 편을 들게 되었다. 즉, 이 때부터 북한 군대의 '소련 시대'는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소련 점령 당국 고문관들은 인민군 설립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창군 시기 실권자들은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

97 안드레이 란코프가 게오르기이 플로트니코프와 한 인터뷰, 1990 년 2 월 1 일.
98 안드레이 란코프가 심수철과 한 인터뷰.
99 안드레이 란코프가 게오르기이 플로트니코프와 한 인터뷰, 1990 년 2 월 1 일.
100 안드레이 란코프가 우성철과 한 인터뷰, 1991 년 1 월 18 일.
101 안드레이 란코프가 강상호와 한 인터뷰, 1990 년 1 월 13 일.

빨치산 출신 북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소련 당국이었기 때문에 북한 군대는 항일 유격대는커녕 소련 군대의 형상대로 창군됐다. 1950 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대부분 소련을 따라한 것처럼 북한군 역시 소련군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특징들을 차용했다.

두 번째로 중국의 인민해방군 경우를 살펴보자. 중국 군대가 북한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에 중국 군대가 다수 참전했고 그 과정에서 북·중 군사 동맹이 체결되었다. 또 1958년까지 중국 군대가 북한에서 주둔하기도 했다. 그만큼 중국의 군대조직, 군사문화가 북한군대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1945년 말 중국 대륙 대부분은 중화민국, 즉 장개석(蔣介石) 정권 통치 하에 있었다. 소련은 일본제국의 괴뢰 국가였던 만주국(滿洲國)과 몽강국(蒙疆國)의 영토를 점령해 나중에 이 땅을 중국공산당에 넘겨 주었다. 이 시기 중국 항일 전쟁에 참가한 조선인들 중에는 한반도 북반부에 귀국한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는 나중에 인민군 지휘관들이 되었다.

1949년까지 소련은 중화민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장개석 정부를 전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화민국과 아무런 국교가 없었다. 반면 중국 국공내전(國共內戰) 당시 북한 영토는 중국공산당 기지로 사용되었고, 북한은 공산당 군대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102]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언한 직후 북한은 공산주의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한국전쟁 준비에 대해 모택동에게는 상대적으로 늦게 알려준 편이지만 1950년 5월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참전 가능성을 살펴봤다. 중국 군대는 1950년 10월 말 참전해 11월부터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 편의 주도세

[102] Kim Sang Won, “The Chinese Civil War and Sino-North Korea Relations, 1945–5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7, No. 1, 2014, pp. 91-113.

력이 되었고 휴전시까지 모든 전투의 참가자 대부분은 중국 병사였다. 휴전 협정도 팽덕회(彭德懷) 사령관이 서명하였다.

중국 군대는 1958년까지 북한에 주둔해 있었고, 중국 군인들은 전후(戰後) 복원 사업에 참가하였다. 중국 철수 이후 중소분쟁에서 중국 편을 든 북한은 1960년대 초기 중국을 본받아 로농적위대라는 준군사 조직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문화대혁명 발발 이후 김일성은 대중(對中)·대소(對蘇) 정책을 수시로 변경해 시대마다 친소나 친중 노선을 따랐다. 즉,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 군대는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도 받지 않게 되었다.

중국이 북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시기(1950년대 말-1960년대 초)에는 북한 군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지만 준군사 조직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결국 중국은 조선인민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 준군사 조직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이 사실들도 '경로 의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민군의 경우 이미 창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창군 시기 전통들은 중국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그런데, 준군사 조직이 형성된 시기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이 조직들은 그 때부터 현재까지 중국식 조직으로 존재해 왔다.

마지막으로 일본제국의 군대경험, 그 유산의 영향력도 검토해보기로 한다. 북한은 일제강점기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지만, 브라이언 마이어스(Brian Myers)의 '가장 깨끗한 인종'[103]이라는 명작이 나올 때부터 북한 선전·교육 간부들 중에는 식민지 시절에 교육을 받았던 수많은 친일파들이 있었다. 이들은 북한의 사상 제도를 형성했기 때문에 북한을 사상적으로 일본제국과 같은 극우 국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하지

[103] Brian Myers, *The Cleanest Race: How North Koreans See Themselves - and Why It Matters* (Brooklyn: Melville House Publishing, 2010).

만 필자는 이 문제에 다른 의견을 가져 본 논문에서는 북한 군대에는 일본 제국 군대의 전통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주려고 한다.

대한제국 군대는 1907년 이완용 총리와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체결한 한일신협약에 따라 해산되었다. 3년 후 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1938년까지 조선인들은 일반적으로 일본 황군에 입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38년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의 정령에 따라 조선인을 위한 지원입대제도가 도입되었다. 게다가, 1944년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고이소 쿠나아키(小磯國昭) 총독은 조선인 징병제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일본 군인들 중에는 조선 사람들이 드물지 않았다. 소련 장교들 역시 소일전쟁 일본군 포로 중에 "조선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104] 소련 당국은 황군 출신 장교들을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지 못하도록 했다.[105] 북한 내무성 강상호 부상(副相)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질문: 혹시 조선 군대에서 일본군 출신 조선인 장교가 있었습니까?

대답: 그렇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부터 일본 장교, 간부, 경찰관 등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사(技師), **의사**(醫師)**와 같은 일부 분야 전문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고 채용이 가능하였습니다.**[106]

이후 북한에서는 일본 군대를 '침략적 왜군'으로 간주했고 황군의 전

---

[104] Борис Сапожников (보리스 사포지니코프), *Положение в Корее: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водка* (조선의 상태: 통보 보고), 1945 년 9 월 13 일, ЦАМО РФ(러시아연방 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Ф. 32, Оп. 11306, Д. 692 (문서군 32, 목록 11306, 문서철 692).

[105] 전 북한군 작전국장 유성철은 황군 출신 몇 명이 인민군 입대를 허가했지만 1950 년대에 리활 비행사 제외에 모두 숙청했다고 증언하였다. 안드레이 란코프가 유설철과 한 인터뷰, 1991 년 1 월 18 일 참조.

[106] 안드레이 란코프가 한 강상호와의 인터뷰, 1990 년 1 월 13 일.

통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때문에 황군의 유산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군대에 일본 유산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북한의 정치·군사 엘리트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1945년 일본제국 정권이 붕괴하면서 식민지 엘리트는 권력을 상실하였다. 새로운 소련 엘리트와 이들의 지도를 받았던 공산당과 항일 운동 출신 새로운 조선인 준엘리트는 일본 군대와 아예 관계가 없었다. 이 때문에 북한 군대 형성에 일본 군대의 경험은 무시되었다.

혹자는 이러한 사실이 '경로 의존'이라는 개념과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당시 북한을 다스렸던 사람들은 소련인이나 친소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련의 전통에 개입하기 마련이었다. 즉, 북한에서는 '경로 의존'이 분명히 보였는데 이 경로는 식민지 조선의 경로가 아니고 소련의 경로였다.

6. 북한 군대의 변화 시기구분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는 북한 군대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군대의 창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있는 시기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군 창군일인 1948 년 2 월 8 일부터 현재까지 70 년이 지났고 북한군대는 이 기간 동안 변화해왔기 때문에 시기구분은 단순한 편의적 구획이 아닌, 북한체제의 내적 전환을 반영하는 작업이 된다. 이 글에서는 조선인민군의 역사를 창건기, 독립발전기, 단독발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세 단계는 각각 체제형성과 전시 단계라 할 초기, 냉전 시대에 조응하는 중기, 그리고 탈냉전 시대에 해당하는 후기에 조응하는 것이다.

1) 창건기 (1948–1956)

이 단계에 북한 군대는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바로 한국전쟁 준비와 진행, 전후 건설 시기였다. 당시 북한 군대에는 정상적인 징병제도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공민들은 동원의 대상이었다.

군대 관련 주요 사건: 조선인민군 창군, 한국전쟁 발발, 김일성 최고사령관 임명, 인민군이 남한 지역 대부분 점령, 국제연합군 반격으로 북한 정권 임시 멸망, 중국 참전으로 북한 정권 복권, 군내 당 조직과 정치장교 제도 도입, 군관 군사 칭호 도입, 휴전, 군사 동원 해체

조선인민군은 1948 년 2 월 8 일 창군되었다. 한반도 북반부를 통제했던 소련 당국은 북한 군대의 편제, 군복, 규칙, 문화 등을 '모범적인 사회주의 군대'인 소련 군대 모형으로 정의했다.

이 시기 핵심적인 사건은 한국전쟁이다.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꿈을 꾸었던 김일성은 인민군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스탈린에게 남침 허가를 부탁하였다. 결국 1950 년 6 월 25 일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였다. 한국전쟁 진행 과정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전쟁 당시 북한 정권 지배 하에 있었던 지역의 모든 청년 남자들은 군사 동원 대상이었다. 즉, 인민군 구성원들은 계속 변경되고 있었다.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뒤 북한 당국은 3 년 동안 동원을 해제하지 않고 군인도 제대시키지 않았다. 북한은 1956 년이 되어서야 제대 명령을 하달하였다. 즉 북한 군대의 평화 시기는 1956 년 시작됐다.

2) 독립 발전기 (1956–1993)

징병제 도입 이후 북한 군대는 비교적 정상적인 냉전 시기의 사회주의 군대가 되었다.

<u>군대 관련 주요 사건</u>: 징병제 도입, 중국 군대 철수, 4 대 군사로선 개념 도입, 유일사상체계 도입, 군무생활 10 대 준수사항 도입, 김정일 최고사령관 임명, 소련 해체로 냉전 종결

1956 년 도입된 징병제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 군대는 정상적인 평화 시대의 군대가 되었다. 1950 년대 말 8 월 종파 사건[107]과 권력 분립 거부[108]로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독립됐다. 이로써 조선인민군도 소련 모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1958 년에는 중국 군대도 북한 땅에서 철수해 김일성은 완전히 독립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즉, 북한 군대 역사 초기는 '소련 시대'였지만, 이때부터 실질적인 김일성 시대가 시작됐다.

'중기'는 냉전 시대였다. 이 시기 북한은 남한과 대립하였고, 중국과 소련은 북한의 동맹 국가였다. 이로써 북한은 군대를 강화하여야 했지만,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1962 년 북한 당국은 '4 대 군사로선'을 선언하였다. 바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였다.[109] 그런데 이 개념은 조선인민군의 사회적인 특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인민의 무장화'는 민간인들이 로농적위대를 비롯한 준군사적인 조직

---

[107] 1956 년 8 월에 최창익을 비롯한 북한 고위 간부들은 김일성 타도 음모를 꾸몄지만 실패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Андрей Ланьков(안드레이 란코프), *Август, 1956 год. Кризис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1956 년 8 월. 북한의 위기) (모스크바: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러시아 정치 백과사전), 2009); 下斗米伸夫(시모토마이 노부오), 『モスクワと金日成—冷戦の中の北朝鮮 1945-1961 年』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 시기의 북한, 1945-1961), (도쿄: 岩波書店 (이와나미 쇼텡), 2006) 참조.

[108] 1957 년 소련은 김일성에게 권력 분립을 위해 내각수상이나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중 하나의 직위는 사직하라고 하였다. 김일성은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하여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직하지 않았다.

[109] "4 대군사노선,"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koreanChrctr=&dicaryId=10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입대를 격려하는 것이며, '전지역의 요새화'와 '전군의 현대화'에 따라 북한 국방 예산은 인상되기 시작하였다.[110] 그리고 하전사[111]에게도 간부처럼 집중적인 사상교육을 시키라는 '전군의 간부화'라는 개념은 유일하게 북한 군대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1967 년 김일성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체계'를 도입했다. 이것은 북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민간 사회처럼 군내에도 김일성 개인숭배가 강화돼 사상 교육에 김일성의 위대성은 매우 강조되었다. 이로써 유일사상체계 도입 이후 북한 군대는 소련 원형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1977 년 11 월 30 일,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제 7 차 선동원대회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연설을 하며 다음과 같은 '군무생활 10 대 준수사항'을 선언하였다.

1. **군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것이다.**
2. **무기에 정통하며 철저히 관리하는것이다.**
3. **군사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는것이다.**
4. **당 및 정치조직들에서 준 임무를 반드시 집행하는것이다.**
5. **국가기밀•군사기밀•당 조직기밀을 엄격히 지키는것이다.**
6. **사회주의 법과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는것이다.**
7. **군사정치훈련에 반드시 참여하는것이다.**
8.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것이다.**
9. **국가재산과 군수물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절약하는것이다.**

---

[110] 1960-70 년대 북한 국방비에 대한 가장 훌륭한 연구는 이달희, "북한 공식 발표 국방비의 진실 게임," 『국방정책연구』, 70 권, (2005), pp. 137-163 이다. 이달희는 북한의 경제 총계 왜곡 방식을 분석하고 1960 년대 말 북한 국방비가 특히 높았다는 결론을 내린다.

[111] '하전사'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군관이 아닌 자, 즉 병사와 하사관을 이르는 말이다.

10. **군대 안의 상하가 일치단결하는것이다.**

보다시피 '군무생활 10 대 준수사항'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원래도 군사 규칙에서 '10 대 사항'과 같은 사상과 주장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이기 때문에 군내 선전 자료에 사용되고 군인 선서까지 '군무생활 10 대 준수사항'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1970-80 년대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교육이 시작됐다. 1991 년 12 월 24 일 김정일은 군 최고사령관이 돼 군에서의 김정일 시대가 개막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인 12 월 26 일 소련이 해체돼 냉전은 종결되었다.

3) 단독 발전기 (1993–2017년 현재)

냉전 종결로 동맹국가 없이 남아 있는 북한은 한미동맹과 대립하였다. 당국은 경제·정치·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 복무 기간을 공식적으로 10 년으로 연장시켰다.

군대 관련 주요 사건: 복무기간 10 년으로 공식 연장, 경제위기 및 대기근, 선군 정치 선언, 북한 경제 장마당화, 김정은 최고사령관 임명, 여성 징병제 도입

1991 년 12 월 26 일 소비에트 연방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112] 이로써 냉전은 종말을 고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은 이미 개혁의 길을 선택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실제 사회주의 국가로 남은 북한이 한미일 동맹에

[112] 소비에트 연방은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의 공화국 소비에트(Совет Республик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의 "제 142-ㄴ 선언" (Декларация №142-Н)으로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선언의 전문 *Декларація Совета Республик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в связи с созд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독립국가연합 설립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 소비에트 공화국 소비에트의 선언) http://www.uni-potsdam.de/u/slavistik/zarchiv/1296m/k242-14.htm.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혼자서 대립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처럼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북한에서는 경제 위기가 발발하였다.

북한 당국의 대응은 조선인민군 복무기간을 10 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었다. 북한 당국의 계획은 복무기간 연장으로 인민군이 대한민국 국군에 어느 정도 맞설 수 있으면서 군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이 시대 군인들은 노동동원 대상이 되었고, 북한 문학과 예술에서 "농민들을 도와 주는 군인", "건설자 군인" 등의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13] 그리고 군인들의 사회적인 위신을 높일 목적으로 선군 정치도 선언하였다.

2011 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막내아들인 김정은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2017 년 현재 김정은은 농업·기업 관리 분야에서 경제 개혁을 실행했지만, 군대에는 이와 반대로 여성 징병제 도입으로 통제를 심화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7. 북한군의 발전경로와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1)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과의 비교

북한과 동유럽 나라의 군사(軍史) 경로를 비교해 보면 핵심적인 차이점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다.

첫째, 동유럽 나라들은 소련 점령 전에 군사 전통들이 있었다. 소련 당국은 공산주의화 과정에서 1945년 이전 동구 군대들에 있었던 군사 전통과 소련 군대 경험을 결합해 사회주의 군대의 특징을 형성했다. 예컨대, 동독 군대에 있었던 준사관 5개의 계급[114]이나 독일 제국과 나치 독

[113] Tatiana Gabroussenko, *Heroes Raising Heroes: Changing Narrative of the Honourable Veterans in the North Korean Propaganda.* (미발간 원고)

[114] Klaus Froh, *Chronik der NVA, der Grenztruppen und der Zivilverteidigung der DDR 1956-1990*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인민군, 경비대 그리고 민방위의 편년사. 1956-1990) (Berlin: Köster, 2010), p. 434.

일까지 닮았던 군복을 이러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은 달랐다. 대한제국의 군대를 정상적인 군대로 보기 어려워 1945년 기준으로 보면 북한 역사상 유일한 근대적 군대는 일본 제국의 황군이었다. 즉, 조선에서는 민족적 근대 군사 전통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련 당국은 북조선을 '타불라 라사(Tabula rasa)'[115]로 보았다. 따라서, 북한군 건설기에 나타난 특징 모두는 소련군대에서 차용되었다.

북한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이 분야에 제일 공통점이 많은 나라가 몽골인 것 같다. 청(淸)나라의 일부였던 몽골은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 독립을 선언해 사실상 러시아 제국의 보호국이 되었다.[116] 러시아 내전 이후 몽골에서도 사회주의 정권이 설립돼 몽골인민공화국은 정치에도 군사 분야에도 소련의 경험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차용하였다.[117]

둘째, 불가리아, 루마니아,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이 지도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구성 국가였다. 이 나라들은 직접적인 소련의 군사·정치적 통제를 받아 소련군의 조직적 특성이나 상징 차용 여부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다. 헝가리처럼 소련 통제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는 동유럽 나라의 당국은 소련 유산을 없애도록 조용히 노력하였다.

---

115 Tabula rasa 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종이라는 뜻이다. 경험을 받기 전의 상태를 이르는 라틴어 표현이다.

116 Сергей Кузьмин (세르게이 구지민), *Легитимация теокра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монголь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в начале XX в.* (신권 정권의 합법화와 20 세기 초에 몽골의 독립 복원) в кн. *Россия и Монголия в начале XX в. Дипломатия, экономика, наука, кн. 3, ч. 1.* (20 세기 초에 러시아와 몽골. 외교술, 경제, 과학 등. 제 3 권 제 1 장) (이르쿠츠크: БГУЭП(바이칼 국립 경제 법학 대학교 출판사), 2014), pp. 48-67.

117 Alan Sanders, *Historical Dictionary of Mongolia* (Lanham: Scarecrow Press, 2003), p. 13;
Mongolian People's Republic: Outer Mongolia, (New Haven: Human Relations Area Files: 1956), p. 75.

소련 당국은 조직적 특성보다 군사 상징을 덜 중요한 것으로 봤고, 1970년 헝가리의 군복 개혁은 이 '조용한 항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118] 반대로, 불가리아와 같은 소련에 충성한 나라는 소련 유산이 공산주의 정권 붕괴까지 유지된 경향이 있었다.

북한은 1950년대 소련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었기 때문에 동구 나라들과 달리 소련과의 관계나 소련 전통의 유지 여부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의 군대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북·소 관계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 상황이었다. 여기에 북한이 소련에게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던 중국, 베트남, 유고슬라비아와 공통점이 있다.

2) 대한민국 국군과의 비교

대한민국 역시 북한처럼 외국 점령을 거쳐 건국되었다. 국가 창건 과정을 미국 군대가 관리하였다. 이 사실을 보면 대한민국 국군의 창건과정에 미군의 영향이 북한군에 대한 소련군의 영향만큼이나 컸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한 창군 과정은 북한과 명확하게 차이점들이 있었다. 첫째, 남한에서 일본 제국 황군에 대한 관계가 덜 부정적이었다. 1940년대 말기에 이승만 정권은 소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탄압 정책을 실행했지만, 북한과 달리 일본이나 만주국 출신 장교들이 국군에 환영을 받았고, 특별 임관으로 높은 군사 계급을 받았다. 일본 군대 소좌였던 이종찬이 국군 대령으로 특별 임관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119]

둘째, 1940-50년대 전반 소련의 북한 통제와 비교하면 미국의 남한 통

---

[118] *Форма солдат армий стран Варшавского договора*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나라들의 군복), https://vk.com/album-62474637_20439121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119] 姜聲才, 『참軍人 李鍾贊장군: 軍의 정신적 代父 그의 評傳』, (서울: 東亞日報社, 1987), p. 22.

제는 훨씬 약했다. 김일성과 최용건은 인민군 창립 방식에 대한 지시를 소련 당국과 소련 대사관으로부터 받았지만, 국군 장성들은 자유가 더 많았다.

셋째, 북한군 고급 군관들 중에는 남일 총참모장을 비롯한 고려인들이 많았는데, 국군 창립에 재미교포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과 달리 국군에게 미군의 경험은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특징들은 일본 제국 황군, 미합중국 군대 그리고 1940년대 국군 장성들 결정의 결합으로 나왔다.

제3장 조선인민군 창건:
소련식 군사 특징 도입(1948-1956)

제 1 절 소련식 조직 특성의 도입

1. 부대 단위 및 군사 직위

군대는 확실한 계층이 있는 사회조직이다. 모든 군대는 부대의 체계가 있는데 북한 군대 편제를 살펴보면서 소·중·일 편제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 북한, 소련, 중국, 일본 제국 육군의 부대 체계 비교

북한[120]	소련[121]	중국[122]	일본 제국 육군[123]
(없음)	전선/군구(фронт)	군구(軍區)	총군(總軍)
		집단군(集團軍)	방면군(方面軍)
	집단군(армия)		군(軍)
군단	군단 (корпус)		집단(集團)
사단	사단 (дивизия)	사(師)/여(旅)	사단(師團)
여단	여단 (бригада)		여단(旅團)
		단(團)	단(團)
연대	연대 (полк)		연대(連隊)
			전대(戰隊)
대대	대대 (батальон)	영(營)	대대(大隊)
중대	중대 (рота)	연(連)	중대(中隊)
소대	소대 (взвод)	배(排)	소대(小隊)
분대	분대 (отделение)	반(班)	분대(分隊)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 군대의 부대 제도는 소련에서 복사돼 온 것이며 중국이나 일본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아래 표를 보면, 소련과 북한 부대 인원 규모도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120 조선인민군 규정에 따라 1950 년대 중반 북한 군대 명목상에는 군단 이상 집단군, 전선과 군구라는 부대 단위도 존재했지만, 실제로 군단 이상 부대는 없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군 기률규정』(평양: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55), pp. 20-21 참조. 단, 1950 년대 말 집단군이 생겼고 나중에 다시 폐지되었다. 呂政, 『붉게 물든 대동강』, (서울: 동아일보사, 1991), p. 102 참조.

121 Юрий Веремеев (유리이 웨레메예프). *Иерархия воинских формирований* (군부대 단위 제도), http://army.armor.kiev.ua/hist/ierarx.s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122 欧阳青(구양청), 『1955 共和国将帅大授衔』 (1955 년: 공화국에 장성과 원수 칭호를 대규모로 수여) (제남: 黄河出版社(황하출판사), 2008), p. 53.

123 『日本帝国陸軍組織』 (일본제국 육군의 조직), http://www.geocities.jp/yh482600/taihei/rikugun23/rikusosiki1/rikugunsyou.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표 3-2] 북한과 소련군의 부대 인원 비교

	조선인민군	소련 군대[124]
군단	60,000-140,000[125]	규정 없음
사단	10,000[126]	12,000-24,000
여단	9,000	2,000-8,000
연대	2,000	900-2,000
대대	450	250-950
중대	100	18-200
소대	26	9-45
분대	10	3-15

2. 정치 장교

사회주의권 군대의 특색 중 하나는 정치 장교의 존재다.[127] 정치 장교는 군대 내 당(黨) 대표자인데, 부대마다 정치 장교가 있다.

정치 장교의 기원은 러시아 1917 년 2 월 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128] 혁명 이후 설립된 러시아 임시정부는 장교의 불성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군대에 정치위원을 파견했고, 정치위원은 부대장을 통제할 권리가 있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 볼셰비키 당은 정치 장교 제도를 더욱 발전시켰고, 1918 년부터 1923 년까지 진행됐던 러시아 내전 시기 붉은 군대의 정치 장교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

124 Юрий Веремеев (유리이 웨레메예프). *Иерархия воинских формирований* (군부대 단위 제도), http://army.armor.kiev.ua/hist/ierarx.s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125 이정연,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pp. 224, 226.

126 사단 이하 부대의 인원 수에 대한 『北韓全書』(서울: 極東問題硏究所, 1980), p. 430 참조.

127 나영주, 『中國人民解放軍의 役割 變化』(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p. 31.

128 1917 년 2 월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했다. 니콜라이 2 세 황제는 타도되었고, 혁명가들은 임시정부를 세웠다. 단, 몇 개월 뒤 임시정부도 공산주의자로부터 타도되었다.

소련에서 정치 장교의 위치는 시대마다 달랐다. 정치 장교가 부대장보다 우선권을 갖는 경우도 있었고, 부대장에게 명령을 받았던 시대도 있었다. 마침내 1942 년 10 월 9 일 "붉은 군대에 완전한 유일 지휘 체계 설립과 정치위원체계 폐지에 대하여"라는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정치 장교의 우선권은 완전히 폐지되었다.[129]

정치 장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장교는 당의 대표자로서 부대 당위원회 위원장이다. 당원을 관리하고 당 모임을 설립하며 부대 구성원 입당 문제도 관리한다. 둘째, 정치 장교는 부대 구성원들에게 정치 및 사상 교육을 시킨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 장교는 부대장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은 소련처럼 유일 지휘 제도를 설립하였다.[130] 김일성은 모든 부대장들이 당에 대해 충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다.[131]

---

[129]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1942 년 10 월 9 일,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полного единоначалия и упразднении института военных комиссаров в Красной Армии»* (붉은 군대에 완전한 유일 지휘 체계 설립과 정치위원체계 폐지에 대하여).

[130] 북한에서 이를 '유일관리제'라고 부른다.

[131] 백한순, "북한 정치에서의 군대: 성격, 위상, 역할," 『세종정책연구』, 4 호 (2011), pp. 13-17.

[표 3-3] 북한과 소련의 정치 장교 체계 비교

<table>
<tr><th colspan="2">북한[132]</th><th colspan="2">소련 (1942 년)[133]</th><th colspan="2">소련 (1945 년)[134]</th></tr>
<tr><td colspan="2" rowspan="2">(없음)</td><td>전선/군구</td><td>(없음)</td><td>전선/군구</td><td rowspan="2">군사위원회 위원 (член военного совета)</td></tr>
<tr><td>집단군</td><td rowspan="5">정치위원 (комиссар)</td><td>집단군</td></tr>
<tr><td>군단</td><td rowspan="4">정치위원</td><td>군단</td><td>군단</td><td rowspan="4">정치부대장 (замполит)</td></tr>
<tr><td>사단</td><td>사단</td><td>사단</td></tr>
<tr><td>여단</td><td>여단</td><td>여단</td></tr>
<tr><td>연대</td><td>연대</td><td>연대</td></tr>
<tr><td>대대</td><td rowspan="2">정치지도원</td><td>대대</td><td>대대</td><td rowspan="4">(없음)</td></tr>
<tr><td>중대</td><td>중대</td><td>정치지도원 (политрук)</td><td>중대</td></tr>
<tr><td>소대[135]</td><td rowspan="2">(없음)</td><td>소대</td><td rowspan="2">(없음)</td><td>소대</td></tr>
<tr><td>분대</td><td>분대</td><td>분대</td></tr>
</table>

3. 군내 국가안전보위부 대표자

사회주의 국가들에는 일반적으로 큰 부대에서 비밀 경찰을 대표하는 일꾼이 있다. 이 일꾼의 권리는 자본주의 나라의 방첩 일꾼보다 많고 다양하다. 임무는 군인의 사상 상태를 감시하고 반국가 범죄와 싸우는 것이다.

---

[132] 이소연과 한 인터뷰.

[133] Юрий Веремеев (유리이 웨레메예프). *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ая Красная Армия 1940-1942 гг.* (노동자·농민의 붉은 군대. 1940-1942 년), http://army.armor.kiev.ua/titul/rus_8.s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134]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1942 년 10 월 9 일,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полного единоначалия и упразднении института военных комиссаров в Красной Армии*» (붉은 군대에 완전한 유일 지휘 체계 설립과 정치위원체계 폐지에 대하여); Военный совет (군사위원회),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ом 3* (소련 군사 백과사전 제 3 권), 모스크바: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소련 국방부 군사출판사, 1979), pp. 273-274.

[135] 북한 군대에서 복무한 이소연에 따르면, 전방 군단들(제 1,2,4,5 군단 등) 일부 부대에 소대까지 정치지도원과 보위지도원이 있다. (이소연과의 인터뷰).

북한 군에서 이 역할을 했던 조직은 내무성 정치안전국[136]이었고, 부대마다 정치안전국의 대표자가 있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돼 왔고 현재 북한군에서 연대 이상 부대에는 '보위부장'이나 '보위 지도원'이라는 국가안전보위부의 대표자가 있다.

보위부장은 부대의 정치·사상적인 상태를 감시하는 것뿐 아니라 부대 내의 사범을 수사한다. 북한 민간 사회에서는 인민보안성이 처리하는 일반 범죄와 국가안전보위부가 처리하는 정치 범죄가 확실하게 구별되지만, 군대의 경우 일반 범죄나 정치 범죄 모두 보위부장 책임이다.

즉, 민간 사회와 달리 군대에서는 일반·비밀 경찰의 구별이 없고, 보위부장의 임무는 민간 사회에서 보안부와 보위부가 맡고 있는 책임과 같다.

보위부장은 하전사로 군사복무를 마쳐 보위대학을 졸업한 직업군인이다. 인민군 안에는 민간 보위부 출신 보위부장은 없다(S2). 군내 보위부와 관련한 최고 조직은 보위총국이다.[137]

보위부장의 기원은 소련에서 찾을 수 있다. 소련에서 연대 이상 부대에는 특별부(особый отдел)가 존재했고, 주로 방첩 활동, 탈영 그리고 반국가 행위 등의 문제를 처리했다.[138]

소련이나 북한과는 달리 중국 군대에는 이런 조직이 없다.[139] 일본 제국에는 비밀 경찰인 헌병대(憲兵隊)가 있었지만 북한의 보위부와 매우

---

136 1970 년대부터 '보위국', 김정일 시대에 '보위사령부', 김정은 시대에 '보위총국'으로 개칭하였다.

137 보위총국은 '보위사령부' 원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조직에 대해 조충수, "북한군 '보위 총국'의 실체" (1) "장길산 전 국가안전보위부 인입공작원", 『블루 투데이』, 2013 년 5 월 20 일,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253.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138 Валентин Мзареулов (왈렌틴 므자레울로프). *Особые отделы* (특별부), http://shieldandsword.mozohin.ru/VD3462/nkvd4143/osobist.htm.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달랐다. 소련 내무인민위원회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헌병대는 민간인이나 군인도 통제했고, 군인은 육군성(陸軍省) 소속 헌병대가 책임을 졌다.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이들은 민간인 출신이며 헌병 학교 졸업생이었다.[140] 또한 북한과 달리 헌병대에는 상등병 이상 준위 이하 장교가 아닌 자도 근무했다.[141]

4. 북한군의 군종 제도

근대 군대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무력의 육군과 해군의 분리이다. 일본제국의 황군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본 제국에서는 육해군 공동사령부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육군성과 해군성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군 안에 육상 부대인 해군 육전대(海軍陸戰隊)가 있었고 육군은 항공모함을 보유하였다. 일본의 육·해군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것은 천황이었다. 육군 대원수이며 해군 대원수인 천황은 육군 겸 해군 총사령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군종 제도는 소련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이다. 북한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 등 세 가지 군종(軍種)으로 나뉘며, 군종 안에는 다양한 병과가 있다.

이들 중 육군이 압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해군이나 공군 사령관이 있지만 육군 사령관은 바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다. 1952 년 군사 칭호 도입 이후 대장 이하 군인들은 군종과 병과에 따라 구별이 있었지만, 최고 엘리트인 원수급 장교들은 이런 구별이 없었다. 이들은 육군형 군복

---

[139] Андрей Кокошин (안드레이 코코쉰), Геннадий Осипов (게나디이 오시포브), *Политология и социология во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군사 전략 사회 · 정치학 연구) (모스크바: УРСС(우르쓰), 2005), p. 535.

[140] 주요 학교는 도쿄와 경성에 위치하였다.

[141] "Japanese military police" in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 (TM-E 30-480)*,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4), pp. 83-84.

을 입어 상징적으로 육군과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특징 역시 소련에서 차용된 것이다.

5. 군사 계급 도입 과정

군대는 다른 사회 조직들보다 서열체제가 더욱 확실하고 공식화돼 있다. 부하와 상급자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군사 계급이다. 일반적으로 군인은 자신보다 상급자로부터 받는 합법적인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데, 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군대 질서에서 핵심이다.

북한에서 군사 계급은 '군사 칭호'로 불린다. '군사 계급'이라는 표현은 영어의 'military rank'에 해당하는 것처럼 '군사 칭호'는 러시아어로 'воинское звание'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군사 칭호 도입 과정은 소련 모델을 따랐다.

1) 1948 년: 군사 직위

1948 년 인민군이 창군된 때는 인민군에 군사계급이 없었고 그 대신 군사 직위가 사용됐다. 군사 직위 제도는 인민군 공식 창건 전인 1947 년에 도입되었고,[142] 이 제도에 따라 군인들은 '병사'와 '군관' 등으로 구별됐다. 군관들은 고급, 상급, 중급, 하급 지휘관으로 나뉘었다.

- **고급 지휘관:** 민족보위상[143](총사령[144]), 총참모장 / 민족보위성 부상, 사단장 / 연대장 / 군사 학교장

---

[142] 張浚翼, 『北韓 人民軍隊史』, (서울: 서문당, 1991), p. 60.

[143] '민족보위상'의 어원은 어느 정도 예외적인 것이다. 필자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1940 년대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반도 통일 정부에 대해 토론을 했을 때 미국측은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라는 지위를 제안하였다. 이 지위는 러시아

- **상급 지휘관:** 사단참모장, 연대장, 부연대장 / 독립대대장, 대대장
- **중급 지휘관:** 부대대장 / 독립 중대장, 중대장, 부중대장 / 독립소대장, 소대장
- **하급 지휘관:** 특무장, 부소대장, 분대장, 부분대장
- **병사:** 상등병, 병사

이 시스템은 붉은 군대가 1924 년 창립돼 1935 년까지 사용했던 제도와 매우 비슷했다. 다음 표에서 비교해보자.

말로 министр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로 번역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어 명칭은 '민족보위상'이 됐다.

144 민족보위성은 1948 년 9 월 북한 첫 내각 설립과 동시에 창건되었다. 이 전에 북한군 최상급은 '총사령'이라고 호칭되었다.

[표 3-4] 붉은 군대와 조선인민군 군사 직위 비교

<table>
<tr><th>급수</th><th colspan="2">붉은 군대 (1924-1935)[145]</th><th>급수</th><th colspan="2">조선인민군 (1948 당시)[146]</th></tr>
<tr><td>14</td><td rowspan="6">고급
지휘관
(Высший начсостав)</td><td>전구장
(Командующий фронтом)
군 사령관
(Командующий армией)
전역장 (Командир округа)
전역 혁명위원회 위원
(Член реввоенсовета округа)</td><td colspan="3">(없음)</td></tr>
<tr><td>13</td><td>부전역장 (Помощник командующего войсками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td><td>13</td><td rowspan="3">고급
지휘관</td><td>민족보위상</td></tr>
<tr><td>12</td><td>군단장 (Командир корпуса)
군단 정치 위원
(Военком корпуса)
군 부사령관 및 그의 해당한 직무 (Помощник командующего армией и приравненные к ним)</td><td>12</td><td>총참모장
민족보위성 부상</td></tr>
<tr><td>11</td><td>사단장 (Командир дивизии)
사단 정치위원
(Военком дивизии)</td><td>11</td><td>사단장
여단장
군사 학교장</td></tr>
<tr><td>10</td><td>부사단장 (Помощник командира дивизии)
여단장 (Командир бригады)</td><td>10</td><td>상급
지휘관</td><td>사단참모장</td></tr>
</table>

[145] Юрий Веремеев (유리이 웨레메예프). *Знаки различи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РККА по служебным категориям. 1924-34 гг.* (노동자·농민의 붉은 군대의 급수 및 급수장. 1924-1934 년), http://army.armor.kiev.ua/forma/rkka-24-34.php.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146] 북한 군대의 고급, 상급, 중급 지휘관의 직위는 '조선인민군 군관 직위표' (부록 3 참조) 재작성되었다. 하급 지휘관과 병사의 직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조선인민군 군무자 봉급규정 선포에 대하여," 『北韓關係史料集 제 8 권』, (경기도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89), p. 640 참조.

9	**상급 지휘관** (Старший начсостав)	연대장 (Командир полка) 연대 정치 위원 (Военком полка)	9	**상급 지휘관**	연대장
8		부연대장 (Помощник командира полка) 독립 대대장 (Командир отдельного батальона)	8		부연대장 독립대대장
7		대대장 (Командир батальона) 대대 정치 위원 (Военком батальона)	7		대대장
6	**중급 지휘관** (Средний начсостав)	부대대장 (Помощник командира батальона) 대대 정치 지도원 (Политрук батальона) 독립 중대장 (Командир отдельной роты)	6	**중급 지휘관**	부대대장 독립 중대장
5		중대장 (Командир роты) 중대 정치 지도원 (Политрук роты)	5		중대장
4		부중대장 (Помощник командира роты) 독립 소대장 (Командир отдельного взвода)	4		부중대장 독립소대장
3		소대장 (Командир взвода)	3		소대장
2	**하급 지휘관** (Младший начсостав)	사관장 (Старшина) 부소대장 (Помощник командира взвода)	없음	**하급 지휘관**	특무장 부소대장 분대장 부분대장
1		분대장 (Командир отделения) 공격대장 (Командир звена)			
없음	**병사** (Рядовой состав)	붉은 군대 군인 (Красноармеец)		**병사**	상등병 병사

위의 표를 살펴보면, 소련 시스템이 북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두 제도의 비슷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장교를 '지휘관(командир)'이라고 부른다.
2) 지휘관을 하급, 중급, 상급, 고급으로 나눈다.
3) 지휘관에 대해 오름차순 숫자로 표시하는 급수 제도를 사용한다. 최하급은 '3 급'으로 정해진다.

사회주의권에서 군사 계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다. 소련과 북한 이외의 사례로는 중국과 이를 따랐던 알바니아가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1955 년까지, 그리고 1965 년부터 1988 년까지 군사 계급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대신 군사 직무만 사용하였다.

계급이 없는 시기 중국 군대에서는 계급장도 없었지만, 소련과 북한에서는 계급장이 있었다. 북한의 직무 시스템은 소련과 매우 비슷해 북한 군대는 소련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알바니아도 1966 년 군사 계급과 계급장을 폐지하였고, 1991 년부터 복원시켰다.

그러나 북한이 1948 년 당시 소련 편제가 아닌 1920 년대 편제를 가져온 것은 참으로 특이한 결정이다. 이 사실을 설명하려면, 군사 직위 제도가 인민군 공식 창건 이전에 설립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군사 계급은 정상 군대의 특성 중 하나인데, 1948 년 2 월 전에 소련 당국은 정상 군대 설립을 허용하지 않아 북한이 군사 계급 대신 직위 제도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인민군 창군 열병식에서 인민군을 “김일성장군의 인민유격대 산아[147]”로 소개해[148]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에 계급이 없었던 것처럼 인민군대에서도 계급제도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147 북한에서 투쟁이나 시련을 통해 생긴 창조물을 비유적으로 '산아'(産兒)라고 이른다.

148 *Kim Il Sung addresses North Korean Army on their second Anniversary at Pyongyang Rail Road Station*, Critical Past, http://www.criticalpast.com/video/65675028811_Kim-Il-

그리고 북한 군대에서는 1952 년 이전에도 계급장이 사용됐기 때문에 외국 학자 중에서는 북한 군대에서 계급이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다.[149] 외국 자료를 사용하는 한국어 책에서도 이런 실수를 볼 수 있다.[150]

1) 군사 계급 도입

북한 군대에서 계급은 2 단계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병사와 하사관을 위한 계급 도입이었다. 확실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949 년 7 월 공포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조선인민군 군무자 봉급규정 선포에 대하여" 민족보위성 명령에는 아직 병사나 하사관 칭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151] 1949 년 8 월 19 일 로동신문에서 하사관 칭호가 처음으로 언급돼[152] 병사와 하사관을 위한 계급은 1949 년 7 월이나 8 월에 도입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Sung-on-North-Korean-Armys-Anniversary_Tower-of-Liberation_Army-bands.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제목은 동영상의 실제 내용과 다르다).

149 미국의 극동 사령부(Far Eastern Command)가 발표한 "군복, 견장과 무기: 북한 군대" (Uniform Insignia, Equipment: North Korean Army)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비밀문서에서 북한 계급장마다 계급을 붙이고 있다. *Uniform Insignia, Equipment: North Korean Army* (Tokyo: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ern Command, 1950) 참조.

150 張浚翼, 『北韓 人民軍隊史』, (서울: 서문당, 1991), p. 479 참조.

15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조선인민군 군무자 봉급규정 선포에 대하여," 『北韓關係史料集 제 8 권』, (경기도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89), p. 640 참조.

152 "<완전한 전투적 준비로써 인민의 적을 소탕키 위하여>, 로동자들이었던 그가 우수한 땅크병으로(전차부대 최기덕 중사)," 『로동신문』, 1949 년 8 월 19 일.

두 번째 단계는 군관을 위한 군사 계급 도입이었는데, 이는 1952 년 12 월 31 일 공포된 “조선인민군 상급 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라는 정령으로 실행되었다.[153]

이러한 단계적인 계급 도입과정도 소련과 비슷했다. 소련 당국은 1935 년 위관 장교, 영관 장교, 원수라는 계급을 도입하였고, 병사와 장성의 계급을 1940 년에 도입시켰다.

1952 년 12 월 31 일 기준으로 북한 군대의 계급제도는 다음과 같다.

- **원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원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차수
- **장령**: 대장, 중장, 소장
- **군관**: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대위, 상위, 중위, 소위
- **하사관**: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 **병사**: 상등병, 전사

공화국 원수와 공화국 차수 계급은 군종이나 병과에 따라 구별되지 않았지만 장령과 군관의 경우 이런 구별이 있었다.

장령들은 일반, 포병, 장갑전차병, 항공병, 통신병, 공병, 기술근무, 경리근무, 행정근무, 군의근무, 수의근무, 사법근무 그리고 해군으로 나뉘게 되었다. 계급의 공식 명칭은 병과와 칭호로 구성되었는데(통신병 중장, 포병 대장 등), 일반 군인의 경우 칭호로만(소장, 중장 등) 구성되었다.

마찬가지로 군관들은 일반, 기술근무, 경리근무, 행정근무, 군의근무, 수의근무, 사법근무, 해군으로 나뉘었다. 군관의 경우 병과 목록은 더 짧았는데, 포병, 장갑전차병, 항공병, 통신병, 공병 군관은 없었다. 아마 이

---

153 “조선인민군 상급 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규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pp. 365-369, 정령의 전문 부록 2 참조할 것.

병과에 복무하고 있는 군관들은 모두 '일반 군관'에 포함됐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당시 중국 군대는 군사계급이 없었으므로 새로운 북한 군사 계급제도를 소련과 일본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 북한, 소련, 일본 제국 군사 계급 비교

북한[154]	소련[155]	일본 제국[156]
(없음)	소비에트 연방 대원수 (Генералиссимус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대원수(大元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원수	소비에트 연방 원수 (Маршал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상급 병과 원수 (Главный маршал рода войск)	(없음)[157]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차수	(없음)	(없음)
대장	병과 원수 (Маршал рода войск) 대장 (Генерал армии)	대장(大將)
(없음)	상장 (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	(없음)
중장	중장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중장(中將)
소장	소장(Генерал-майор)	소장(少將)
대좌	(없음)	대좌(大佐)
상좌	대령 (Полковник)	(없음)
중좌	중령 (Подполковник)	중좌(中佐)
소좌	소령 (Майор)	소좌(少佐)

154 위의 글.

155 Юрий Веремеев (유리이 웨레메예프). *Знаки различия звани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расной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1943-54гг.* (붉은 군대와 소련 군대의 계급 및 계급장. 1943-1954 년), http://army.armor.kiev.ua/forma/rkka-43-54-01.php, http://army.armor.kiev.ua/forma/rkka-43-54-02.php, http://army.armor.kiev.ua/forma/rkka-43-54-03.php.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156 A.J. Barker, *Japanese Army Handbook* (Shepperton: Ian Allan Publishing, 1979), p. 49; 菅孝行 (강 타카유키), 天皇制の理論と歴史 (천황제의 이론과 역사) (도쿄: 柘植書房 (츠게 쇼보), 1987), p. 305.

157 일본 황군에서 원수 계급은 없었다. 단, 대장은 '원수 육군 대장'이나 '원수 해군 대장'이라는 명예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

대위	대위 (Капитан)	대위(大尉)
상위	상위 (Старший лейтенант)	(없음)
중위	중위 (Лейтенант)	중위(中尉)
소위	소위 (Младший лейтенант)	소위(少尉)
특무상사	사관장 (Старшина)	준위(准尉)
상사	상사 (Старший сержант)	조장(曹長)
중사	중사 (Сержант)	군조(軍曹)
하사	하사(Младший сержант)	오장(伍長)
상등병	상등병 (Ефрейтор)	병장(兵長)
		상등병(上等兵)
전사	전사 (Рядовой)	일등병(一等兵)
		이등병(二等兵)

표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군사계급 제도는 일본보다 소련과 더욱 비슷했다. 그리고 1955 년 4 월 23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3 성 장군인 상장 계급이 도입되었고[158] 대장은 3 성장군에서 4 성장군으로 바뀌는 등 북한의 계급 제도는 소련 군대와 더욱 비슷하게 됐다.

6. 군내 청년동맹과 당 조직, 군인 입당 제도

상기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군대의 특징은 군대가 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통제 메커니즘 중 하나는 부대에 당과 당의 청년 동맹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북한 군대 부대들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159]과 조선로동당 조직들이 있다. 군내 청년동맹 조직은 1946 년 10 월 21 일, 즉 조선인민군

1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평양: 국립출판사, 1961), p. 369.

159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은 만 14 세부터 30 세까지 북한 청년을 묶는 단체이다. 1945 년부터 1961 년까지 '북조선민주청년동맹', 1961 년부터 1997 년까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1997 년부터 2016 년까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조직은 주로 소련의 전소련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Всесоюзный Ленински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Союз Молодёжи, 콤소몰)을 가져온 것인데, 소련과 달리 북한 청년 모두 예외 없이 청년동맹 구성원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공식 창군 이전에 설립됐다.[160] 당 조직은 1951 년 7 월 21 일, 즉 한국전쟁 때 설립됐다.[161]

당 조직 설립이 이렇게 늦은 것은 원래 북한 당국이 북한을 다당제 국가로 보이도록 군내에 정당 조직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62] 당위원회는 소대 이상 부대에 존재한다. 소대에서 분세포당위원회, 중대에서 세포당위원회, 대대에서 초급당위원회, 연대 이상은 그냥 '당위원회'라고 부른다.[163]

청년동맹 조직과 당 조직의 주요 활동은 소위 '조직 생활'이다. 군대 내 조직생활은 민간 사회와 다르지 않으며, 주로 사상교육, 즉 김씨일가의 위대성과 북한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동지비판과 자아비판 회의다(S2). 조직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진행된다(S3).

조직생활을 관리하는 사람은 조직 비서다. 청년동맹 비서는 부대 사령관이나 사관장일 수도 있고, 당 조직비서는 소련 군대처럼 정치지도원이다.

북한군의 가장 중요한 입대 계기는 군인이 민간인보다 조선로동당에 훨씬 쉽게 입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당원이

---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5&koreanChrctr=&dicaryId=3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160] "군대내 민청 조직에 관하여," 『北韓關係史料集 제 30 권』(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98), p. 38.

[161] 군내 당 조직은 "조선인민군 내에서의 로동당 단체 설치의 총화 외 정치기관들의 사업 정형"이라는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 결정으로 설립되었다. 이 자료에 대한 접근할 수 없지만, "인민 군대내 당 정치사업 진행정형과 그 강화를 위한 금후제대책에 대하여"에 이 자료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인민 군대내 당 정치사업 진행정형과 그 강화를 위한 금후제대책에 대하여," 『北韓關係史料集 제 29 권』(경기도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8), p. 183 참조.

[162], "군대내 당 조직에 관하여," 『北韓關係史料集 제 30 권』(경기도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8), p. 37 참조.

[163]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 190.

되는 것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병사들은 입당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성들도 입당을 위해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

소련공산당처럼 조선로동당 규칙에 따라 후보당원은 보증인이 2 명 있어야 하는데 이 보증인은 보통 부대장이나 정치지도원이지만 다른 당원이 될 수도 있다.

입당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간부는 정치지도원이다. 정치지도원은 자기 부대 군인의 출신성분, 정치생활능력, '조선로동당 규약'을 비롯한 사상 자료에 대한 지식 등을 고려해 몇 명의 후보자를 선택한다.[164] 정치지도원이 뽑았던 군인들은 '후보당원' 신분을 얻어 1 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당원이 된다. 이 '후보 당원' 시스템 역시 소련공산당에서 가져온 것이다.

군인은 주로 제대 직전 입당한다. 하지만 정치지도원의 결정에 따라 제대하기 훨씬 전에 입당하는 사람도 있다. 당원인 것이 군내 출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원들은 다른 군인들에게 존경을 받는다(O1).

생활 제대(불명예 제대)하는 군인은 입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 제대는 비교적 드문 것이다(S1).

7. 군관 교육 기관: 소련식 제도

북한 군관(장교) 교육 기관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바로 군관학교, 군사대학, 군사종학대학이다. 이 제도는 주로 소련에서 가져온 것이다. 소련에서 사관학교(военное училище) 졸업생은 소위나 중위 칭호를 받았다. 중령에서 대령까지 진급하려면 군사 아카데미(военная академия)를 졸업해야 하고, 대령에서 소장으로 진급하려면 참모본부 소속 군사 아카데

164 『북한군의 불편한 진실: 탈북 군인 이야기』(성남: 대한출판사, 2013), pp. 176-183.

미(военная академия Генштаба)를 졸업해야 했다.[165] 북한처럼 소련에서 참모본부 소속 군사 아카데미는 하나밖에 없었고, 1940 년대 말기 이 명칭은 '보로실로프[166] 고급 군사 아카데미' (Высшая военная академия имени К. Е. Ворошилова)였다.

북한의 군관학교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군관학교

군관학교는 군관 교육 기관의 첫 단계인데, 졸업생은 일반적으로 소위 칭호를 받는다. 북한에서 첫 번째 군관 학교는 인민군 공식 설립 이전인 1946 년 2 월 8 일 설립됐다.[167]

소련 군관 제도의 특징은 군종별이 아니라 병과별로 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북한도 이러한 전통을 가져와 포병, 땅크(탱크), 후방, 수의, 군의, 차동차병 등 병과 군과학교들을 설립했다.[168]

2) 군사대학과 군사종합대학

군관은 진급되면 추가 교육을 받는다. 군관 교육 기관의 둘째 단계는 군사대학이다. 군사대학을 졸업해야 대대장 이상 직무로 임명될 수 있다(O4). 군사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은 군관은 대위보다 높은 군사 칭호를 받기 어렵고(O6), 다시 말해, 칭호로 소좌나 중좌까지 진급되더라도 대대

---

165 Андрей Михайлов(안드레이 미하일로프). *Военная реформа: генерал без Академии* (군사 개혁: 군사 대학을 졸업하지 못 한 장군), Pravda.ru, http://www.pravda.ru/society/how/21-02-2012/1108727-reforma-0/.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166 클리멘트 보로실로프(Климент Ворошилов)는 러시아 내전(1918-1923) 붉은 군대 장군으로 소비에트 연방 원수였다.

167 張浚翼, 『北韓 人民軍隊史』(서울: 서문당, 1991), p. 35-36.

168 조웅. "남·북한 장교 양성제도 비교 연구." 東國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2003, pp. 68-69.

장 직무를 얻을 수가 없다. 군사대학 신입생은 주로 상위 칭호를 갖는다(O4).

세 번째 단계는 군사종합대학이다.[169] 북한에서 유일한 군사종합대학은 만경대에 있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다. 군사대학과 달리 군사종합대학 졸업은 진급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출세에 큰 도움이 된다(O4).

3) 소련 유학

1980 년대 말 소련에 유학한 O6 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매년 일부 군관들을 소련, 동독, 중국 군사대학에 유학 보냈다. 이 중 소련과 동독에 보내는 것은 공개된 것이지만, 중국에 북한 유학생이 있는 것은 기밀이었다. 소련에는 매년 350 명 정도 유학하였고, 유학생들은 모두 남자였으며, 후보자들은 김정일의 개인 승인을 받아 유학할 수 있었다.

소련에는 다양한 군종과 병과 출신자들이 유학하였고,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오데사, 민스크, 탐보프, 바쿠 등 육해공군 군사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유학 때 학생들의 개인 생활에는 아무 제한이 없었고, 소련 주민이나 다른 나라 유학생과 통제 없이 대화할 수 있었다.

8. 조선인민군 규약: 소련 규약의 번역문 적용

군 생활은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북한에서 이 규칙 시스템은 소련에서 가져온 것이다. 군인 인사 방식 훈련 등 일상생활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내무규정'(소련에서 이 같은 러시아어 자료로 Устав внутренней службы 가 있었다)이며, 군내 형법인 '기률 규정(Дисциплинарный устав)'과 '군인 봉급 규정'이 있다.

---

[169] 북한에서 군사종합대학을 '연구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자료들은 비공개이므로 현재 규정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러시아 국립도서관에서는 1950 년대 나온 '내무규정',[170] '기률 규정'[171], '군인 봉급 규정'[172]을 찾을 수가 있다.

소련 군사 전문가인 게오르기이 플로트니코프(Георгий Плотников)는 "1950 년대 말까지 '조선인민군'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소련군대를 따라 했다. 조선인민군 규정은 소련군대 규정을 번역한 것에 불과했고, 인민군 생활도 소련군대 생활방식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173] 1950 년대 규정들을 살펴보면, 플로트니코프 주장의 증거가 될만한 정보가 많다. 특히 어색하게 쓴 부분을 보면 번역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1) '내무규정'에서 '**장관 혹은 상급이 인사할 때에 («동지(동무)들 건강하십니까?»라고) 대렬에 서 있거나 혹은 대렬 밖에 있는 전체 군인은 «건강 축복함» (개별적인 군인 «건강 축복합니다»)이라고 대답한다**.'[174]라는 규칙을 찾을 수 있다. 이 문장은 한국어로 어색하게 보이는데, 이유는 러시아어 인사말(Здравствуйте)을 직역하면 바로 "건강하십니까?"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2) '내무규정'에서 «**근무상 군인들은 서로 «당신»이라고 부른다**»라는 규칙이 있다.[175] 이 뜻은 존댓말을 쓰라는 말이다. 러시아어도 한국어처럼 존댓말과 반말을 구별하지만, '존댓말'이나 '반말'과 같은 명칭을 대신해

---

170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군 내무규정』(평양: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55).
17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군 기률규정』(평양: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55).
172 『조선 인민군 군인 봉급 규정』(평양: 민족보위성 재정국, 1955), (비밀).
173 안드레이 란코프가 한 게오르기이 플로트니코프와의 인터뷰, 1990 년 2 월 1 일.
174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군 내무규정』(평양: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55), p. 23.
175 위의 책, p. 38

일반적으로 «'너'라고 부른다» (Называть на «ты»)나 «'당신'이라고 부른다» (Называть на «Вы»)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3) 상기한 자료에서 해군 군인을 부를 때 군사 칭호로 항상 '해군'이라는 말을 붙이는데(해군 상사, 해군 중장 등)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소련군대는 미국 군대처럼 육군과 공군은 같은 칭호(계급)를 사용했지만, 해군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육군 중장은 영어로 Lieutenant General, 러시아어로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이라고 부르며, 해군 중장은 영어로 Vice Admiral, 러시아어로 вице-адмирал 이라고 부른다. 번역문인 북한 규정에서도 이같은 특징이 나오게 되었다.

4) '기률규정'에 '집단군', '전선', '군구'라는 부대 단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사실 북한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력 편성의 최대 단위는 군단이었고, '집단군', '전선'이나 '군구'는 소련 군대에만 존재하였다. 이로써 '기률규정'이 번역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군대에서 가장 노골적인 소련 말투는 사라졌다. 예를 들어 사령관들이 병사들에게 인사 할 때는 '건강하십니까?'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라고 한다.[176] 그런데, 규칙 개혁은 북한 군대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았다.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 군대는 아직까지 소련의 영향력이 극심히 남아 있다.

9. 소결

앞서 말했듯 북한 군대 조직 특성의 대부분은 소련에서 차용됐으며,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 북한이 사실상 소련의 위성국가였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동유럽과 달리 북한은 기존 정권(대한제국이나 식민지 조선)의 경험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

[176] 1992 년 4 월 25 일 열병식 동영상 참조.

로운 소련식 정권을 설립하면서 북한 군대는 소련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게 됐다.

제 2 절 소련의 상징 제도 차용

상징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깃발 등 조직의 상징들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원시 시대의 토템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177] 미국 학자 로버트 샤나펠트(Robert Shanafelt)는 뒤르켐의 이론을 발전시켜 유럽, 아랍권, 아시아 등 다양한 문명과 문화권에서 깃발을 비롯한 상징 문화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78]

상징은 인공적으로 만들게 된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북한 군대의 경우 군기, 군사 휘장, 계급장 등 군사 상징을 통해 조선인민군이 소련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볼 수 있다.

이 군사 상징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림이 필요하다. 삽화를 사용해 설명해 보겠다.

1. 군인 선서

군인 선서는 신병이 입대할 때 하는 맹세로 군대의 중요한 비물질적 상징이다. 군인 선서는 로마 제국 때부터 존재했는데,[179] 고대나 중세 시대 신 앞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것이었다.[180] 선서 전문은 당국이 정한다.

---

177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95), p. 222.

178 Robert Shanafelt, "The Nature of Flag Power: How Flags Entail Dominance, Subordination, and Social Solidarity," *Politics and the Life Sciences*, Vol. 27, No. 2, (2008), pp. 13-27.

179 로마 제국에서 군인선서는 Sacramentum 이라고 불렀고, 이 명칭은 선서의 신성적인 본질을 강조하였다. Adolf Berger,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Vol. 43*,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68), p. 688 참조.

180 Randall Collins, *Interaction Ritual Chai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 210.

북한 군대에서의 선서 내용은 역사상 여러 번 변경됐다. 1955 년 당시 군인 선서는 다음과 같았다.[181]

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으로서 조국 앞에 신성한 의무를 리행하여 조선 인민군에 입대하면서 나의 조국과 인민과 민주주의 인민 정부에 나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할 것을 영예롭고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으로 엄숙히 맹서한다.

나는 인민의 뜻으로 창건된 민주 제도를 헌신적으로 충실히 수호하며 나의 힘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적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기를 잡고 나의 조국과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방위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여 있을 것을 맹서한다.

나는 정직하고, 용감하고, 기률이 있는 군인이 되며, 군사 비밀과 국가 비밀을 엄수하며, 모든 군사 규정과 지휘관과 장관들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수행하며, 군사학을 성실히 연구하며, 인민의 재산과 군대 재산을 백방으로 애호 보위할 것을 맹세한다.

만일 나의 이 엄숙한 맹서를 고의로 위반하는 때에는 나는 인민의 증오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의 엄격하고도 무자비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소련에서 1945 년 당시 군인 선서 전문은 다음과 같았다.[182]

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공민으로서, 노동자 · 농민의 붉은 군대의 대열에 입대하면서 선서하고, 정직하고 용감하고 규율성과

---

18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군 내무규정』(평양: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55), p. 184.

182 *Руководство для бойца пехоты* (보병 병사를 위한 입문서), http://www.rkka.msk.ru/rbp/rbp2.s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경각심이 있는 군인이 되고, 군사 비밀과 국가 비밀을 지키며, 모든 군사 규정과 지휘관과 상관들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나는 군사학을 성실히 연구하며, 군대 재산과 인민의 재산을 백방으로 애호 보위하고 마지막 순간 때까지 자신 인민, 자신 소비에트 조국과 노동자농민의 정부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언제나 노동자·농민의 정부의 명령에 따라 자기 조국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보위를 위하여 전출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동자농민의 붉은 군대의 군인으로서 적들을 완전히 이기도록 결사옹위하고 용감하고, 능숙하고 당당하고 명예적으로 조국을 보위할 것을 맹세합니다.

만일 나의 이 맹서를 고의로 위반하는 때에는 소비에트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고, 전체 근로자의 증오와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러시아어 원문이다.

Я, гражданин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вступая в ряды 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ой Красной Армии, принимаю присягу и торжественно клянусь быть честным, храбрым,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ым, бдительным бойцом, строго хранить военную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тайну, беспрекословно выполнять все воинские уставы и приказы командиров и начальников.

Я клянусь добросовестно изучать военное дело, всемерно беречь военное и народное имущество и до последнего дыхания быть преданным своему Народу, своей Советской Родине и 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Я всегда готов по приказу 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ыступить на защиту моей Родины —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как воин 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ой Красной Армии, я клянусь

защищать её мужественно, умело, с достоинством и честью, не щадя своей крови и самой жизн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олной победы над врагами.

Если же по злому умыслу я нарушу эту мою присягу, то пусть меня постигнет суровая кара советского закона, всеобщая ненависть и презрение трудящихся.

상기한 바와 같이 1946 년 소련 정부는 군대를 '노동자·농민의 붉은 군대(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ая Красная Армия)'에서 '소비에트 군대(Советская армия)'로 개칭하면서 군인 선서 내용도 변경했다. 1946 년판 선서 '노동자·농민의 붉은 군대' 대신 '소비에트 군대', '노동자·농민의 정부' 대신 '소비에트 정부'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 맹서를 고의로 위반하는 때에는'이라는 표현은 '이 나의 엄숙한 맹서를 위반하는 때에는'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183]

이처럼 북한의 첫 선서는 소련과 거의 똑같았고, 이것은 분명 편집된 소련 선서의 번역이었다.

2. 경례와 통화 방식

군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의례적이다. 그 목적은 군인에게 항상 군대의 특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상급자나 부하를 부르는 방식에 관한 규칙도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군대에서 공식적으로 '동무'와 '동지'라는 말을 쓴다. '동지'는 윗사람을 부르는 호칭이고, '동무'는 아랫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다.

---

[183] Владимир Некрасов (블라디미르 네크라소프), *МВД России: энциклопедия* (러시아 내무부: 백과사전) (모스크바: ОЛМА Медиа Групп (올마 메디아 그룹) 2002), p. 438.

이 방식은 소련에서 차용됐는데, 러시아어는 '동무'와 '동지'라는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와리쉬(товарищ)'라는 단어를 쓴다. '다와리쉬'는 사회주의 국가 공민의 평등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동무와 '동지'는 그렇지 않다.

북한 군인은 윗사람과 통화할 때 상대방을 '(상대방의 군사 직무나 칭호) 동지'라 부르며, 아랫사람을 '(상대방의 군사 직무나 칭호) 동무'라고 부른다. 윗사람에게 말하려면 소련 군대처럼 먼저 같은 방에 있는 군인 중 칭호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방에 소위, 하사, 초급병사가 있고, 초급병사가 하사에게 말하려면 먼저 소위에게 "소위 동지, 하사 000 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야 한다.[184]

2 명의 군인 중 한 명이 상대방보다 계급은 더 높으면서 직무는 낮은 경우(예를 들어 대대장 대위와 부대대장 소좌), 같은 부대 군인이라면 직무가 높은 군인이 윗사람이며, 부대가 다르다면 계급을 더 높게 본다. (O1)

실제로 상급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는 직위(예를 들어 대대장 동지), 모를 때는 칭호(예를 들어 소좌 동지)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하가 병사인 경우에는 그냥 이름으로, 하사 이상이라면 '동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직위로(예를 들어 홍길동 분대장) 부르는 경향도 있다(O5).

북한 군대가 소련 군대와 또 하나 다른 점은 북한 군대에서는 국군처럼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쓴다는 것이다. 소련 군대 규칙에 따르면 모든 군인들은 존댓말을 써야 했다.[185] 또한, 1990 년대 중반까지 북한 군대에서는 소련 군대처럼 모자 없이 경례를 할 수 없었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해야 했지만,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O1).

---

184 이정연,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 』,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p. 61.
185 러시아 말에도 한국어처럼 존댓말과 반말 구별이 있다.

이처럼 북한군 경례 방식의 기본 특징은 소련에서 차용했지만, 북한의 온정주의 문화에 맞춰 변경되었다.

3. 군사 휘장

현대 군대는 상징이 있는데, 이 상징은 주로 국기, 국장 등 나라의 상징과 관계가 있으며 모형에도 공통점이 있다.

조선인민군은 1948 년 2 월 8 일 창군되었다. 당시 북한은 아직 국가 상징이 정의되지 않아 태극기를 사용하였다.[186] 이에 북한의 첫 군사 상징은 태극을 포함한 것이었다.[187] 당시 태극기의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 위치가 확실하지 않아 북한군 휘장 모습도 여러 가지였다.

태극은 한국의 전통적인 상징이었지만, 오각형 별이 소련 군대의 상징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소련의 영향이 분명히 보인다. 또한 휘장 양쪽에 있는 벼 이삭은 당시 소련 국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1948 년 7 월 10 일부터 태극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징은 사실상 남한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북한군 휘장에서 태극 모형은 사라졌고, 휘장 모습도 조금 달라졌다.

---

[186] 태극기는 1948 년 7 월 10 일까지 북한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전연방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지적에 따라 1948 년 7 월 10 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 제 5 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북조선에서 실행돼 태극기가 폐지되면서 인공기가 북한의 국기가 되었다.

[187] "Kim Il Sung addresses North Korean Army on their second Anniversary at Pyongyang Rail Road Station," *Critical Past*, http://www.criticalpast.com/video/65675028811_Kim-Il-Sung-on-North-Korean-Armys-Anniversary_Tower-of-Liberation_Army-bands.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제목은 동영상의 실제 내용과 다르다).

[그림 3-1] 조선인민군 모자표

군사휘장 (1948 년 2-7 월)[188]	군사휘장 (현재)

이 휘장은 주로 모자표로 사용된다.

일본과 소련에서도 오각별형으로 만든 휘장이 있었는데, 일본 군대는 일반 황색 별을 사용하였고, 소련에서는 별 위에 노동자와 농민 동맹의 상징인 낫과 망치가 있었다.

[그림 3-2] 붉은 군대와 일본 황군 휘장 비교

소련 붉은 군대의 휘장	일본 황군의 휘장

북한 군사 휘장의 기원은 확실히 소련 휘장에서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붉은 별 뒤에 화환이 있었고, 소련의 상징인 낫과 망치 대신 한(韓)

[188] Ibid.

민족의 상징인 태극이 있었다. 그러나 태극기 폐지 이후 북한 군대 휘장은 현재 모양을 갖게 되었다.

4. 조선인민군 군기

북한 군기의 디자인은 독특해서 외국 군기와 비슷한 점을 찾기가 어렵다. 인민군기는 북한 임시 헌법으로 제정한 국기 모형과 비슷하고 북한 국장도 포함했다.

북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모든 군기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제작되었다고 주장한다.[189]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확립 이후 1940 년대 역사가 다시 쓰여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왜곡이 있었고, 또한 김일성은 당시 국기[190]나 국장[191]과 같은 국가 상징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창군시 첫 군기를 김일성이 제작했다는 것을 믿을만한 자료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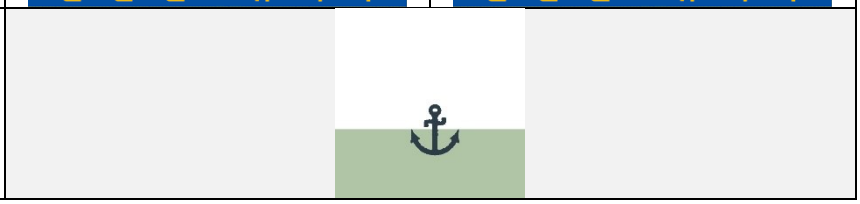
---

189 북한 영화 '어버이 장군님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계시여'의 29:55 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주요령도일력"이라는 군기에 관한 김정일의 지시를 설명하는 표가 나온다. 필자는 스크린샷을 해 이 표를 분석하였다.

190 이휘성, "태극기 삭제와 인공기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역사왜곡," 『DailyNK』, 2014 년 6 월 17 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10&num=10388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191 이휘성, "북한, '國章 교체'에서도 김일성 우상화 빼놓지 않았다," 『DailyNK』, 2014 년 9 월 11 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10&num=104623.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그림 3-3] 조선인민군 군기

	앞쪽	뒤쪽
인민군기 (창군시)		
인민군기 (1948.9 - 1981.1.7)		
해군 깃발 (6.25 당시)		

위에서 보듯 북한 군기는 국기를 기반으로 한 깃발이었고, 북한 국기 자체는 소련 당국으로부터 만든 것이다.[192] 북한은 여기서도 소련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5. 근위대 상징

사회주의 군대에서 내리는 부대 표창 중에는 '근위대 부대' 제도가 있다. 훌륭하게 전투를 치른 부대들은 '근위'라는 명예 칭호를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부대 구성원들의 군사 계급 앞에는 '근위 상장'처럼 '근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192] Fyodor Tertitskiy, “Star and Stripes: History of the North Korean Flag and its Place in State Ideology,”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vol.3, (2016), pp. 265-284.

북한에서도 근위대 칭호를 갖고 있는 부대들이 있다. 이런 부대들은 근위대의 상징을 받고, 일반 군인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으며, 군사칭호도 1 단계 올라간다(예를 들어 하사에서 중사로)(O3).

이 시스템은 소련에서 가져온 것이다. 소련의 근위대 제도는 소독전쟁 중이던 1942 년 5 월 21 일 도입됐고 특징은 북한과 똑같았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북한 근위대 상징과 소련 근위대 상징이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4] 소련과 북한 근위대 상징 비교

<table>
<tr><td colspan="2"> </td><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소련 근위대 상징</td><td colspan="2">북한 근위대 상징</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소련 해군기</td><td>소련 붉은 기
훈장 수여
군함의 해군기</td><td>소련
근위대 해군기</td><td>소련 붉은 기
훈장 수여 근위대
군함의 해군기</td></tr>
<tr><td colspan="2"> </td><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북한 함수기</td><td colspan="2">북한 근위대 함수기</td></tr>
</table>

6. 군복

군인의 제복인 군복은 군인을 민간인과 구별하는 상징 중 가장 분명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나 로마제국 등 고대 문명 시기부터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군복은 통상 군복, 전투복, 예복으로 나눈다. 통상 군복은 군인

들이 평상시 입고 다니는 것이고, 전투복은 야외에서 위장할 수 있도록 입는 것이며, 예복은 열병식 등 의식에서 입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시대까지 전투복이 없었는데, 예복은 열병식 참가자, 명예위병대 등 예복이 필요한 군인에게만 제공한다.

군복의 제출 규칙에 관한 중언은 조금씩 다르다. O1 과 O5 에 따르면 동절기 군복은 2 년에 한 번씩, 하절기 군복은 1 년에 한 번씩 제공된다. 하지만 북한 군대의 상사(上士)였던 이소연에 따르면, 전방 군단들에게는 동절기 군복이 1 년에 한 번씩, 후방 군단들에는 3 년 한 번씩 제공되고, 하절기 군복은 모든 군단들에게 2 년 한 번씩 제공된다.

[그림 3-5] 조선인민군 군복

북한 군복의 구조 (사진 속 군인은 해군 중장이다)

7. 계급장

사회주의권 군대의 계급장은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우선 소련 군대 계급장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소련 군대에서 1943 년까지 사용했던 견장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특색이 있었다. 계급장은 옷깃에 붙이는 것으로 군인의 계급은 견장에 삼각이나 사각형의 수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1943 년 소독전쟁 당시 스탈린은 구 러시아제국의 황군(皇軍)과 매우 비슷한 계급장을 도입하였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계급장

개혁을 통해 스탈린이 간접적으로 제국 시대 러시아 역사의 명예를 복권하면서 민족주의 정신을 강화했다고 분석한다.[193]

1945 년 이후 신형 계급장은 전체 사회주의권에 도입됐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48 년 2 월 8 일 조선인민군 창군 시 소련식 계급장이 도입됐다.

1) 계급장의 구조

소련처럼 북한에서도 계급장은 별과 줄로 구성됐고, 별과 줄의 수는 군인의 계급을 보여준다.

소련 계급장처럼 북한 계급장은 두 가지 모형, 즉 영장(領章)과 견장(肩章)으로 돼 있다. 일반 군복에는 영장만 있고, 겨울 군복이나 예복의 경우 견장도 있다(O1).

영장은 평행사변형 모습으로 옷깃에 붙이며 견장은 직사각형으로 어깨에 붙인다. 영장은 옷깃에 꿰매며, 견장은 단추와 견장 밑에 있는 고리로 군복에 붙인다. 단추는 병사나 하사관의 경우 무늬가 없고, 육군과 공군 장교는 오각형 별, 해군 장교는 닻, 원수급 장교는 북한 국장 무늬가 있다.

계급장의 색깔을 보면 육군 견장은 보위색,[194] 병사와 하사관의 영장은 빨간색, 군관 영장은 금색, 해군 견장과 영장은 흑색, 공군 병사와 하사관의 영장과 견장은 하늘색, 군관의 경우 하늘색 테두리 안에 있는 금색이다. 예복의 경우 금색 견장이 사용된다.

---

[193] *Россия: полны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й справочник*, (러시아: 그림이 있는 대백과 사전) (모스크바: ОЛМА Медиа Групп (올마 메디아 그룹) 2002), p. 352.

[194] 보위색은 러시아어 защитный цвет 에서 온 북한 번역 차용어(借用語)다. 한국에서는 카키색이라고 부른다.

다음 표는 이러한 제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상좌 계급장을 사례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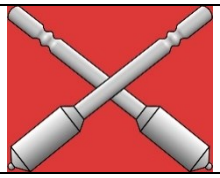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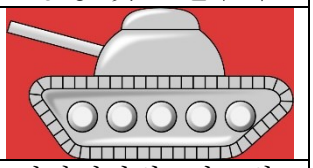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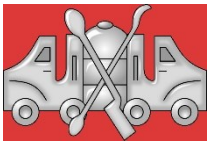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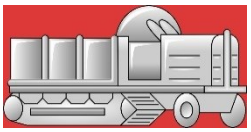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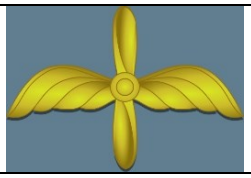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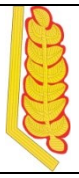
[그림 3-6] 조선인민군 견장

육군 평상복	해군 평상복	공군 평상복	육군 예복	해군 예복	공군 예복

영장에는 계급을 보여주는 줄, 별, 국장 이외에 군종을 보여주는 마크가 있다. 군복에 견장이 있는 경우 영장에는 군종이나 병과 마크만 있었다.

[그림 3-7] 1990 년대 중반 이전에 사용했던 영장 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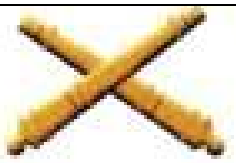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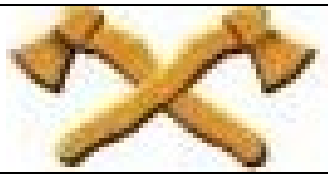
(견장이 있는 군복)

			
보병	후방 부대	포병	공병 및 건설부대
			
군의 근무		통신병	장갑전차병 (땅크병)
			
경리 근무	수의 근무	화학병	사법
			
관현악	자동차병	해군	공군 및 항공군
			
소위부터 대좌까지 군관	소장부터 대장까지 장령	인민군 차수	인민군원수 이상 군관

1945 년 사용했던 소련 병과 마크와 비교해 보자.[195]

[195]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и знаки отличия Красной Армии* (붉은 군대의 군복과 계급장), http://ww2history.ru/redarmy.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그림 3-8] 붉은 군대 병과 마크

	(없음)		
보병	후방 부대	포병	공병 및 건설부대
군의 근무	기갑 부대	통신병	탱크병
경리 근무	수의 근무	화학병	사법
	(없음)	(없음)	
관현악	자동차병	해군	공군 및 항공군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 병과 마크들은 소련과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점이 많아 여기서도 북한이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견장의 역사

창군 열병식부터 현재까지 북한 당국은 몇 가지 계급장 개혁을 실행했지만, 기본 디자인은 1948 년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계급장 변화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1952 년 12 월 31 일. 군사 계급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계급장이 도입됐다. (다음 표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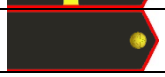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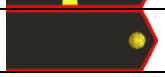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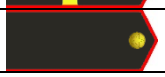
2) 1954 년 6 월 15 일. 공화국 원수와 공화국 차수의 계급장이 바뀌었다.[196] 변경된 이유는 북한 원수 계급장을 소련 원수의 계급장과 동일화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3) 1955 년 4 월 23 일. 상장 계급을 도입하면서 대장 계급장은 3 성에서 4 성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3-9] 조선인민군 시대별 견장 (1948-1956)

1948 년 기준		1953 년 기준		1955 년 기준	
민족보위상		공화국 원수		공화국 원수	
		공화국 차수		공화국 차수	
		대장		대장	
				상장	
총참모장 부상		중장		중장	
사단장 여단장 군사 학교장		소장		소장	
사단참모장		대좌		대좌	
연대장		상좌		상좌	
부연대장 독립대대장		중좌		중좌	
대대장		소좌		소좌	
부대대장 독립 중대장		대위		대위	
중대장		상위		상위	

[196] "1952 년 12 월 31 일 정령 "조선인민군 상급 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의 일부를 변경함에 관하여," 『북괴법령집』, (서울: 국토통일원, 1971), pp. 370-372.

부중대장 독립소대장		중위		중위	
소대장		소위		소위	
특무장		특무상사		특무상사	
부소대장		상사		상사	
분대장		중사		중사	
부분대장		하사		하사	
상등병		상등병		상등병	
병사		전사		전사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계급 도입과 관계 없이 변화된 계급장은 최고군사엘리트의 계급장뿐이었다. 또한 소련에서 가져오지 않고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된 계급장은 최고군사엘리트의 계급장뿐이었다. 이것을 보면, 최고 계급은 실제 '1 인을 위한 계급'이었는데, 이 계급 보유자인 최용건과 김일성이 자신의 마음에 따라 계급장 모습을 정했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4) 해군 수장(袖章)

현대 해군 군관 군복의 특징은 수장, 즉 군인 소매의 끝에 있는 계급장이다. 나라마다 계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장 체계도 다르지만 외국의 해군 군인을 만났을 때 계급을 구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국가의 군인 수장 체계는 공통점이 많다.[197]

북한 해군에서도 대장 이하 군관은 수장이 있다.

197 이 사실을 알려준 박애란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림 3-10] 조선 인민군 해군 수장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북한 수장은 견장이나 영장처럼 소련과 비슷했고 일본제국과는 달랐다. 북한 수장의 유일한 특징은 별 안에 소련의 상징인 낫과 망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림 3-11] 소련과 일본 제국 해군 수장

소련 해군 수장의 사례 (중장)	일본제국 해군 수장의 사례 (중장)

8. 군사종합대학 졸업생의 휘장

북한 군사 규칙에 따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졸업생은 군복에 휘장을 붙여야 한다. 이러한 전통과 휘장의 모습 자체도 소련에서 차용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각 휘장의 구조가 공통점이 많다.

능형(菱形) 휘장에 오각형 별과 국장(國章)이 있고 아래에 군사종합대학의 이름을 쓰고 있다.

[그림 3-12] 소련과 북한 종합군사대학 졸업생의 휘장

보로실로프 고급 군사 아카데미 졸업생 휘장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졸업생 휘장

9. 원수 별

북한에서 원수급 장교들은 칭호를 수여 받으면 금강석과 홍옥으로 만든 예복 넥타이에 붙이는 원수 별을 받는다. 이 전통의 뿌리는 소련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1940 년 9 월 2 일 생긴 원수 별은 소비에트 연방 원수(Маршал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의 계급 상징으로 정해졌다.[198] 1943-44 년 병과 원수(Маршал рода войск)의 계급 상징으로 모양이 다른 원수 별이 도입된 이후 연방 원수의 별은 '대형 원수 별', 병과 원수 별은 '소형 원수 별'로 부르게 되었다.

소련 이외 사회주의권인 몽골, 폴란드, 중국, 북한 군대에 '원수'라는 계급이 있었지만, 원수 별은 몽골과 북한에만 있었다. 몽골의 원수 별은

198 *Указ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т 2 сентября 1940 года «Об учреждении маршальского знака отличия "Маршальская Звезда"* (1940 년 9 월 2 일에 공포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정령 «원수의 휘장인 원수 별 제정에 대하여») 참조.

훈장 모형으로 만들었는데,[199] 북한 원수 별의 모양은 소련 원수 별과 비슷했다.

북한 역사상 원수 별은 두 가지 모형이 있었고, 1985 년부터는 차수별, 1992 년부터는 대원수 별이 있었다. 원수 별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은 김일성이었다. 1953 년 2 월 7 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20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동시에 원수 별을 수여한다"라는 표현으로 끝났다. 김일성의 원수 별은 금으로 만든 오각형 별로 가운데 보석(寶石)이 하나 있었다.

[그림 3-13] 소련, 몽골, 북한 원수 별

소련 대형 원수 별	소련 소형 원수 별	몽골 원수 별	북한 원수 별(구형)

10. 소결

조선인민군의 상징은 두 가지 출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1940 년대 소련에서 도입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에서 독특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인민군 창군을 준비했던 소련 당국은 조선의 역사적인 군사상징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련군대와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한 상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런 접근은 만주국에 대한 일본제국의 정책과 비교해

---

[199] *БНМАУ-ын Маршалын од* (몽골인민공화국 원수의 별), 2008 년 12 월 23 일, http://soronzon.blogspot.kr/2008/12/blog-post_23.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00]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 『조선인민군』, 1953 년 2 월 7 일.

볼 수 있다. 만주국 군대의 휘장, 군복 계급장 등 군사 상징은 일본 황군과 매우 닮았다. 일본 황군의 계급장 테두리가 빨간색이었고 만주국 육군이 보라색이었던 한 가지 차이점은 존재하였다.[201]

이와 마찬가지로 1950 년까지 북한은 소련의 괴뢰국가에 불과했고 북한의 군사 상징은 소련의 상징과 비슷하게 됐다. 유일하게 전통적인 상징은 1948 년 7 월까지 사용했던 태극 모장(帽章)였는데 태극기 폐지 이후에는 이 상징도 사라졌다.

제 3 절 소결: 소련 모델 이식

북한 군대를 설립한 세력은 소련이었고, 소련은 처음부터 북한에서 위성국가 건국 과정을 지도했다. 북한 군대도 사회주의, 즉 소련식 군대의 특징을 갖도록 했다. 북한 군대의 편제, 규칙, 군복, 정치 장교나 군내 당 조직 등의 특징은 소련에서 차용된 것이다.

조선인민군 초기 중국 영향이 미미했다는 것에 놀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국군은 미국 점령 하에 한반도 남반부에서 창군됐고, 당시 장교들 중에는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자가 많아 국군은 일본·만주국 전통의 일부를 갖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1940 년대 후반 인민군 군관 중에는 무정처럼 중국에서 활동한 항일 전투 지휘관들이 있어 조선인민군도 중국 군대의 전통을 취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 우선 한국전쟁 발발 전에 소련이 북한을 통제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심했으며 당시 북한 실권자들은 모두 소련 사람들이었다. 둘째로, 국군 초기 장교들

---

[201] 만주국 군복에 대해 *Manchukuo*,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orm Insignia, http://www.uniforminsignia.org/?option=com_insigniasearch&Itemid=53&result=1336.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은 미국에 대한 호의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이들 중 미국을 지상 낙원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었다. 이와 반대로 당시 북한 공산주의자들 중에는 소련을 “완벽한 인민의 나라”, “스탈린 대원수님 현명한 영도에 따라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 등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에게는 자신의 경험보다 소련의 경험이 더 소중했다.

김병로의 연구에서 한 조선족 출신 인터뷰 대상자는 북한 군대가 중국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북한군에 모택동의 '3 대 기율 8 항주의(三大紀律八項注意)'라는 개념을 선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202] 하지만, '3 대 기율 8 항주의'는 빨치산 부대의 규칙과 기본적인 군사 도덕에 관한 것인데 실제로 북한 군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1949 년 중국 공산군이 일부 부대를 북한군에 넘겨줬다는 사실을 보면, 이 중국 부대들이 북한 군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중국 공산군의 166 사단, 164 사단, 독립 15 사단이 각각 북한군의 6 사단, 5 사단, 12 사단이 된 것이 사실이다.[203] 하지만, 이 사단들은 북한군의 일부가 되자 자기 편제부터 상징까지 북한군에 맞도록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사단장부터 병사까지 모든 이 사단들의 군인들은 북한군의 규칙과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했다. 즉, 이들은 북한군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북한군의 일부가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때 북·중의 친밀한 관계를 보면, ‘북한군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확증하는 증거가 없다.

또한, 김일성의 개인 경험을 중시하여, 그가 중국공산당 소속 만주 항일 부대의 투사였다는 점을 주목하여 중국의 영향을 상정할 수 있으나

202 김병로, “북한 체제의 형성·발전과 중국 조선족 사회,” 『해외자료로 본 북한 체제의 형성과 발전 I』, (서울: 선인, 2006), p. 256.
203 김중생, 『조선 의용군의 밀입북과 6.25 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pp. 142-151.

이 경우도 그가 붉은 군대 장교였던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김일성 부대가 만주 항일 투쟁에서 패배하고 소련으로 탈출하였고, 1945 년 8 월, 붉은 군대 대위 김일성은 소련 군대가 성공적으로 일본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것을 목격했다. 즉, 김일성도 붉은 군대를 항일 빨치산 부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북한 군사 초기는 '사회주의 군대의 창립'이라기보다 '소련식 군대의 창립'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 군대의 설립 과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사회주의 사상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소련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소련 군대의 전통과 경험에 따른 것이다.

북한군은 대한제국은 물론 식민지 조선의 경험을 부인해 소련 영향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강했다. 동유럽이 사회주의화 됐을 때 대개 기존 정권의 특색은 유지됐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

소련의 영향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동시대 즉 1940 년대 당시의 소련의 제도의 도입이다. 건설기 시대 도입한 특성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북한군 부대 단위 체계, 규칙, 군내 당 조직 제도, 군복을 비롯한 대부분 군사 상징은 동시대의 소련에서 직접 차용되었다.

일부 특징은 동시대의 소련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소련에 존재하였지만 1945 년 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었던 것을 차용했다. 이런 사례는 1948 년부터 1952 년까지 군사 계급 대신 존재했던 '군사 직위 제도' 그리고 동시대인 1945 년이 아니라 1942 년 이전에 소련에 존재했던 정치 장교 제도였다.

그러나, '군사 직위 제도'를 보면 계급 제도는 1920 년대 소련에서 차용했지만, 계급장과 군복은 동시대 소련에서 차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정치 장교 직위는 1940 년대 초기 제도에 따랐지만, 정치 장교의 실제 임무는

동시대의 소련과 같았다. 즉, 이를 순수하게 기존 소련 유산을 도입했다기보다는 기존 소련 유산과 동시대 소련 요인들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1940 년대 후반의 북한 인민군 창설기에 도입된 제도나 상징은 이후의 발전의 경로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이 건설기는 한국전쟁을 포함해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이 시대에 거의 모든 북한군 특징은 '소련 당국의 결정'이나 '소련군의 전통'에서 온 것이다. 북한군에 경로 의존성이 나타난 것은 1956 년에 발생한 정치적 소용돌이였는데, 이 시기에 과거의 것이 얼마나 유지되었는가가 경로의존성을 논의하는 첫 시험대였다.

제 4 장 조선인민군의 독립 발전기: 소련 유산 퇴조의 시작(1956-1993)

북한군은 원래 무력통일을 위해 설립한 조직이었지만 한국전쟁에서 북한 정권은 이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1953 년 7 월 27 일 휴전 협정이 이뤄지면서 북한의 '평화' 시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남북대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 대립은 계속되었으며, 엄밀하게 말하면 평화의 시기라기보다는 '냉전의 시기'라고 불러야 한다.

이 시기의 몇 가지 기본적인 정치군사적 특징이 있다. 첫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과 동맹국가였다. 그런데 이 동맹은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느슨한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소·중의 원조를 받겠지만, 조선인민군은 중국이나 소련 군대와 공동 훈련을 한 적이 없고 북한에 소련이나 중국의 군사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어떤 '합동 참모 본부'도 존재하지 않았다. 소·중 분열 시기 북한이 두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얻으면서 이러한 사실들은 더욱 분명해졌다.

1950 년대 중반부터 북한 당국은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군사 개혁을 실행하였다. 이제 북한 군대의 목적은 무력적화통일보다 남한과의 대립이 됐다. 북한 당국의 가장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는 일반적인 징병제 도입이었다.

이 시기에 북한에 경로 의존이 보이게 되었다. 아래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소규모적인 개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부대 단위, 원수급 엘리트 제외의 계급 제도, 정치 장교 제도, 군내 당 조직 제도, 군복과 견장 등 핵심적인 조직적·상징적 특성들이 변화 없이 유지해 왔다.

제 1 절 소련식 편제에서 퇴조의 시작

1. 징병제 도입과 제도적인 특징

평화 시기 군대를 편성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바로 징병제와 모병제다. 사회주의 국가에는 징병제 국가도 있고 모병제 국가도 있지만, 북한은 건국 때부터 모병제가 없었다.

북한에서 건국 당시 제정한 헌법 제 28 조를 보면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라는 말이 있지만,[204] 징병제는 1956 년 후반에 도입됐다.[205] 징병제 도입 근거에 관해 기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민족보위상 명령,[206] 그리고 내각 결정 148 호로 도입됐다는 주장이 있다.[207] 일부 연구에는 징병제가 1958 년 내각 결정 148 호로 나왔다는 주장도 있지만,[208] 이는 틀린 것이다. 1958 년 내각 결정 148 호는 "공업 생산 및 기본 건설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는 민청 단체들을 표창할 데 대하여"였는데 징병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209]

냉전 시기 징병 대상은 남성 공민이었지만 2015 년부터는 여성 징병제도 도입되었다.[210]

---

2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 28 조』,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recom=1&state=view&idx=93.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205 『北韓總覽:'45-'68』, (서울: 共産圈問題硏究所, 1968), p. 529.

206 위의 책.

207 『北韓總覽』, (서울: 北韓硏究所, 1983), p. 1506.

208 "군사제도," 『북한 자료센터』, http://munibook.unikorea.go.kr/?sub_name=information&cate=1&state=view&idx=86&page=3&ste.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09 "공업 생산 및 기본 건설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는 민청 단체들을 표창할 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14 호, (1958), p. 22.

210 이상용, "北여성 軍복무제, 돈 앞에 '무릎'…"뇌물로 면제 받아"," 『DailyNK』, 2015 년 5 월 14 일,

1) 복무기간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북한 군대 복무기간 변화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필자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 있었다.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5&num=106099. (검색일: 2017년 5 월 3 일).

[표 4-1] 조선인민군 징병제의 진화

시대	복무기간 (남자)	복무기간 (여자)	출처	비고
1948 년	규칙 없음, 동원	규칙 없음, 동원		
1956 년	육군 3 년 6 개월, 해•공군 4 년 (징병)	육군 3 년 6 개월, 해•공군 4 년 (지원)	211	민족보위성 명령 "인민군복무조례" 내각결정 148 호
1965 년	5 년(징병)	5 년(지원)	212	김일성의 명령
1976 년	7 년(징병)	7 년(지원)	Ibid.	비공식 연장
1983 년	10 년 (징병)	10 년 (지원)	O2, O4	비공식 연장
1993 년 4 월	10 년 (징병)	10 년 (지원)	213	10 년제의 공식화
1996 년 10 월	만 30 세까지 (13 년, 징병)	만 26 세까지 (9 년, 지원)	214	
2003 년	10 년 (징병)	10 년 (지원)	215	제 10 기 6 차 최고인민회의 '군사복무법' 전민군사복무제
2015 년	10/11 년 (징병)	만 23 세까지 (징병)	216	

211 "군 복무기간별 국가표창," 『탈북자 동지회』, http://nkd.or.kr/pds/nk/view/9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12 『北韓總覽』, (서울: 北韓硏究所, 1983), p. 1505.
213 "군사제도," 『북한 자료센터』, http://munibook.unikorea.go.kr/?sub_name=information&cate=1&state=view&idx=86&page=3&ste.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14 "북한 인민군은 10 년 복무," 『DailyNK』, 2007 년 1 월 8 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35446.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15 위의 기사.
216 교도통신사, 2014 년 9 월 20 일, "北 여성도 '징병제'…만 17 세부터 7 년간," 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4/09/098171.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한 연구에는 “1972 년 북한에서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몇 년 동안 당으로부터 선발된 자만 군대에 입대하였다”라는 주장이 있지만,[217] 당시 군에서 복무했던 사람은 이 주장이 틀린 것이라고 설명하였다(O4).

청년기에는 대개 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지만 군사 복무를 10 년간 할 경우 대학 진학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북한에서는 타협적인 해결 방법을 내놓았다.

북한에서는 대학 입학 의사가 있는 군인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다. 각 군단은 해마다 대학 입학 희망자 지원을 받는다. 각 대학별로 김일성종합대학 00 명, 김책공업대학 00 명 등과 같이 입학 정원을 정해놓고 있다.

입학 자격은 사단·군단 간부부(幹部部)가 결정하는데, 결정과정에서의 부정부패가 심해 뇌물과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S4). 간부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다. 합격자는 제대와 함께 대학생이 되며 불합격자들은 부대로 돌아온다(S4).

2) 징병의 면제 조건

북한에는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다. 모든 북한 남자들은 군대에 복무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북한 주민은 면제를 받는다.

1) 북한 화교를 비롯해 북한 국적이 없는 자

북한 국적이 없는 자는 아예 입대할 수 없다.

2) 신체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자

신체 검사에서 키, 체중, 시력을 검사하는데, 시기마다 합격 기준이 달랐다.

---

217 『北韓總覽』, (서울: 北韓硏究所, 1983), p. 1505.

[표 4-2] 조선인민군 징병제 대상자로 신체검사 합격 조건

	키	체중	시력
김일성 시대[218]	150	48	0.8
1994 년 8 월[219]	148	43	0.4
2008 년	폐지		

장애인, 결핵감염자, 치아가 3 개 이상 없는 자들도 신체검사에 합격하지 못한다(O3).

3) 노부모를 부양하는 독자(獨子)

외아들인 경우 징병제 면제를 받으며 입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S2).

4) 범죄자

감옥 수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군에 입대할 수 없지만, 경범죄일 경우 입대가 가능하다(S2).

5) 적대 계층 출신자

입대 제도는 북한 성분 제도에 의존한다. 본 연구자는 성분 관련 기밀 자료를 입수해 이 제도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220]

북한에 거주하면서 북한 국적을 보유한 북한 주민들은 17 세가 되면 3 가지 신분을 받게 된다. 바로 '출신성분', '사회성분', '계층'이다. '사회성

---

[218] "북한군 해부③," 『인민군의 군사제도』,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2358&project=18.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19] "군사제도," 『북한 자료센터』, http://munibook.unikorea.go.kr/?sub_name=information&cate=1&state=view&idx=86&page=3&ste.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20] 김상선 · 리성히, 『주민등록사업참고서』 (평양: 사회안전부 출판사, 1993), (절대 비밀).

분’은 주로 자신의 일자리로 정해지고, ‘출신성분’은 자신을 키운 사람(부모 등)의 사회성분에 따라 정해지며, ‘계층’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정해진다.

계층은 ‘심화조 사건’ 이전에는 3 개, 현재는 5 개로 분류되는데, 이는 하향 순서로 ‘특수’, ‘핵심’, ‘기본’, ‘동요’, ‘적대’ 계층이다.

‘적대’계층 출신자라면 병역은 면제된다. (O1, O2, O3). O1 에 따르면 군대에서는 민간과 다른 계층 명칭이 사용된다.

[표 4-3] 북한 민간용과 군사용 ‘계층’ 명칭 비교

군사용 계층 명칭	민간용 계층 명칭
호위국 대상 (ㅎ)	특수 계층
순결 대상 (ㅅ)	핵심 계층
일반 대상 (ㅇ)	기본 계층
복잡 대상 (ㅂ)	동요 계층
민결 대상 (ㅁ)	적대 계층

인터뷰대상자 O2 는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인터뷰 대상자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정보는 북한기록원에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1950 년대 소련에서는 출신의 중요성이 크게 줄었지만 중국 정부는 농촌에 성분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221] 이 때문에 북한에서 성분제도를 도입한 것은 소련 모델에서 이탈해 중국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6) 대학교에 입학한 자

221 『政务院关于划分农村阶级成分的决定』 (정무원의 농촌에서 계급 성분 제도 도입에 관한 결정), 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6655/4492593.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대학교에 입학하면 군에 입대하지 않는다. 그 대신 2 학년 때 6 개월 동안 교도대에서 훈련을 받고 대학을 마쳐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 훈련을 받은 자들이 군복무 면제를 받으며, 졸업생은 예비역 소위, 최우등생의 경우 중위 칭호를 받는다. 어떤 대학교에서는 최우등생만 초급병사 칭호를 받고 일반 학생들의 군사 칭호는 전사로 남는다(O5).[222]

3) 징병 진행 과정

15 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4 학년 학생들은 군사동원부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O5). 그리고 학교 졸업 직전인 17 세가 되면 징병 대상자는 동원부에 방문해야 한다. 이는 학교에서 진행되며 같은 반에 있는 징병 대상자들은 같은 날 군사동원부를 방문한다(S3).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군에 입대하면서 신청서에 희망 군종을 선택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당국은 후보자의 출신 성분, 신체, 능력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O1, O3). 군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비공식적인 계층 제도가 있다(위신순, O1).

1. 호위 사령부
2. 특수부대
3. 공군
4. 해군
5. 육군
6. 건설부대

4) 비교

중국에서는 징병제 대신 모병제가 있어 북한 징병제를 소련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한 징병제의 원형은 소련 징병제였지만, 소련 제도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상기한 것처럼 1937 년까지 소련에서는 안 좋은 출신 성

[222] 이정연,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p. 302.

분 보유자들(부농, 신부, 귀족 출신 등)의 경우 정식 군대 대신 '후방 민병대(тыловое ополчение)'라는 준군사 조직에 징병됐는데, 1937 년 후방 민병대 자체가 해산되면서 모든 소련 국민은 징병제 대상이 됐다.[223]

또한, 소련에서 징병 과정 자체는 호출장(повестка) 발급을 통해 진행됐다. 신체검사와 징병 시에는 입대 대상자가 구(區) 군사위원회(военный комиссариат)로부터 호출장을 받아 군사위원회에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군사복무를 기피하려는 경우 "호출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북한에서는 징병을 학교에서 진행하면서 이 제도의 단점은 없어지게 됐다.

2. 월급 제도

인민군의 군인 월급은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됐다.[224]

1) 기본봉급: 군사 칭호에 따라 지급한다. 칭호가 높을수록 기본봉급도 높은데, 특히 소위의 기본봉급은 특무상사의 기본봉급보다 8-10 배 더 높아 군관으로 진급되면 기본봉급이 크게 오른다.

2) 직무봉급: 군관이 본인 계급보다 편제상 위의 직책에 임명돼 복무할 경우 그 직책에 해당하는 봉급이다.

3) 군사 칭호비: 군관에게만 지급하는데, 보통 기본봉급의 10% 미만이다.

4) 특근수당: 전차병, 해군, 항공기 조종사 등에 지급한다.

5) 기술수당: 군의 및 수의 근무, 함정기관사, 항공기정비사에게 급수에 따라 지급한다.

---

223 Александр Кудашкин (알레트산드르 쿠다쉬킨), *Военная служб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прав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러시아 연방에 군사 복무. 법률 조절의 이론과 실천), (모스크바: Litres, 2015).

224 『北韓總覽』, (서울: 北韓硏究所, 1983), p. 1511.

6) 복무수당: 오랫동안 복무하는 군인에게 해마다 월급의 몇 퍼센트씩 인상해 지급한다.

7) 가족수당: 군관가족에게 부양가족 수에 관계 없이 균일지급한다.

8) 정보비: 상좌 이상 군관에게 지급한다.

9) 가급금(加給金): 전방 대대 이하 전투 부대(비무장 지대 부대) 중좌 이하 칭호를 가진 전방 근무 수당이다. 1 인당 기본봉급 기준으로 군관 30%, 하전사 100%를 지급한다.

10) 초기근무보급(超期勤務補給): 하사관급의 기술자로 초기(超期)근무지원을 하면 중위급 봉급을 지급한다.

11) 기타: 기밀수당, 연말수당, 국경일 및 기념식 축하금 등이 있다.

이 제도는 소련과 비슷한 점이 많다. 단, 소련에서는 군관과 하전사의 월급 제도가 달랐다. 먼저 하전사 월급 제도를 살펴보자.[225]

1) 기본봉급(Денежное довольствие): 병사 및 하사관의 경우 똑같다.

2) 기술수당(Надбавка за классность): 기술복무자들은 능력에 따라 3 가지 급수로 나눈다. 최하급인 3 급 기술자는 기술수당을 안 받았지만, 2 급과 1 급 기술자는 받았다.

3)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자, 비행하는 자, 잠수하는 자에게 수당(Надбавка за прыжки, полеты и погружения)을 매번 지급한다

그리고 소련군 군관의 경우 시스템이 더욱 세부적이었다.

1) 군사 칭호비(Оклад за звание): 군사 칭호에 따라 지급

2) 직무 봉급(Оклад за должность): 군사 직무에 따라 지급

---

[225] Юрий Веремеев (유리 웨레메예프) *Оплата воинского труда: Денежное содержание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군사 복무 지불: 소련 군인 임금), http://army.armor.kiev.ua/hist/finansy.s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3) 복무수당(Надбавка за выслугу лет): 2 년 이상 복무하는 군인에게 해마다 월급의 몇 퍼센트로 계산돼 지급한다.

4) 먼 지방 복무수당(Надбавка за службу в отдаленной местности): 월급의 15%를 추가한다.

5) 극북(極北)지역, 캄차카 반도, 사할린 섬, 사막, 외국 복무수당(Надбавка за службу на Крайнем Севере, Камчатке, Сахалине, пустыне, за границей): 월급의 50%부터 100%까지 추가된다.

6)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자, 비행하는 자, 잠수하는 자에게 수당(Надбавка за прыжки, полеты и погружения)이 매번 지급된다

또한, 소련에서는 북한과 달리 세금 제도가 공식적으로도 존재하며 군인은 세금 13%를 냈다.

3. 엘리트의 군사 계급 개혁

냉전 시기 북한의 군사 계급 제도는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모든 개혁의 대상은 최고 엘리트뿐이었다. 이 개혁들을 살펴보자.

첫째, 북한 당국은 차수 계급을 개칭시켰다. 이 계급은 처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차수'라 불렀고, 1982 년 나왔던 백과사전에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차수'에 대한 언급이 있다.[226]

그런데 1985 년 오진우 당시 인민무력부장이 차수로 승진될 때, 그의 계급을 '조선인민군 차수'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뒤 모든 차수들에 대해 '조선인민군 차수'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이 호칭 변화의 이유는 공화국 원수인 김일성의 유일성을 더욱 강조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북한은 1992 년 최고 군사계급인 '대원수' 계급을 도입했다. 1992 년 4 월 13 일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칭호를 수여받았는데, 이 칭호는 그날 혹은 그 며칠 전 도입됐다고 추측할 수 있다.

226 "군사칭호," 『백과전서 제 1 권』(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 521.

당시 사회주의권에서는 유일한 대원수가 스탈린이었는데,[227] 김일성이 대원수가 되는 것은 그에 대한 개인 숭배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공화국 원수와 차수 사이에는 특이하게도 '조선인민군 원수'라는 계급이 도입됐다. 1992 년 4 월 20 일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계급을 수여 받았고 동시에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같은 계급을 수여 받았다. 그런데 1995 년 2 월 25 일 오진우가 사망한 뒤 '조선인민군 원수'라 부르게 됐고, 1995 년 10 월 원수로 승진된 최광과 리을설도 '조선인민군 원수' 계급을 수여 받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개혁의 목적을 김정일이 오진우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위에서 보듯 이 시기 북한군 계급제도에 관한 개혁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주로 소련 체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1) 소결

창군 시기 북한 군대는 소련과 다른 독립적인 특징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독립 발전기에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북한 징병제와 새로운 엘리트 계급 체계는 소련과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소련의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창건 시기 받아들인 특징이 남아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특징 중에는 평화 시대의 월급 제도와 같은 소련의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다.

[227] 중국군에 1955 년부터 1965 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대원수'라는 계급이 있었지만, 모택동이 수여를 거부해 결국 수여받은 사람이 없게 되었다.

제 2 절 독립적인 상징의 도입

1. 군인 선서의 변경

북한의 사상에 맞도록 군인 선서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래에서 보듯 김일성의 '10 대 준수'와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창군 당시와 같은 내용이었다.[228]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항일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받은 영웅적 조선인민군에 입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전투정치훈련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 같이 보위할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나는 10 대 준수 사항을 구현하여 모든 군무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하며 국가 비밀, 당 조직비밀, 군사비밀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나는 전투정치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을 '일당백'의 싸움꾼, 조국통일의 결사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28 김영운. "탈북 수기: 군인 선서와 병사 시절," 『겨레얼통일연대』, 2014 년 6 월 3 일, http://hanapd.com/~nkplf/board.php?board=skin1b603&page=2&command=body&no=74.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평양의 눈. 남북돋보기: 남북한 군생활의 비교," 『북한 전략 센터』, 2014 년 5 월 14 일, http://www.nksc.co.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4&num=11367.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나는 이 선서에 끝까지 충실할 것을 맹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조국과 인민 앞에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겠다는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 경례와 통화의 방식

냉전 시기 북한 군대의 경례 방식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1970 년대 초반까지 군인은 진급이나 훈장을 받을 때 "조국을 위하여 복무합니다"[229]라고 답했고, 이후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위하여 복무합니다"라고 답했다. 1990 년대 초반부터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합니다"라고 답해야 했다.[230] 첫 번째 표현은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을 위하여 복무합니다"(Служу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와 비슷한데, 표현의 변화는 북한이 유일사상체계를 도입하면서 개인숭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군사 엘리트의 새로운 상징

새로운 군사 계급 보유자를 위해 여러 상징들이 도입됐다. 상징의 변화를 살펴보자.

1) 계급장

첫째, 1985 년 오진우가 차수로 승진돼 '공화국 차수'라는 계급이 '인민군 차수'로 변경되면서 인민군 차수의 계급장 모양은 특대성(特大星) 위에 국장이 새겨진 것으로 바뀌었다. 이 계급장은 1953 년부터 1954 년까지 사용했던 공화국 원수 계급장과 똑같았다.

---

229 현재 "조국을 위하여 복무합니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훈장을 받거나 진급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30 이정연,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 』,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p. 61.

[그림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차수와 조선인민군 차수 견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차수 계급장 (1954 년 기준)	조선인민군 차수 계급장 (1985 년 기준)

둘째, 1992 년 헌법 개정에 따라 북한 국장의 모습이 변경됐다.[231] 이에 따라 공화국 원수와 인민군 차수의 계급장도 바뀌었다.

셋째, 같은 해 공화국 대원수 계급이 도입돼 공화국 대원수 계급장이 정해졌다. 북한 대원수 계급장은 중국 영향을 볼 수 있다. 1955 년부터 1965 년까지 중국 군대에서는 최고 계급인 '중화인민공화국 대원수'라는 계급이 있었다. 중국 간부들은 모택동에게 대원수 계급을 수여하자고 했지만 모택동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에는 대원수가 한 명도 없었지만, 대원수 계급장과 군복 디자인은 공개됐다. 이 디자인이 북한 대원수 계급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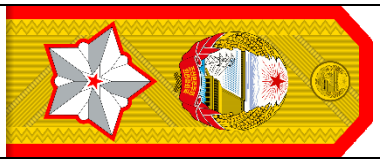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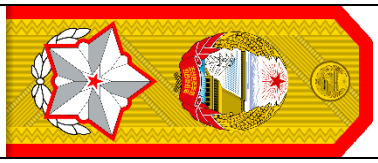
[그림 4-2] 중화인민공화국 대원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견장

중화인민공화국 대원수 계급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계급장

231 새로운 국장에서 붉은 별 아래 있는 산은 '백두산'으로 정해졌고, 산의 모습도 달라졌다.

넷째, 1995 년 오진우가 사망하면서 북한에는 '인민군 원수'라는 계급이 도입됐다. 인민군 원수의 계급장은 원래 공화국 원수와 똑같았고 공화국 원수의 새로운 계급장 모양은 별 뒤에 목란 잎 절반이 나왔다.

[그림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와 조선인민군 원수 견장

	
공화국 원수 계급장 (1995 년까지) 인민군 원수 계급장 (1995 년부터)	공화국 원수 계급장 (1995 년부터)

2) 원수 별

북한은 원수 별을 소련에서 차용했지만, 1990 년대부터는 소련 것과 모양이 어느 정도 달라지면서 대원수, 원수,[232] 차수 별 등을 각각 사용하게 되었다.

[그림 4-4] 북한 대원수, 원수, 차수 별

북한 대원수 별	북한 신형 원수 별	북한 차수 별

특히, 차수의 경우 1953 년 2 월 7 일 공화국 차수 칭호를 수여 받은 최용건은 차수 별이 없었지만, 1985 년부터는 인민군 차수들이 차수 별을 받게 되었다. 또한, 대원수의 경우 대원수 별이 따로 있었다. 대원수 별, 원수 별, 차수 별은 보석 수로 구별할 수 있다.

232 공화국 원수와 인민군 원수는 같은 별을 사용한다.

3) 소결

사회나 조직의 엘리트에 관한 상징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려면 여러 가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첫째, 엘리트는 대표성이 없는 소수이다. 둘째, 조직의 일반 성원과 달리 엘리트 성원들은 상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컨대, 일반 병사는 자신의 계급장 모양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이를 바꿀 수 없지만, 원수는 자신의 군복을 바꾸고 싶으면 명령을 내리고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군의 엘리트 상징은 다른 사회에서처럼 문화적 특징이 표현됐다기보다는 엘리트 구성원의 취향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군기의 변경

군기는 군대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냉전 시기 인민군기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기존과 차이점은 금색이었던 국장이 원래의 국장 색깔로 바뀐 것뿐이다. 또한 국장 변화에 따라 군기도 변화되었다.

[그림 4-5] 조선인민군 군기

인민군기 (1981.1.7-1992.5.13)		
인민군기 (1992.5.13-1993.11.10)		

5. 부대 표창 깃발

집단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집단 표창이다. 즉 한 개인의 업적으로 표창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 구성원들의 업적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집단에 표창을 수여한다. 그 목적은 집단주의 정신 강화와 함께 도덕적 인센티브를 통해 집단 구성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군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 훈련과 교육에 우수한 결과를 얻은 군부대들은 특별한 명예칭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칭호를 수여 받는 부대는 칭호의 상징인 깃발도 받는다.[233] 다음은 칭호와 상징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다.

1) 3 대혁명 붉은 기 중대

이 운동은 원래 그냥 '붉은 기 중대 운동'이었다. 운동의 시발점은 1962 년 9 월 1 일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제정한 '인민군대 내 붉은 기 중대 운동에 관한 사업규정'이다.[234] 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율에 맞춘 중대는 붉은 기를 취득할 수 있었다.[235]

1) **당의 사상체계확립과 혁명 전통 교양 강화 및 혁명정신무장**
2)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신념**
3)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반대**
4) **상·하간 동지단결 강화**
5) **이기주의, 공명주의, 자유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 극복**
6) **전투준비 및 동원태세 강화**

---

233 이정연,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 』,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p. 163.
234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1983), pp. 1518-1519.
235 위의 책.

7) **전투, 정치훈련에 적극 참가하여 '우'(優)의 평가 획득 및 70% 이상 성원의 '우' 성적 쟁취**

8) **군사기술수준 제고로 3 분의 2 이상이 차상급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소유**

9) **상관명령의 절대 집행, 관철**

10) **군사기밀 누설, 사고 및 규율위반 현상의 일소**

11) **군대 재산의 애호 절약**

12) **구분대에 소요되는 춘하계용** (春夏節用) **소채** 100%, **동계용**(冬節用) **소채** 50% **육류 매개인 25 그람 이상 자체 해결**

13) **위생규칙의 준수로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14) **사회 질서와 공중도덕의 자각적 준수**

15) **전체 성원의 체력검정 합격**

1970 년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 5 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3 대혁명'이라는 개념을 선언했다. '3 대혁명'은 바로 사상혁명인 전체 북한사회의 주체사상화, 기술혁명인 생산의 기계화·자동화, 문화혁명인 전인민의 인텔리화를 뜻한다. 이후 '붉은 기 운동'은 '3 대혁명 붉은 기 운동'이 됐다.

중대는 '3 대혁명 붉은 기 운동'에 여러 번 합격할 수 있고, 이런 경우 '2 중 3 대혁명 붉은 기'나 '3 중 3 대혁명 붉은 기'를 수여 받는다.

[그림 4-6] 3 대혁명 붉은 기

<table>
<tr><td>
</td><td>
</td></tr>
<tr><td>3 대혁명 붉은 기</td><td>2 중 3 대혁명 붉은 기</td></tr>
<tr><td>
</td><td>
</td></tr>
<tr><td>3 중 3 대혁명 붉은 기</td><td>3 대혁명 붉은 기의 뒷면</td></tr>
</table>

2) '오중흡 7 련대' 기

1996 년 김정일 지시에 따라 조선인민군에 '오중흡 7 련대 기의 부대' 명칭이 도입됐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따르면 오중흡은 김일성 항일빨치산 부대 병사였고, 한 전투에서 김일성의 위기를 몸으로 막았다. 안타깝게도 '세기와 더불어'에 나온 역사의 이미지는 매우 왜곡돼 이 이야기가 사실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아무튼 '오중흡 7 련대 기의 부대' 캠페인의 핵심은 '혁명의 수뇌부', 즉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라는 구호인데, 캠페인은 병사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오중흡 7 련대 기의 부대' 칭호 수여에 대한 결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내리고, 칭호를 받는 부대에는 다음과 같은 깃발이 공급된다.

[그림 4-7] 오중흡 7 련대 기

깃발 디자인을 보면 북한 국장에 있는 그림 같은 백두산 위에 로동당 마크가 있고, 방패 양쪽에는 기관총이 있으며 뒤에 오각형 별이 있다. 즉 군사, 당,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3) 금성친위부대

금성친위부대 칭호는 1975 년 3 월 김정일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금성(金星)'은 당시 김일성의 상징이었다. 김일성 유일사상에 크게 기여하거나 전투력이 우수한 부대들은 금성친위부대 칭호를 수여 받을 수 있었다.[236]

236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http://www.uniedu.go.kr/uniedu/etc/nkKnowldgDictionary/view.do?nkKnowledgeDictSn=31.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그림 4-8] 금성친위부대의 깃발 사례

4) 비교

명예 붉은 깃발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 있었고, 계획경제에서 고유한 '도덕적 인센티브' 중 하나다.[237] 소련에도 이런 깃발(Переходящее красное знамя)이 있었지만, 민간인에게만 수여됐다.[238]

중국에서 유동홍기(流动红旗)는 주로 학교에서 사용됐으며 성적, 위생, 도덕 우수생들에게 주어진다.[239] 즉 군에서 명예 붉은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특징이다.

---

[237] 사회주의 계획경제에는 월급과 물질적인 인센티브 대신하여, 명예 칭호와 같은 사상-도덕적인 인센티브의 역할은 강조된다.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에 대해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참조

[238] Красные знамена (붉은 기),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소련 백과대사전), http://allencyclopedia.ru/37892.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39] 『流动红旗评比制度』 (유동홍기: 비교와 평가의 제도) http://www.doczj.com/doc/8600d3d7f61fb7360b4c65ec.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6. 판문점 부대 마크

북한 군대는 대부분 부대 마크가 없는데, 유일하게 마크가 있는 부대가 판문점 부대다.[240] 공산권 국가는 부대 마크 문화가 없는데 판문점은 바로 군사분계선에 있고 판문점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은 거의 매일 남한 군인을 볼 수 있어 판문점 부대 마크는 한국 국군의 영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주적의 영향이 반영된 것은 참으로 예외적인 것이다.

[그림 4-9] 판문점 부대 마크

판문점 부대 마크 디자인은 '오중흡 7 련대의 기'와 비슷한 점이 많다. 마크와 깃발에 백두산과 기관총 2 자루가 있는 것으로 보아 깃발과 마크 디자인이 관련돼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40 이정연,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p. 121

7. 민간 사회의 상징적인 군사화

1) 민간 단체의 군사화

군복은 군인을 민간 사회와 구별하는 상징이다. 군복의 메시지는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군인이다”, “군복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은 현역 군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보안성와 보위부

북한에서는 일부 국가 기관에 군복을 비롯한 군사 상징을 사용한다. 우선 일반 경찰인 인민보안성과 비밀 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가 해당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에서 경찰의 계급 제도는 군대와 똑같다. 예컨대 ‘총경’ 대신 ‘인민보안성 상좌’라고 부른다. 또한 보안부과 보위부 일꾼들은 사용하는 제복의 기본 디자인이 일반 군복과 매우 비슷하다.

[그림 4-10]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제복

보안성 대장	보위부 대장

이 제도의 기원은 소련에서 찾을 수 있다. 소련은 1945년 내무 인민위원회와 국가안전 인민위원회에서 계급을 군대와 일원화했고 이 제도를

1952년까지 유지하였다.[241]

민간 단체

북한 민간 기관도 비슷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철도성, 평양직할시 지하철, 석탄공업성 등이다. 각 기관의 특징을 살펴보자.

철도성의 상징적 군사화는 1980년 김정일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때부터 철도성은 어떤 면에서 준군사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철도성 일꾼들은 3개월 동안 사흘에 한번씩 사격술, 반항공훈련 등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받는다. 철도성 제복은 인민군 군복과 매우 비슷하며 일꾼의 계급을 보여주는 영장까지 사용된다. 하지만 철도성의 계급제도는 군대와 달라 '반장'과 '조장(組長)'이라는 계급이 있다.[242]

평양 지하철은 북한의 경찰인 보안부 소속인 기관인데, 2000년대 후반 정식 명칭은 '내각 보안성 제23국 지하철도 운영관리국'이었다. 지하철 일꾼들은 군대와 보안부와 같은 군사칭호를 갖고 있으며 운영관리국 책임자의 군사 칭호는 중장이다.

지하철 일꾼들을 위한 제복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지하철에서 일할 때 입는 검은색 근무복이다. 두 번째는 지상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입는 제복인데 이는 인민군 경비대와 비슷하다.[243]

북한 광부들은 군복을 입지 않지만, 제복에는 계급장이 있을 수 있다.

---

[241]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 *Указ от 6 июля 1945 года «О званиях, форме одежды и знаках различия начальствующего состава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иат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и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иа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ССР»* (1945 년 7 월 6 일에 "소련 내무인민위원회와 국가안전 인민위원회의 계급, 제복 그리고 계급장에 대하여"), http://www.libussr.ru/doc_ussr/ussr_4551.htm.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42] 권오국, "장민수 전 철도성산하 신의주분국 신의주 철길대원: "지선에서는 아직 증기기관차가 한몫 한다", 『통일한국』, 24 권, 3 호 (2006), pp. 84-87.

[243] 이명, "북한의 자랑, 평양 지하철," 『北韓』, 532 권, 4 호 (2016), pp. 122-130.

게다가 광부의 작업조는 '소대', '중대' 등 군사 용어로 부른다.[244]

[그림 4-11] 평양 지하철, 철도성, 광부 제복 비교

근무복을 입고 있는 평양 지하철 안내원	북한 철도성 일꾼	북한 광부

이 제도에서 소련과 여러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소련에서도 철도[245]와 지하철 일꾼,[246] 그리고 석탄 광부들은[247] 군사 칭호와 비슷한 칭호가 있었고, 군복과 유사하지 않았지만 공통점이 많은 제복도 있었다.

---

[244] 張受錄, "북한주민의 하루/광부: 후보당원에 맡겨진 '속도전 돌격대'," 『北韓』, 1 호 (1986), pp. 122-126

[245] 1940 년대 당시에 철도성 제복에 관해 *Приказ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 711Ц «О выполнении Указа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т 4 сентября 1943 г. „О введении персональных званий и новых знаков различия для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교통로 인민위원회 위원의 제 711-ㅈ 명령 «1943 년 9 월 4 일에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의 «철도 교통 일꾼에 개인 칭호와 새로운 계급장에 도입에 대하여» 명령에 집행에 대하여»), 1943 년 9 월 13 일, http://polygonv.narod.ru/pervoist/1943-09-13-nkps-711pr.pdf.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246] Ibid.

[247] "Форменная одежда" (제복), Российский уголь (러시아 석탄 공업). http://www.rosugol.ru/museum/mundir.php.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 선전에 사용하는 군사 용어

북한 당국은 노동 동원을 선언할 때 군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한된 기간에 진행하는 노동 동원 캠페인은 '00일 전투', 근로자가 일하는 분야는 '전선', 유능한 사업방식은 '속도전(速度戰)'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이러한 선전 방식을 소련에서 차용했다. 소련은 스탈린 시기 초기부터 '노동 전선 병사(бойцы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와 같은 선전 명칭을 사용했고, "부농놈들의 외침을 반대하여 만장일치적이고 협력적인 전선으로 파종에 나가자!"(Против воя кулаков – дружным, коллективным фронтом на посев!) 등의 구호를 사용하였다.

3) 민간 사회에서 상징적 군사화의 의미

전쟁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태 중 하나다. 전쟁하는 사람은 언제나 죽거나 죽이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므로 전시(戰時)는 사람의 능력을 극도로 동원하는 시기이다. 게다가 전쟁 시기 주민들의 애국심은 더욱 활발해지며 국가는 탈영을 곧 반역죄로 본다.

북한 당국은 민간 사회의 군사화를 통해 이러한 전쟁 이미지를 사용한다. 상징을 통해 보안성이나 보위부가 군인처럼 적과 싸운며, 일꾼들은 노동을 전투처럼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 이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킨다. 이는 한편으로 일상생활의 사회적 위신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8. 소결

위에서 보듯 이 시기 북한군의 상징 체계는 주로 사회주의식이었지만 소련과는 다른 수많은 상징이 도입됐다. 즉, 북한군 상징 디자인에 붉은 기나 낫과 망치와 같은 사회주의 사상을 나타내는 상징들이 포함되었고

상징들 중에는 사회주의식 '도덕 인센티브'를 주는 표창 깃발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소련 것을 복사하기보다는 북한 당국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일부였지만 소련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한 나라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제 3 절 소결: 소련 유산의 퇴조와 유지

1. 사회주의 군대의 특징들과 조선인민군

본 연구의 가설 중 하나는 “북한 군대는 소련식 군대로 창군되었다”라는 것인데, 소련 군대를 비롯한 사회주의권 군대들의 3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혁명’ 또는 ‘계급’의 군대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특히 사회주의 혁명 직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붉은 군대에서 이러한 개념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군대는 ‘착취 계급’이 아니라 노동자나 농민과 같은 ‘근로 인민’을 위해 싸운다고 강조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탈식민군’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식민주의 제도 갈등과 식민지 독립으로 생긴 나라들 중에는 독립과 반식민주의를 강조하는 국가들이 많았다.

세 번째로는 일반 국가처럼 ‘나라의 군대’이다. 즉 군대 선전에 애국을 강조하고, “조국을 위하여 싸우자”처럼 계급보다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북한 군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본 연구자는 조선인민군을 기본적으로 ‘나라의 군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당국은 군대의 본질이나 담론에서 ‘민족 군대’와 ‘혁명·계급 군대’ 개념을 도입한 적이 있다.

북한 체제는 혁명으로 탄생했다기보다 외국의 점령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혁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 개념의 사용에는 두 가지 요인이 기여했다.

첫째, 북한은 모택동 시기 중국의 영향을 받아 '혁명'을 정권 타도뿐 아니라, 사회주의 정권 활동 자체로도 보고 있다. 때문에 '혁명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인 것처럼 '혁명 군대'는 '사회주의 군대'라는 뜻을 갖게 됐다.

둘째, 북한 정권은 1950 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이 소일전쟁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1967 년 이후부터는 일본 제국을 쳐부수었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의 공식 역사관에 따르면 인민군이 진짜 혁명군이다.

북한 군대의 계급성은 무엇보다 성분 체제에서 볼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적대 계층' 출신자들은 입대할 수 없다. 소련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출신성분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었다. 북한이 성분·계층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군대에 적용한 것은 소련 모델에서 이탈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사회보다는 군대에서의 계급성이 더 약해 군사복무는 자신의 '계층'을 개선하는 방법들 중 하나가 됐다.

북한 군대를 '민족 군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군대 선전에서는 '우리 민족'이라는 말을 쓰며 창군 열병식에서 김일성은 "조선 민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자신의 군대를 갖게 되었다"고 발언했다.[248]

그러나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민족 차별이 없다. 북한에 있는 소수민족(귀화한 화교, 귀국한 조선인 배우자 등 북한에 이민한 일본인, 군사분

---

[248] *Kim Il Sung addresses North Korean Army on their second Anniversary at Pyongyang Rail Road Station*, Critical Past, http://www.criticalpast.com/video/65675028811_Kim-Il-Sung-on-North-Korean-Armys-Anniversary_Tower-of-Liberation_Army-bands.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제목은 동영상의 실제 내용과 다르다).

계선을 넘어간 미국인의 자식 등)은 입대 제한이 없고 징병제 대상이다. 즉 북한 군대의 민족성은 나라의 민족성의 결과뿐이다.

또한, 북한 군대에서는 한국 국군과 미국 군대를 주적으로 본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만 자위대를 주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북한은 탈식민지 나라지만, 북한 군대 제도나 선전에서는 탈식민지적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북한 군대는 원래 소련 모델에 따라 설립됐지만, 나중에는 소련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사상에 따라 제한적인 개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혁들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출신에 따라 실행하는 징병제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중국의 영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다.

2. 군대의 경로 의존, 군사화를 통한 사회의 전체주의화

이 시기 북한 사회는 변화해 왔지만, 군대는 그렇지 않았다. 북한 사회는 1950 년대 후반부터 통제를 강화했고 특히 1967 년 유일사상체계 도입으로 전체화됐지만,[249] 군대는 이미 전체주의적인 집단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민간사회에도 전체주의적인 질서를 도입하면서 군대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령의 복종 원칙이다. 군대에는 원래부터 이런 원칙이 있었지만, 민간 사회에는 '유일사상체계' 도입 이후 나오게 되었다. 1974 년에 나온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 대 원칙' 중 네 번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

[249] Fyodor Tertitskiy, "1967: Transition to Absolute Autocracy in North Korea" in *Change and Continuity in North Korean Politics* (Abingdon-on-Thames: Routledge, 2016), pp. 82-94.

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이다. 이로써 사회에도 김일성 명령 복종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냉전 시대에 북한 당국은 시장 경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군인이나 민간인도 공급을 받고, 물질적 인센티브보다는 도덕적 인센티브를 위해 노동하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대 깃발 등 집단 표창 제도를 도입했고, 이러한 과정은 사회를 전체주의적으로 만드는 일부였다.

사회학에서 전체 제도에 대한 고전적 이론을 만든 학자는 어빙 고프만이다. 고프만은 전체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250]

첫째, 인생의 모든 측면 같은 곳에 같은 권위 하에 진행된다. 둘째, 구성원 일상 생활의 모든 단계들은 같은 태도를 받고 같은 행위를 하는 수많은 다른 자들과 함께 진행된다. 셋째, 일상 생활의 모든 활동은 확실한 일정표에 따라 진행되며, 이 일정표에 따라 활동 순서가 정해지고, 전체 활동들은 위에서 내리게 된 명쾌하고 공식적인 규칙과 관리자 집단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다.

이 모든 특징을 북한 군대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민간사회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었다. 즉, 북한은 군사화를 통해 민간사회를 전체주의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3. 군대의 경로 의존

창건기와 독립 발전기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찾아 보면, 독립 발전기에는 북한 군대에 경로 의존이 분명히 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

---

[250] Erving Goffman. *Characteristics of Total Institutions*, http://www.markfoster.net/neurelitism/totalinstitutions.pdf.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건기에 북한 군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소련이 내렸다. 즉, 소련 당국의 결정과 소련군의 특징들은 독립 변수였고, 북한 군대의 특징은 종속 변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독립 발전기에 북한이 소련의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북한 군대의 특징 자체가 독립 변수가 되었다. 이는 북한군 경로 의존의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다시 말해, 창건기에 북한의 실권 세력인 소련 당국은 북한군의 기존 경로와 특징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독립 발전기에 북한의 실권 세력이 된 김일성 정권은 한편으로 소련의 특징과 소련군의 경로를 무시하면서 다른 다른 편으로는 북한군의 특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에 북한에서 소련의 정치적인 통제는 중단됐고 군대의 변화 속도가 느려지게 되었다.

4. 북한 군대 발전 속도와 다른 사회주의권 나라의 비교

북한과 달리 사회주의권 나라 중 쿠바처럼 소련의 전통을 차용하지 못하거나, 건국 직후에는 차용하지만 나중에는 소련 모델에서 이탈한 나라들도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이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인 1965 년 5 월 22 일 군사계급제도를 완전히 폐지해[251] 군사 제도와 상징들이 소련과 완전히 달라졌다. 소련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된 유고슬라비아와[252] 알

---

[251]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取消中国人民解放军军衔制度的决定』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국인민해방군 군사 계급 제도의 폐지에 대한 결정),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0-12/25/content_5004360.htm.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52]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orm Insignia. *Yugoslavia 1943-1992 (Socialist Federal Republic)*, http://www.uniforminsignia.org/index.php?option=com_insigniasearch&Itemid=53&search_id=main&state=219&search_id=top.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바니아도[253] 소련식 군사 제도와 상징을 폐지하였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나라들은 사실상 소련 속국으로서 지도자들이 소련에 반대할 의지가 있어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련과 다른 군사 상징 제도를 도입해 자주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1970 년 헝가리의 군복 개혁이다.[254] 원래 헝가리는 소련식 군복을 사용했지만 1970 년부터 자체 군복을 도입했다.

북한이 왜 소련식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김일성에게는 중국,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헝가리 당국과 달리 소련에 반대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중소 분쟁, 소련의 유고슬라비아나 알바니아와의 대립, 헝가리 민주화 봉기 등 이 모든 사건은 노골적인 정치 싸움이었다. 그런데, 김일성이 소련으로부터 독립되는 과정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조용히 진행돼, 김일성은 소련식 군사 제도나 상징을 폐지해 주민들에게 나라의 자주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처럼 북한의 사회 진화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253 *Ushtria jone popullore* (우리의 인민군) (티라나: 8 Nëntor, 1983).

254 *Форма солдат армий стран Варшавского договора*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나라들의 군복), https://vk.com/album-62474637_20439121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제 5 장 조선인민군의 단독 발전기: 소련 모델의 제한적인 퇴조와 유산(1993-현재)

본 연구의 가설 중 하나는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의 사회 진화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군대에서의 변화도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초기에 형성된 특성들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가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탈냉전 시대 북한 군대의 발전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이 시기 북한의 경로 의존은 독립 발전기만큼 크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 아래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에 북한군 부대 단위, 하사관 이상 계급 제도, 정치 장교 제도, 군내 당 조직 제도, 군복과 견장 등 핵심적인 조직적·상징적 특성들은 변화 없이 유지됐다. 즉, 앞으로 서술할 여러 가지 개혁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핵심적인 특징들은 건설기에 나온 소련식 특징으로 유지돼 갔다.

제 1 절 소련식 편제 퇴조의 지속

1. 복무기간 개혁

김정일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이틀 뒤인 1991 년 12 월 26 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해체됐다.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더 이상 사회주의권의 원조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스스로 한미동맹에 대립해야 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쉬운 임무가 아니었다.

1993 년 북한 당국은 군 복무 기간을 공식적으로 10 년으로 연장시켰다. 현대 사회에서는 비할 데 없는 장기간이다. 이러한 조치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첫째, 이런 결정에는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다. 장기 복무 도입으로 나라의 병력을 확산할 수 있고 추가로 군사 교육도 시킬 수 있었다. 병력이 클수록 군대도 강하다.

둘째, 정치적인 효과도 있다. 청년들은 사회의 가장 활동적인 집단이다. 북한 당국은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 그들을 통제하고 국가 사상을 주입할 수 있다. 이로써 청년들이 반체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진다.

셋째,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군인은 합법적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데 탈냉전 시기 북한 당국은 군대를 통해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다.

2. 사병 출신 군관 제도 도입

김정일 시대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개혁은 군관 모집 방식의 변화였다. 일반적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한 민간인이 군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탈냉전 시기 북한에서는 민간인이 군관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고, 신입생 모집 대상은 병사로 제대한 사람들이다. 군인은 경쟁을 통해 군관이 될 수 있으며, 사단의 간부부 추천을 받는 사람들만 군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S2).

이러한 개혁은 군대의 본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첫째, 현재 북한 군관에게 병사 복무 경험이 있는 것은 관병관계(官兵關係)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자가 인터뷰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 북한 군대의 규율 상태가 좋아졌는데, 이러한 개혁으로도 이를 설명할 수 있다(O3).

둘째, 일반적으로 군대 위관장교들은 실제로는 복무 초보자이지만, 북한의 모든 장교들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즉, 이 개혁은 북한 군대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 현재 군사 계급 제도 설립

김정일 시대에 북한 당국은 군사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군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계급 변화를 실행했다. 1998 년 4 월(S3) 북한 당국은 상등병 계급을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 등 3 개 계급으로 나누었다. 당시 상등병은 초급병사 계급을 수여 받았다(O1, O3). 개혁 이전에 군인들은 상등병이 되면 오랫동안 부분대장인 하사로 진급할 수 없었는데, 상등병이 3 개 계급으로 분열되면서 병사들은 진급하기가 더 쉬워졌다 (O3, S1).

북한 계급 체계 특징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우선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 군대는 대부분의 군관이 사병 출신이다. 일반 군대의 경우 교육 받지 않은 사람이 사병으로 입대한다. 군사 교육을 받아 하사관, 준사관, 장교로 입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 시스템의 역사적인 뿌리는 중세시대 귀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귀족이 장교로 입대했고 백성들은 사병으로 입대했다.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귀족이 없어졌지만, '군사 귀족'인 장교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독재 국가에서만 이것이 없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예외적인 것이다.

둘째, 군사 계급은 일반적으로 사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등으로 구별되지만, 북한 군대에 준사관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관장 직무를 갖고 있는 특무상사를 북한식 준사관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위 간부 계급이 8 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군대의 최고 계급은 4-5 성 장군이지만, 북한의 공화국 대원수는 8 성장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개인숭배사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현재 군사 계급과 군사 직무의 연결

다음 표는 군사 칭호 보유자의 일반적인 군사 직무를 보여준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표 5-1] 현재 조선인민군 군사 계급과 군사 직무의 연결

군사 칭호	일반적 군사 직무[255]
공화국 대원수	김씨 일가를 위한 명예 칭호
공화국 원수	국가 원수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인민군 원수	김일성 부대의 빨치산 등 북한 군사 엘리트를 위한 명예 칭호
인민군 차수	인민무력부장,[256]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병과 및 군종 사령관
대장	
상장	군단장, 병과 및 군종 사령관
중장	군단 정치위원,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훈련소장
소장	사단장, 여단장, 군단 정치위원, 정치부장, 보위부장
대좌	여단장, 사단정치위원, 부사단장
상좌	연대장
중좌	대대장, 연대 참모장, 부연대장, 연대장, 연대 정치위원
소좌	대대장
대위	
상위	중대장, 부중대장
중위	중대 정치지도원, 부중대장
소위	소대장

255 이정연,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 』,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p. 223, O2, S2 참조.

256 제 2 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국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군대를 관리하는 조직을 '국방부', '방어국' 등과 같이 공격이 아니라 방위를 강조하는 명칭을 사용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인민무력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북한 군대의 폐쇄성과 느린 사회적 변화 속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특무상사	사관장
상사	부소대장
중사	분대장
하사	부분대장
상급병사	(없음)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	

하전사의 경우 진급과 강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권리를 가진 군관은 대대장 이상 군관이다(O1). 소위 이상 칭호를 수여하는 결정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내리고(O5), 장령급 칭호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수여한 사실이 일반적으로 로동신문에 공포된다. 원수급 칭호 수여에 대한 결정은 보통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서명한다.

군관 진급의 경우 원래 복무했던 부대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파견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중대장인 상위가 대위로 진급되면 같은 대대의 부대대장이 되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배치된 대대의 부대대장이 되는 것이다(S2).

4. 노동 동원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 군대의 특색은 군인을 기존보다 더욱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봄·가을마다 군인들을 집단농장에 파견해 씨 뿌리기나 수확에 참여시켜 농민을 돕도록 한다. 다양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군인들을 참가시키는 것도 일반적이다. 농사일을 지원하는 것을 군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농촌전투기간'이라고 부른다(O5).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북한 문화에서도 노동하는 군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중대에 신입 병사 왔네'라는 노래에서 농업은 군인 생활의 정상적인 일부로 소개된다.

농장벌에 나가면 싱글벙글벙글

농장원들이 인민의 군대라 반겨주네

문덕태생 전사동무

군민일치 혁명전통

더욱더 빛내이며

농장의 바쁜일손도 도와야지~ 알았습니다!

노동 동원을 활동 변화로 보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군인도 있지만 대체로 이 시기는 일반 군사 훈련 시기보다 더 힘들어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O5).

노동 동원의 대규모화는 군인 일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김정일 시대 군인 일정표다(O5).

[표 5-2] 조선인민군 군인 일정표

일과 내용	하기	동기
총원기상	5:40-5:45	6:00-6:05
아침 운동	5:45-6:10	6:05-6:30
세수 및 정동	6:10-6:40	6:30-7:00
아침 식사	6:40-7:20	7:00-7:40
대열 점검	7:40-8:20	8:00-8:40
상학	8:40-11:40	9:00-11:50
점심식사	12:00-12:40	12:10-12:50
조준훈련	13:00-13:30	13:10-13:40
무기청소	13:30-14:30	13:40-14:40
상학	14:30-17:40	14:40-18:40
저녁 식사	17:40-18:20	18:40-19:20
보도 및 텔레비 정취	18:40-19:00	19:40-20:00
문화 생활	19:00-20:00	20:00-21:00
저녁점검	20:00-20:40	21:00-21:40
취침	21:00-5:40	22:00-6:00

김일성 시대와 달리 김정일 시대 하기 일정표는 7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적용하고, 동기 일정표는 12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적용했다. 5 월, 6 월, 10 월, 11 월은 노동동원 기간이다.[257] O5 에 따르면 김일성 시대에도 노동 동원 캠페인을 실행한 적이 있지만, 이는 김정일 시대에만 제도화되었다.

군사 복무의 핵심은 훈련이다. 북한 군인 일정표에서 군사 훈련 시간 비율을 계산해 보면, 김일성 시대에는 하루 평균 훈련 시간이 6 시 50 분인데, 김정일 시대는 노동 동원 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하루에 7 시간, 노동 동원을 포함하면 4 시간 40 분에 불과하다. 즉, 여기에는 '선군적' 군대를 강화하는 것보다 군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게다가 노동 동원의 원인 중 하나로 북한에서 징병제의 존재를 봐야 한다. 중국과 같은 모병제가 있는 나라들은 군인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면 군 지원자의 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 이런 나라들에는 비상 사태를 제외하고 군인 노동 동원은 없다.

5. 장기 복무 시대의 병영생활

장기 복무 기간 도입은 북한 군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북한군 병영 생활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병영 생활은 병사와 장교가 차이가 있지만, 현재 북한군을 구별하는 원칙은 ‘하전사 대 군관’이 아니라 ‘미혼 대 결혼’이다.

---

257 중국 군대에도 군인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상적인 노동 동원 기간은 없다. 나영주, 『中國人民解放軍의 役割 變化』(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pp. 113-122 참조.

북한 군대에서 생활은 엄격히 통제한다. 김정일이 “군인들은 30 세까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하전사들은 결혼할 수가 없다. 조선인민군 하전사나 여성 군관에게 있어 연애와 성교, 여성에게 임신은 불법활동으로 간주해 즉시 생활 제대를 시킨다(O1, O3). 그러나 임신한 여성을 강제로 낙태 시키지는 않는다(O3). 남자는 1997 년까지 군관, 1997 년부터는 만 30 세 이상 군관에게 연애와 결혼이 허가됐다.

따라서 북한 병사와 미혼 군관들은 병영에 사는데, 결혼한 군관들은 병영 외에 배우자와 함께 군과 사택에서 살 권리를 받는다(O3, 이소연). 병영은 보통 중대별로 있는데, 가끔 소대별 병영도 존재한다(S2). 남녀 합동 부대의 경우 여성 군인들은 남자들과 숙소가 분리된다(O5). 중대 사관장은 병영의 문 옆에 자고, 기상 명령을 내린다(S1).

장기 복무기간 도입은 군인의 경제적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북한 병영에 홑이불과 베갯잇은 거의 10 년에 한번씩, 전체 복무 기간에 한번 공급된다. 그런데 기존처럼 이불 빨래는 전사인 신병들이 한다(S2).

북한 군인들은 군사 식당에서 식사한다.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 초기에는 소련처럼 장령식당(S3), 군관 식당, 하전사 식당이 따로 있었는데 김정일은 이 제도를 폐지시켰다(O5). 이는 ‘병사 출신 군관’ 제도 도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하전사와 군관들은 같이 식사하지만, 군관을 위한 더 좋은 메뉴가 있다는 증언이 있다(S2). 요리사는 군인일 수도 있지만 민간인도 드물지 않다(S2). 메뉴는 부대마다 다른데 주로 야채, 옥수수, 곡류와 흰밥이다. 민간 사회처럼 군인들에게 공급된 음식은 흰밥의 비율에 따라 평가된다. 흰밥 비율이 높을수록 더 좋은 메뉴로 평가된다. 가끔 생선도 나오고, 명절 때는 돼지고기 등 고기도 공급된다.

북한 경제의 장마당화는 군복에도 영향을 미쳤다. 군인에게 제공하는 군복은 크기가 안 맞거나 불편한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 때문에 '제작복'은 인기를 모았다. 제작복은 군인의 체격에 맞게 만든 군복인데, 장마당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O5). 계급장도 장마당에서 파는데 자신의 군복에 달 수 있는 더 좋은 계급장을 사는 군인들도 많다(O5).

즉 북한 군인의 일상 생활은 북한군의 구조적 변화와 민간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6. 군내 병사 교육 제도의 변화

장기 복무제도의 도입으로 북한 군인의 교육 제도도 바뀌었다. 10 년간 군대에서 보내는 병사들은 효과적으로 전투를 위한 군사 교육이 필요하고 민간 사회에서 받는 보통 교육도 필요하다. 군인들은 북한 정권에 복종하도록 하는 사상 교육도 받는다.

1) 신병 훈련소

군대 교육의 첫 단계는 신병 훈련소다. 북한군 군단, 사단, 여단마다 신병 훈련소가 있다. 신병들은 입대하면 이 훈련소에 파견되는데, 군단 소속 훈련소들은 사단이나 여단 훈련소보다 위신이 높다.

이런 훈련소에서 2 개월 넘게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군종과 병과에 따라 부대에 파견된다. 신병에게 군대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훈련소 생활수준이 일반 부대보다 더 높다(O3).

2) 일반 교육

일요일을 제외하고 북한 군인은 매일 2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다.[258] 강사는 대개 중대 정치지도원이며 전문 강사가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S1). 교육 내용은 주로 김씨 일가의 위대성이나 북한 제도의 우월성과 같은 사상교육, 한국군과 미군 등 적군에 대한 교육, 전 동맹 국가였던 소련에 대한 교육이다.[259]

사상 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인민군 총정치국, 인민군출판사, 로동당 출판사 등에서 공급된다.[260] 다른 군사자료처럼 교육 자료는 국가기밀이다. 비밀의 수준은 보통 '당내 한함'이나 '대내에 한함' 등으로 비교적 낮지만 '절대 비밀'로 하는 교육자료도 있다.[261]

한국군에 대한 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은 '남조선군의 4 대 약점'이다. 첫 번째는 "주도권이 없다"는 것인데 한미동맹에서 미군의 작전지휘권을 비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하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다. 국군은 북한군과 달리 장교들이 민간인 출신이며, 그들은 병사로 복무한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본다. 세 번째는 "전투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북한군보다 한국군의 복무기간은 매우 짧아 북한 군인 입장에서는 2 년 동

---

258 이정연,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 』,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pp. 151-168.

259 위의 책.

260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을데 대하여 주신 지시』(평양: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2010), (절대비밀); 『모든 군무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할데 대하여』(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1998), (대내에 한함);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 인민군대는 무적 필승의 혁명적무장력이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당안에 한함) 등 참조.

261 북한에서 국가비밀 다섯 단계가 있다. '당안에 한함', '대내에 한함', '비밀', '절대 비밀', '극비'이다. 이 제도는 주로 소련에서 가져 왔지만, 소련에서는 '극비' 대신 '특별히 중요함(особой важност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비당원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사실은 국가비밀로 보지 않고 '당적 비밀'이라고 불렀다. 이 사실에서 북한의 당-국가 기관 흡수 표명을 볼 수 있다.

안 제대로 된 군사교육과 필요한 경험을 받기가 어렵다고 본다.[262] 네 번째는 “군기(軍紀)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3) 잡지 ‘군인생활’ 분석

북한에서는 군대 내 매체가 있다. 바로 ‘조선인민군’이라는 신문과 ‘군인생활’, ‘강연제강’이라는 잡지다. 또한 ‘문화생활’이라는 잡지가 있으며, 군단과 여단마다 내부 신문도 출판된다(O3, O5).

이 매체들 중 ‘군인생활’은 특이한 역할을 한다. 선전선동 내용뿐 아니라 다른 북한 매체와는 달리 군사 교육과 보통 교육 관련 내용도 많다. ‘군인생활’은 모든 군내 매체와 마찬가지로 국가기밀이어서 외부반출은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한국에 들어오게 된 여러 북한 군사 매체에 대해 접근해 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

‘군인생활’은 매호 구조가 비슷하다. 2008 년 5 월호를 사례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62] 이정연,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 』,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pp. 151-168.

[표 5-3] 2008 년 5 월호 '군인생활' 잡지의 내용

페이지	내용
(번호 없음)	노래
(번호 없음)	구호 밑에 목차
1	김정일 인용
2-44	김정일과 김일성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263] 및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부대에 대한 이야기. 주로 김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온다.
21-22	스탈린을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전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 (Никита Хрущёв)에 대한 비난
44-50	군인에 대한 이야기. 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느 군인의 동작에 대한 이야기다.
51	소련 작가 동맹 위원장이었던 알레크산드르 파데예프 (Александр Фадеев)에 대한 비판. 비판 내용은 원래 스탈린에 대한 충성심을 가졌던 파데예프가 수정주의자 흐루쇼프의 영향을 받아 스탈린주의를 배신한다는 것이다.
52	"콤퓨터 비밀 보장"이라는 컴퓨터 보안에 대한 기사
53	군인에게 쓴 편지
54	어느 정치지도원에 대한 이야기
55-58	군인에게 쓴 편지, 그림
59	분대장 역할에 대한 이야기. 분대장은 병사들과 가깝게 지내야 하고, 병사들은 '우리의 분대장'이라고 부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60-62	시(詩)
63-64	종교에 대한 비판
(번호 없음)	군인 사진 (5 페이지 정도)
65-68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
69	조리법
70-77	만화
78-83	"내가 본 북과 남"이라는 기자의 실화. 내용은 이북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이다.
84-86	알코올중독을 비판
86	털게에 대한 이야기

[263] 김정일의 이름을 먼저 쓴 이유는 김일성보다 김정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서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요즘 북한 군사 매체들은 주로 김정은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87-88	이라크에서 미국군대를 항의하는 민병대에 대한 이야기 및 찬양
88	‘전설’, ‘야담’ 및 ‘사화(史話)’라는 개념의 차이점 설명
89	RPG-7 라는 발사관에 대한 설명[264]
90	GPS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92-93	‘미국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및 비난
94-95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및 비난 주로 일제시대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
95	페이지 뒤쪽에 “5 월 중 부대, 군부대들의 부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문서
96-97	고려건국신화
98	“훈련의 휴식 참에: 흥미 있는 알아 맞추기 문제” (중학교 수준 수학 퀴즈)
99-101	‘력사 이야기’
102	‘력사 상식’
103	‘공화국 남반부 주요간석지제방들과 갑문들에 설비한 기동로들’
104	기네스 세계 기록 소개
106-110	알렉싼드르 배크 (Александр Бек) 소련 소설가가 쓴 ‘며칠간(Несколько дней)’이라는 소설책의 번역
111	1 월 당시 했던 퀴즈 승리자 목록
112	‘신호탄과 별찌의 차이’라는 문서
(번호 없음)	토끼를 가진 군인 사진

군인생활의 특징은 잡지 내용이 사상교육과 군사교육뿐 아니라 일반 교육 내용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군대의 매우 긴 복무기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군인들 중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 '군인생활'이 인문 교육 교과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64] 북한이 소련에 의존했던 시기 소련 현상을 설명했을 때는 한글이나 키릴 문자를 사용했고, 최근에는 로마자를 사용한다. 여기서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이탈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볼 수 있다.

7. 군사 재판소와 징벌 제도

북한의 군사재판소에 대한 모든 정보는 국가 비밀로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자는 탈북 군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북한군 징벌 제도와 군사재판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북한 군단과 사단마다 군사 검사와 군사재판소가 있다. 재판소 판사들은 주로 상좌나 대좌다(S2). 군사재판소는 중죄(重罪)를 지은 군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사형은 총살로만 시킨다(O4). O5 에 따르면 피고가 정치지도원이나 정치위원인 경우 재판소는 그들을 당 대표자로 봐 처벌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있다.

군사재판소는 주로 군형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 놀랍게도 군형법 자체는 국가기밀이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군내 보위 일꾼들뿐이다. 즉 일반 군인들은 군형법을 읽을 수가 없다(O5).

피고인이 군관인 경우 재판 전에 '동지 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동지 심판에는 같은 사단의 전체 군관들이 참가해 피고인을 비난한다(O5). 이 전통의 기원은 소련이 1939 년 도입한 '동지명예심판(товарищеский суд чести)'이다. 동지명예심판도 러시아 제국에 있었던 장교 사단(社團) 심판(судъ общества офицеровъ)을 본떠 만든 것이었다.

당연히 당원인 군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탈당 당한다. 그러나 군관이 군내 수용소에 투옥되면, 나중에 비교적 쉽게 당원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석방할 때 군대에 들어오거나 사회에 나가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만일 군대에 들어오는 것을 선택하면 군사 칭호가 회복되고, 나이에 상관 없이 청년동맹원이 되며 후보 당원이 된다. 이런 군관은 1 년 있다가 다시 입당한다(O5).

마지막으로 군 보위 총국 소속 특별재판소가 있다. 특별재판소는 반국가 중죄를 지은 자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린다. 2013 년까지 이 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국가기밀이었으며 장성택 숙청 당시 공개됐다.[265]

8. 소결

김정일과 김정은은 탈냉전 시기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군에 대한 개혁을 실시했다. 장기 군사 복무 기간, 사병 출신 군관 제도, 여성 징병제 도입 등으로 북한군의 조직 형태는 소련 모델에서 벗어나게 됐다. 노동 동원을 포함한 군인의 일과와 가정 생활에 관한 새로운 규칙도 새로운 시대 상황에 따랐다.

물론 지금도 부대 체계, 정치 장교, 군내 당 조직 등에 소련 방식이 남아 있지만, 이는 북한 군대의 경로 의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탈냉전 시대에 북한 군대는 소련 모델에서의 이탈이 심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제 2 절 소련군의 상징의 퇴조

김정일은 상징에 관심이 많았고, 군복이나 군기의 여러 상징들을 다양하게 바꿨다.[266] 어떤 개혁은 새로운 정치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김정일의 미적 취향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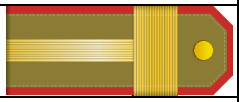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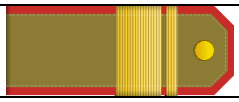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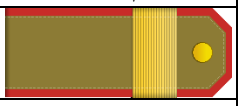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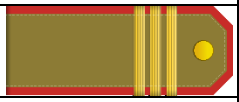
265 “"북한군 '보위 총국'의 실체" (1) 장길산 전 국가안전보위부 인입공작원,” 『블루 투데이』, 2013 년 5 월 20 일,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253.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66 영화 ‘어버이 장군님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계시여’.

1. 현재 계급장 제도

1998 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군사 칭호 제도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군인의 계급장은 다음과 같다.[267]

[그림 5-1] 현재 조선인민군 견장 제도

원수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조선인민군 원수	조선인민군 차수
장령급				
	대장	상장	중장	소장
좌관급				
	대좌	상좌	중좌	소좌
위관급				
	대위	상위	중위	소위
하사관급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전사급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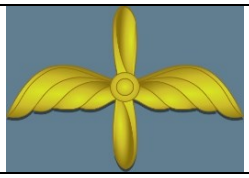
[2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는 사실상 김씨 일가에게만 수여한다. 이들은 실제로 예복만 입기 때문에 이 표에 이들의 계급장은 예복 계급장으로 표시된다.

2. 병과 마크 폐지

군복에 병과 마크를 사용한 이유는 인식의 편리성 때문이다. 마크는 군인 신분 인식에 도움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적의 대표자가 이 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지만 마크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위협보다는 인식의 편의성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동맹국가가 없어졌고, 김정일의 군대는 인식의 편의성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병과 마크는 폐지됐고, 군종 마크만 남게 됐다.

[그림 5-2] 1990 년대 중반부터 사용하는 영장 마크(견장이 있는 군복)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육군 군인</td><td>해군 군인</td><td>공군 군인</td></tr>
<tr><td> </td><td> </td><td> </td></tr>
<tr><td>육군이나 원수급 군관</td><td>해군 군관</td><td>공군 군관</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colspan="3">군관</td></tr>
</table>

3. 병과 군기 도입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은 1993 년까지 인민군기를 사용했지만, 당시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명령 제 0045 호에 따라 인민군기 대

신 육·해·공군기가 도입됐다. 이 군종 깃발에서 '4.25'라는 표시를 찾을 수 있는데, 1978 년부터 북한 당국은 역사 왜곡 목적으로 1932 년 4 월 25 일에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군했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268] 또한 1948 년 2 월 8 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의 날로 보는 것보다는 1932 년 4 월 25 일에 '설립한' 조선인민혁명군이 조선인민군으로 '재편'된 것으로 해서 창군 기념일을 4 월 25 일로 정했다.[269]

1997 년 11 월 6 일에는 김정일이 모든 군기에 자신을 찬양하는 구호인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쓰도록 명령했다.[270] 현재 이 구호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하여**"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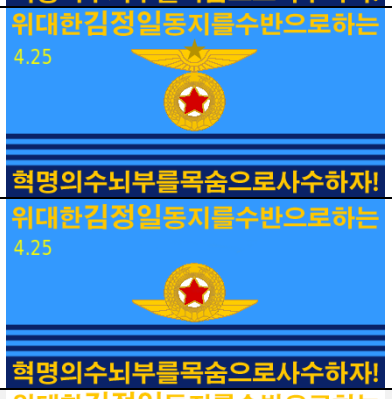
[그림 5-3]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군기

육군 깃발 (1993.11.10-1997.11.6)		
공군 깃발 (1993.11.10-1997.11.6)		

268 북한 당국의 공식 주장에 따라 김일성은 1932 년 4 월 25 일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군하였고, 조선인민혁명군이 만주 항일 운동의 핵심이라고 한다. 또한, 1945 년 8 월 9 일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데 대하여'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련군대와 함께 일본 제국을 쳐부수었다고 한다. 실제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조직은 없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모든 정보는 조작에 불과하다.

269 "북한군 창건일," 『국방일보』, 2008 년 8 월 24 일, https://kookbang.dema.mil.kr/kookbangWeb/m/view.do?ntt_writ_date=20080424&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0203.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270 북한 영화 '어버이 장군님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계시여'.

해군 깃발 (1993.11.10- 1997.11.6)		
육군 깃발 (1997.11.6 부터)		
공군 깃발 (1997.11.6 부터)		
해군 깃발 (1997.11.6 부터)		
육군 깃발 (현재)		

공군 깃발 (현재)	 	
해군 깃발 (현재)		
함수기		

북한 군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앞면과 뒤면에 나오는 그림이 다르다는 것과 군기 뒤쪽에 로동당 마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이 당이라는 것, 그리고 군대도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군종을 상징하는 군기는 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열병식이나 명절 같은 경우 육·해·공군기가 같이 게양된다. 군종 깃발 외에 연대 이상 부대에는 부대 깃발이 있으며 열병식이나 대열 등 군사 의식 때 사용된다.[271]

271 『북괴군 개인전기』(서울: 육군본부, 1976), p. 65; 『적전술편람 제 1 권』(서울: 육군 본부, 1978), p. 51.

1) 비교

북한 군기의 디자인은 독특해서 소련, 중국, 일본과 매우 다르다. 소련에는 육군 군기가 없었고,[272] 일본 제국에서 공군은 군종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군기도 없었다.

단, 중국인민해방군에는 육·해·공군기가 있으며 이들의 디자인은 북한과 비슷한 점도 있다. 바로 군대 창군 날짜를 군기에 표시하는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 역사의 공식 출발점은 1927 년 8 월 1 일 남창 봉기다.[273] 이날 중국공산당 세력은 중국 강서성(江西省) 남창시(南昌市) 중국국민당 정권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고, 며칠 동안 도시를 점령했다.[274] 모택동은 이날을 중국인민해방군 창군일로 선언했다. 따라서 북한 군기에 '4.25'라는 표시가 있는 것처럼 중국 군기에는 '八·一'이라는 표시가 있다.

이로써 중국 군기 디자인이 북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중국 군대 창군일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북한 군대 '창군일'은 북한 당국이 만든 조작(造作)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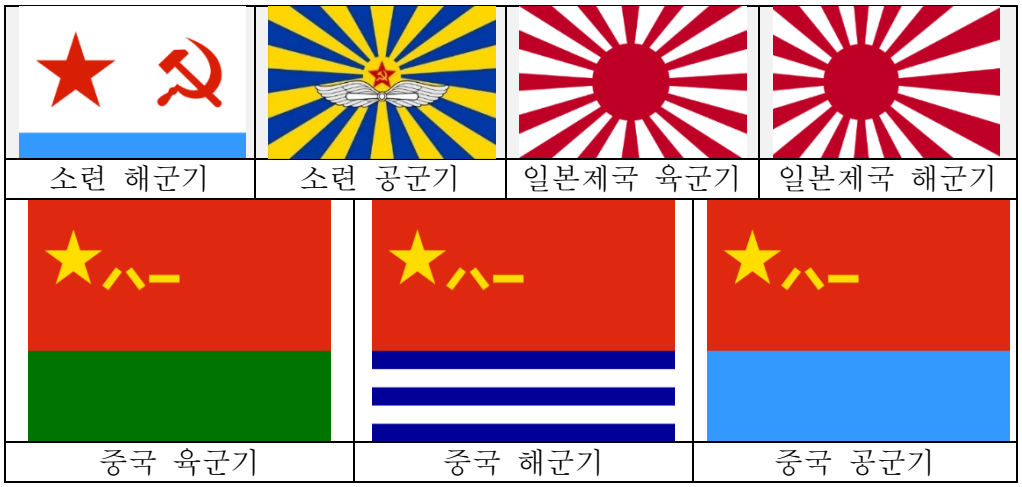
---

[272] 소련 군기에 대해 *Армейские знамёна и флаги ВВС СССР* (소련 육·해·공군기) http://www.vexillographia.ru/russia/USSRarmy.htm.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273] 梅宏(매굉), "军旗升起的地方——纪念南昌起义 80 周年" (군가 게양된 곳: 남창 봉기의 80 주년 기념), 『中国共产党新闻』(중국공산당신문), 2007 년 8 월 29 일, http://cpc.people.com.cn/GB/68742/70427/70428/6184742.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274] "南昌起義"(남창 봉기), 『中華百科全書』 (중화백과대사전), http://ap6.pccu.edu.tw/Encyclopedia/data.asp?id=2592&forepage=3.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그림 5-4] 소련, 일본 제국, 중국의 군기 비교



북한은 군종기를 김정일이 제작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의심할 근거는 없다. 군종기는 김정일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사실로 북한 군종기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4. 최고사령관기

'최고사령관기'는 김정일 시대 초기인 1990 년대 중반 도입됐다.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상징인 이 깃발은 주로 사상적인 역할을 맡았는데 1996 년 5 월 22 일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라는 노래가 로동신문을 통해 보도됐다.[275] 이 노래는 최고사령관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혁명의 령을 넘어 안고온 붉은 기폭에 // 원수 별 아로새겨 영광은 더욱 빛난다**."

그런데 최고사령관기에 있던 별은 넥타이에 붙이는 원수 별이 아니라 공화국 원수 견장에 있는 특대성이다. 2000 년대 특대성을 원수 별로 바꿨는데, 노래 내용에 맞게 깃발 모습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

[275]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로동신문』, 1996 년 5 월 22 일.

[그림 5-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 모양 분석

<table>
<tr><td> </td><td> </td></tr>
<tr><td>공화국 원수 견장</td><td>원수 별</td></tr>
<tr><td> </td><td> </td></tr>
<tr><td>최고사령관 깃발 (2000 년대 초반까지)</td><td>최고사령관 깃발 (현재)</td></tr>
</table>

소련에서 최고사령관기는 1964 년 도입됐고, 붉은 배경 가운데 소련 국장이 위치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최고사령관기는 소련과 매우 다르게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든 것이다.

[그림 5-6] 소련 최고사령관기

5. 소결

탈냉전 시기 북한 상징 체계는 1950 년대 중반 시작됐던 소련 유산 퇴조 과정이 지속됐다. 이 시대에 도입된 북한군 상징들은 사회주의 전통을 따랐고, 오각형 별, 붉은 기 등의 상징들이 계속 사용됐다. 그러나

새로운 상징에서 소련의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 즉, 이 시대 북한 상징 체계는 경로 의존으로 유지해 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제 3 절 소결: 탈냉전 시기 소련의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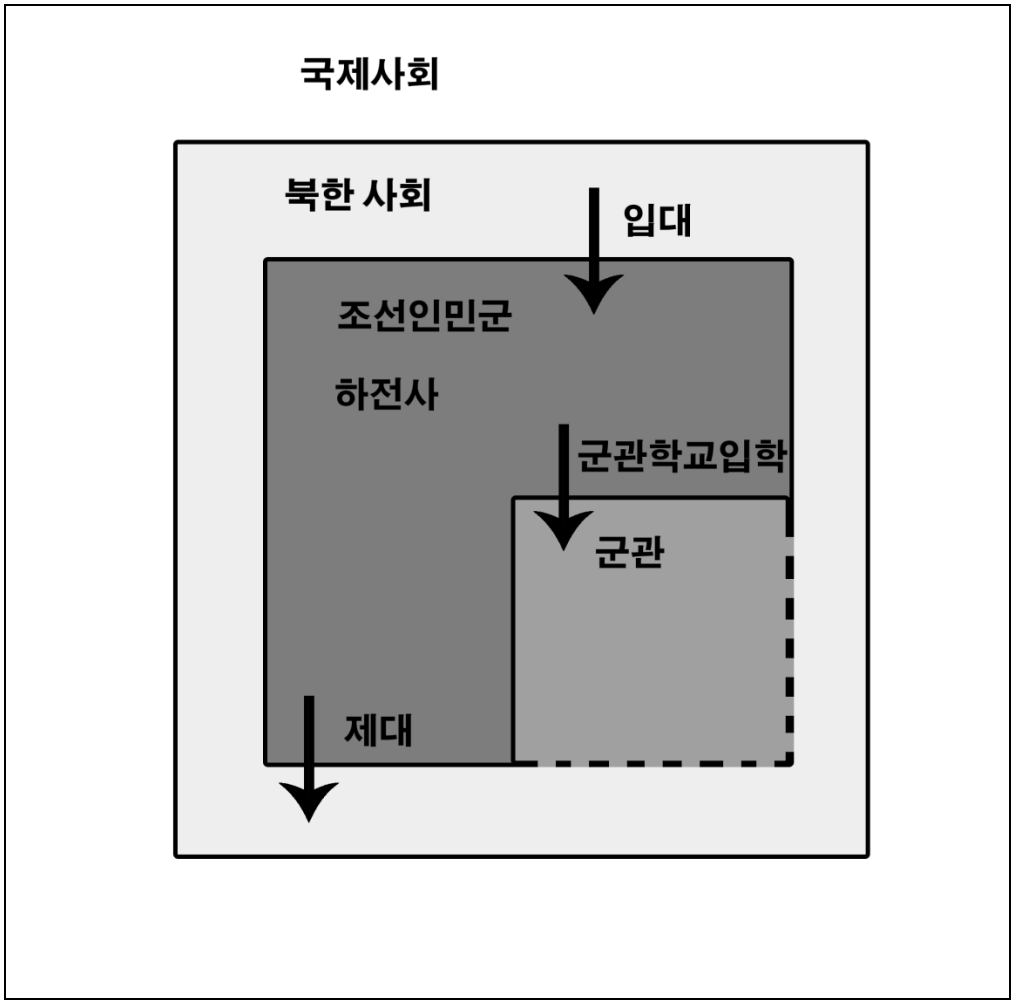
본 논문의 가설들 중에는 “시대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조선인민군은 소련군 원형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의 사회 진화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군대에서의 변화도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초기에 형성된 특성들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가설에 언급했듯이 “단독 발전기(1993-현재)에 (소련의 유산퇴조 상징 분야뿐만 아니라) 북한 편제까지 보이게 되었다”. 이 장에서 서술한 사실들은 명확하게 이 가설들을 뒷받침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사회학 입장에서 분석한다면 특히 닫힌 조직들의 변화 속도는 빠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 군대가 폐쇄성을 갖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자.

1. 북한 군대의 구조적 폐쇄성

북한 사회처럼 북한 군대도 폐쇄적이다. 북한 당국의 사회나 군대에 대한 정책을 요약하면 “극소수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외부와 접근 금지”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 군대는 사회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폐쇄 조직 속에 있는 폐쇄 조직이다.

[그림 5-7] 북한 군대의 구조와 이의 폐쇄성



군관들은 하전사들보다는 민간사회와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군관이 되기 위해 군인은 하전사로 복무를 마쳐야 한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북한 군대는 진화 속도가 느린 조직이 될 수밖에 없었다.

2. 북한 군대의 현대성 평가

북한 군대의 경로 의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민군의 변화 속도를 다른 군대들과 비교해봐야 한다.

이탈리아 출신 군사 학자 마리나 누치아리(Marina Nuciari)는 미국 학자 찰스 모스코스[276]의 연구를 기반으로 사용해 군대 구조의 현대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델을 만들었고 '군사 사회학 편람'에 이를 소개하였다.[277] 이 모델은 군대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정의하고, 이 변수 값에 따라 '근대 시기의 군대', '냉전 시기의 군대', '탈냉전 시기의 군대' 등 3 가지로 나눈다.

다음 표는 이 모델을 표시하는데, 본 연구자는 조선인민군에 해당하는 변수값을 어둡게 표시하였다. 단, 북한에서는 시민사회도 없고 국가로에서 독립된 매체도 없기 때문에 '시민 사회의 군대에 대한 태도'와 '대중매체와의 관계'에서는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다.

[표 5-4] 북한 군대의 현대성 파악

군대에 관련된 변수	근대 시기의 군대	냉전 시기의 군대	탈냉전 시기의 군대
감지된 위협	외국 군대 공격	핵 전쟁	인종간 충돌, 테러 등
군대 편제의 모형	대중 군대	대형 전문직업군	소형 전문직업군
중요 임무정의	조국 보위	동맹국 지지	신형 임무 (평화유지, 인도주의적 임무 등)

[276] Charles C. Moskos. *Towards a Postmodern Military: The United States as a Paradigm* in "The Postmodern Military: Armed Forces After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15.
[277] Giuseppe Caforio,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Berli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06), p. 84.

유세한 군사 직업	전투지휘자	관리자나 기술자	군인정치가; 군인연구원
시민 사회의 군대에 대한 태도	지지	복잡	무관심
대중매체와의 관계	군대에 편입됨	조작(操作)	환심을 삼
군속	주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주요함	주요함
여성의 역할	분리된 부대에 근무하거나 복무 금지	부분적인 집적화	완전적집적화
군인의 배우자와 군대 커뮤니티의 관계	일체로 된 부분	약함	관계가 없음
군내 동성애자	형벌을 받음	제대시킴	용인됨
양심적 병역 거부	제한이 있거나 금지됨	문제 없이 허가함	대체역 가능
국방 예산에 미친 영향	긍정적인	중립적임	부정적인
조직적인 긴장	복무자의 역할	예상 문제	신형임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은 탈냉전, 즉 현대식 군대의 편제적인 특징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 군대의 변경 속도는 다른 군대들보다 매우 느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경로 의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라 사회 조직들의 특징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심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면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1) 한반도에서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현대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북한과 동시 수교한 상태지만,[278]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의 국토가 '전체 한반도 및 부속도서(附屬島嶼)'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냉전 시기처럼 언제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2) 북한은 동맹국가가 없다.

한국전쟁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은 북한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 이름으로 중국 군대를 한반도에 파견했고, 소련은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하며 공군 장교인 비행사를 파견했다. 그런데, 소련이 해체되고 개방·개혁 정책으로 중국이 자본주의화한 이후 새롭게 남북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은 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북한을 돕기 위한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현대 군대의 편제는 주로 동맹을 전제로 전쟁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는데, 북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3) 북한에는 시민사회가 없다.

군대를 변화시키는 세력은 시민사회다. 시민사회는 복무기간 단축, 징병제 폐지, 여성의 군입대 허용 및 남성과 동일한 처우, 동성애자 권리 등을 위해 노력하며 군대는 시민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변화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1967 년 유일사상체계 도입 이후 시민사회도 없고, 북한에 어떠한 단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

[278] 2016 년 기준으로 남북 동시 수교국 157 개, 남한 단독 수교국 33 개, 북한 단독 수교국 3 개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등 있었다. "수교 현황", 『북한정보 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PO017.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참조.

따라서 북한 군대는 '아래에서' 변화되지 않고, '위에서'만 변화된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시민 사회의 압박을 느낄 수가 없어 개혁은 국내 요인보다는 국제 상황 때문에만 실행한다. 이 사실은 왜 북한 군대의 모든 중대한 시점의 원인이 외생 충격인지를 설명해준다.

4) 북한 군대는 비군사적 업무도 수행한다.

군대는 전쟁을 위해 성립된 조직이다. 새로운 군사 업무에 적응하며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군대는 현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중 동원을 사용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언제나 군인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에 직면하였다. 한국전쟁 휴전 협정 이후 북한 군대 역시 군사 과제보다는 건설 프로젝트 등 주로 비군사 과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3. 북한 군대의 전망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학 연구방법으로 어떤 조직의 전망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관찰한 경향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북한 군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북한 군대의 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모든 중대한 시점들의 원인은 외생 충격이었다. 외생 충격이 없을 때 북한 군대는 매우 심한 경로 의존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 군대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외생 충격이 원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충격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외부 공격이나 공격의 실질적인 가능성일 수 있다. 만일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 또는 중국의 공격을 받거나 가까운 미래에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북한 군대는 평화 시대가 종결되고 전시나 준전시 시대가 개막돼 본질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사회·정치 상황 변화가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만일 북한에 원조를 중단하자는 주석

을 선출하는 등의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거나 공산당 정권이 위기에 처하거나 붕괴된다면 북한 당국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에서 개혁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외생 충격이 없다면 북한 군대의 사회적인 특징은 대체로 유지돼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제 6 장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상징분석의 맥락에서 북한 군대의 역사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쓴 논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기본 개념은 경로 의존인데, 북한 군대에서는 경로 의존이 분명히 보인다. 또한 군의 상징에 대한 검토는 북한 군대가 사회주의적 경로 의존 속에서 주체적인 의미 부여를 위해 어떤 시도를 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다.

제 1 절 새로운 연구 방법의 효율성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본 연구의 방법적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북한의 공개적인 공식 담론 분석보다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북한 군대의 역사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상징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군대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좀더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 덕분에 조선인민군을 좀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본다. 기존 연구는 북한 군대의 전환점으로 1962 년 '4 대 군사로선'이나 1998 년 '선군'이라는 개념 도입을 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본 것처럼 '4 대 군사로선'이나 '선군'은 북한 선전이나 공식 담론에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 군대조직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북한 담론에서 '선군 시대'는 분명히 중요한 어휘로 부각되지만 실제 북한 군대의 질적 전환을 나타내는 '선군 시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북한 선전에서는 인민군이 '항일 빨치산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북한 군대의 실제 사회적 특징 속에서 빨치산 부대와의 공통점은 찾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군대의 발전 과정이 공식 담론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이념에 기초한 일당 독재국가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독재국가에서는 조직이나 제도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고 특히 역사적으로 선행한 독재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선군'이나 '군대 제일주의'와 같은 구호를 선언하지만, 이 구호에 따라 어떤 개혁이나 변화가 생각처럼 진행되지는 못한다. 간부들의 경우도 주어진 구호를 찬양하지만 실제 개혁에 대한 명령을 받지 못해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식 담론은 북한 현실에서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군대를 연구하려면 단순히 선전 매체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군대의 사회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의 연구도 담론 분석에 그치기보다는 다양한 사료를 기반으로 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가설 확증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3 가지 기본 가설은 북한 군대가 소련형 사회주의 군대로 세우게 됐다는 것, 시대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조선인민군은 소련군 원형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는 것,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의 사회 진화 속도는 빠르지 않아 군대에서 초기에 형성된 특성들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본론에 상기한 것처럼 소련 군대는 조선 반도의 북반부를 점령해 북한에서 대한제국이나 식민지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소련형 사회주의 나라를 설립하도록 했다. 동유럽과 달리 북한 창군(創軍) 때 기존 정권의 경험은 무시됐고 북한 군대는 소련형 군대로 창군되었다. 8 월 종파 사건

이후인 1950 년대 후반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해 소련의 영향이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동시에 김일성 정권이 강화되면서 북한 사회와 북한 군대는 더욱 폐쇄적인 조직이 됐다.

그리고 폐쇄적인 조직의 변화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북한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 소속이 아니라 소련의 정치적 통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동유럽 나라들보다 더 느리게 변화했다. 이를 사회학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 군대에서 경로 의존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고, 이 경로는 곧 소련 당국이 세운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은 '중대한 시점'인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 군사(軍史)의 중대한 시점을 1956 년 징병제 도입과 1993 년 장기 복무 기간 도입이라고 본다. 첫 번째 시점은 북한 군대를 평화 시기의 군대로 변화시켰는데 이 시기 북한 군대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국 영향도 받게 되었다. 두 번째 시점은 북한의 탈냉전 상태 적응의 결과였고, 이 시기 북한 군대는 다양한 비군사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좀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 군대의 기원: 외생 충격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조직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는 '외생 충격'이다.[279] 어떤 외력(外力)이 조직을 설립하거나 조직의 본질을 강제적으로 변경시킨다는 것이다. 북한 군대에서 이런 외생 충격은 1945 년 소련의 점령이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외생 충격'이 무엇보다 심한 변경을 가져온다고 한다. 북한 군대의 초창기를 살펴보면 이 주장이 옳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79] Adam Sheingate, *The Oxford Handboo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 58.

무엇보다도 창군시기 북한 군대에서 일본 제국의 유산은 거의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점령 당국과 그들에게 보필했던 항일운동 출신 조선인 엘리트는 일본 제국 군대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제국주의적 군대'로 보고 매우 비판적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일본 군대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반면에 북한 군대는 소련군의 모델을 매우 철저하게 답습했다. 1950 년 한국전쟁 발발까지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실행할 수 없었고, 모든 결정을 데렌티이 시트코프(Терентий Штыков) 상장을 비롯한 소련 간부들이 하달했다. 군대조직이나 편제는 물론이고 1948 년 북한군 창군 당시 구조, 규칙, 견장 등 상징체계도 대부분 소련에서 차용했다.

이 외생 충격은 북한 군대 역사상 유일한 것이어서 조선인민군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전쟁에서의 '중국인민지원군' 참전이나 비교적 친밀한 북중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대는 중국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다. 중국의 형상대로 창조된 북한의 준군사 조직과 달리 조선인민군에 미친 중국의 영향은 미미하다. 중국의 영향은 1950 년대 이후 도입된 편제와 상징적 특징(당 중앙군사위원회, 군종기 등)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 이 역시 북한 군대의 경로 의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56 년까지 거의 모든 북한군의 변화 원인은 소련 당국의 결정 또는 소련군의 전통이었다. 그런데, 1956 년 이후 북한군의 전통 자체는 원인이 되어 북한군에 경로 의존이 보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북한 군대의 느린 변화 속도: 경로 의존

소련 당국에 의해 형성된 북한 군대는 현재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각각의 분야를 살펴보면 군대 창립 시기 특징 대부분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의 군종과 부대 구조는 소련 군대에서 가져온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계급 제도는 1952 년 도입됐고, 엘리트 계급을 제외하면 유일한 계급 개혁은 1998 년 상등병 계급 분리였다. 군대 내 당과 청년동맹 조직도 1940-50 년대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치 지도원이나 보위 지도원의 임무도 변경되지 않았다.

북한 군의 상징 중에는 수십년간 변화 없이 남아 있는 것도 많다. 특히 1940 년대 후반 도입한 소련식 군복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군복의 구조나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사회주의 군대의 상징인 오각형 붉은 별이나 붉은 기도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조선인민군의 군인 생활방식을 정하는 규칙들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군인의 일과는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더 많다.

한편, 이 모든 사실을 경로 의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과 사회 조직들은 관성(慣性)이 있다. 즉, 기존 특징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는 필요가 없고, 변경을 위한 이유는 필요하다. 이러한 특징은 인간의 본질인 것 같다. 이 때문에 조직 설립 당시 특징들은 앞으로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의 발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북한 군대에는 경로 의존이 다른 조직들보다 더욱 심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본 연구 제 3 장 소결에서 본 것과 같이 조선인민군은 탈냉전 시기 군대로 볼 수 없으며, 근대 시기와 냉전 시기 특징을 결합한 군대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북한 군대·사회 관계, 조선인민군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1) 북한 군대의 폐쇄성과 열린 조직론

사회 조직론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열린 제도론'이다. 이 이론은 조직 변화의 핵심적이면서 유일한 이유로 외부 영향을 본다.[280] 이 이론을 적용하면, 모든 조직은 외부 영향을 받는 수준에 따라 '열린-폐쇄 조직' 차등제로 놓을 수 있으며 열린 조직의 변화 속도는 폐쇄조직보다 높다고 본다.

물론, 완전히 열린 사회 조직과 완전히 닫힌 사회 조직은 존재할 수 없다. '사회적인 것' 자체가 완전히 폐쇄적인 것일 수 없으며, '조직' 자체의 한계가 있어야 해 완전히 열린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극단을 제외하면 사회 조직마다 열림의 수준이 매우 다르다.

군대는 사회 조직에서 가장 폐쇄적인 조직 중 하나다. 그러나, 현대 북한 군대는 일반 군대보다 더욱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에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의 군사 개혁 중에는 군대의 폐쇄성을 높이는 개혁들이 있었지만, 이를 줄이는 개혁들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1956 년 일반적인 징병제 도입이다. 기존 비상동원 제도의 대상은 모든 사회 계층의 성인이었고, 징병제 대상은 '적대 계층' 출신자가 아닌 청년 남성뿐이었다. 이는 군대를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둘째, 복무 기간 연장이다. 군인은 복무할 때 사회에서 분리되는데 복무기간이 길수록 군대의 폐쇄성은 강화된다.

셋째, 1990 년대 김정일이 도입한 병사 출신 군관 제도도 군대의 폐쇄성에 기여했다. 원래 군 간부인 군관은 민간인 출신이었고, 군관학교 교육만 받아 입대했다. 그런데, 병사로 복무한 사람을 군관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랫동안 민간사회에서 분리되게 됐다.

---

[280] W. Richard Scott. *Organizations: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5th ed. (Upper Saddle River: Pearson Education, 2003), p. 91.

넷째, 북한 군대는 일반적으로 군인의 외출을 받지 않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모 사망과 같은 비상 경우에도 외출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국군과 같은 일반 군대와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인다. 이 정책은 물론 북한군대의 폐쇄성에 심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사회의 상징적인 군사화가 군대 폐쇄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회는 군대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되면, 군대 자체가 덜 폐쇄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군사화 과정은 군대 영향이 아니라 당국 정책에 따라 진행됐다. 군사화의 대상은 사회 구조보다는 사상이었다. 즉, 본 논문의 4 장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의 군사화 캠페인은 군대와 사회를 친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동원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 제 5 장에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 군대는 폐쇄적인 사회 안에 있는 폐쇄적인 조직으로 봐야 한다. 열린 제도론에 따르면, 폐쇄적인 조직들의 발전 속도는 비교적 느린데 북한 군대가 이런 조직이라는 것을 연구 가설의 또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매우 높은 폐쇄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민군의 유의미한 변화의 원인은 바로 외부 세상과의 상호 작용이었다. 국제 상황이 북한군에 미친 영향을 이미 보았고, 북한군과 민간 사회의 상호 영향을 분석해 보자.

3. 북한 군대와 사회의 상호 영향

북한 군대는 폐쇄적이지만, 민간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조직이다. 이 때문에 사회와 군대는 상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시민사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다. 이 때문에 북한 사회는 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단 북한당국의 군대

에 대한 정책은 사회 특징을 고려하는데, 부패 등 현대 북한의 특징들은 북한 군대에도 작용한다.

1) 북한 사회가 군대에 미친 영향

첫째, 주민 성분은 입대 가능성과 진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간 사회 구조는 군대에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

둘째 요인은 부패다. 북한은 부채 수준이 높아 군사 동원부에 뇌물을 주면 보다 나은 군종이나 부대에 파견될 수도 있다. 즉, 사회의 소득 구조도 군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북한 당국은 비효율적인 계획경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 동원을 통해 군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한다. 즉 군대에서 비군사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2) 북한 군대가 사회에 미친 영향

첫째, 북한 주민의 입대 계기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입당 기회다. 제대 군인 대부분은 당원인데, 로동당 당원 중 군사 복무 경험이 있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둘째는 북한 민간 사회에서도 군사 상징이 차용됐다. 법집행 기관, 민간 기관 등에서 군사 칭호와 군복을 사용하며, 공식 담론에서 '전투', '전선' 등 군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조직 변경을 규칙 변경, 임시 규칙 도입, 규칙 위반 등 3 가지로 나눈다. 조직에서 변경이 축적돼 비공식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사실상 '규칙 위반')가 많지만, 군대는 그렇지 않다.

군대에서 규칙 위반은 곧 범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변화는 공식적으로, 즉 당국의 결정으로만 진행될 수 있다.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는 더

욱 그렇다. 다른 조직처럼 조선인민군에도 경로 의존이 보이지만, 이 의존성은 더욱 크다.

제 3 절 북한 군대 변화의 중대한 시점: 지체된 반응

역사적 제도주의에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개념이 있다. 조직에 점진적인 변화가 없다면 전제(前提)가 쌓이면서 짧은 기간에 변화가 실행되기 마련이다.[281] 이 변화의 시기를 바로 '중대한 시점'이라고 한다.

본 논문의 결과 중 하나는 북한 군대 역사에 두 가지 중대한 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바로 1956 년과 1993 년이다.

1956 년까지 북한 군대에는 정상적인 징병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군대를 비상 동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평화 시기가 아니라 전시에 적용되는 방식이었다. 1956 년 동원 체제가 해제되고 징병제가 도입되면서 북한 군대에 평화 시기가 시작됐다.

이때부터 1990 년대 초까지 북한 군대의 대부분 특징을 결정한 기본적인 요인은 냉전 상태였다.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일부였고, 한반도 전쟁 발발은 제 3 차 세계대전 발발을 초래할 수 있어 무력 통일은 실제로 불가능했다. 즉, 이 시기 북한은 분단 국가라기보다 냉전 시대 국가로 봐야 한다.

두 번째 중대한 시점은 1993 년이다. 이 때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군사 복무 기간을 10 년으로 연장했다. 냉전 종결 이후 북한은 소련(1991 년 이후 러시아)과 중국의 원조를 받지 못해 홀로 한미동맹에 대응해야 했다. 북한 군대에서 복무를 연장한 것은 이러한 상황의 결과였다. 현재 북한 군대에서 10 년인 남성의 복무 기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

[281] Adam Sheingate, *The Oxford Handboo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 77.

이를 설명하려면 청년들이 사회의 가장 활동적인 세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면 북한 당국은 그들을 통제하고 국가 사상을 주입할 수 있다. 이로써 청년들은 어떠한 반체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즉, 북한 군대가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해 군사 복무 제도는 북한 체제의 안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군대의 중대한 시점에서 지체된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군대는 어떤 사회적 변화 직후가 아니라 2-3 년 지나 바뀌었다. 한국전쟁은 1953 년 끝났지만, 정상적인 징병제는 1956 년에 도입됐으며, 냉전은 1991 년 끝났지만, 복무 기간 10 년 공식 연장 결정은 1993 년에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군대가 다른 사회 조직과 달리 공식 결정으로만 변화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국이 새로운 시대가 개막한 것을 이해하고 군사 개혁에 관한 명령을 하달하면 변화가 나오는데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제 7 장 결론

본 연구는 북한 군대를 역사적 제도주의와 상징분석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소련모델의 역사적 유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북한은 소련의 이념과 체제모델에 기초하여 건국된 나라이며, 1940 년대 후반 모든 중요한 결정 역시 소련 당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이루어졌다. 북한 군대의 창건과 편제 역시 소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동구권 나라들과 달리 북한에서 소련 당국은 기존 정권의 경험을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만큼 조선인민군이 받은 소련의 영향은 더욱 컸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1950 년대 중반까지 조선인민군이 소련 모델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차용하게 했다. 당시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정치 엘리트 대부분은 소련을 '완벽한 사회주의 나라'로 보았던 만큼 이러한 과정이 별다른 장애 없이 진행됐다. 그 결과로 북한군의 부대 편제, 계급체계, 정치장교 제도, 군내 당 기관의 체계 등 조직적 특성과 수많은 상징들을 소련에서 가져오게 된 것이다.

중요한 점은 북한이 러시아 혁명 직후의 '사회주의' 모델이 아니라 스탈린 시대 '소련'의 모델을 차용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1948-1952 년 사이 군사 계급을 대신해 사용했던 군사 직위 제도와 정치장교 제도는 레닌 시대의 소련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스탈린 사망과 8 월 종파 사건 이후 북한은 소련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북한 군대에는 소련의 유산이 점점 퇴조하게 됐다. 1950 년대 중반 이후 실행한 개혁들의 대다수에서 소련 유산의 영향이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중국의 영향도 있었고 북한 주체적인 변형을 추구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주로 상징과 문화, 담론의 영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60~70 년대를 거치면서 인민군대의 역할이나 정체성에 북한 나름의 주체적 변형의 노력이 반영되었음이 분명하

다. 하지만 적어도 군대조직의 경우 그 핵심은 소련모델을 따랐던 역사적 경로의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역사적 지속성은 1991 년 소련 해체로 냉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여전하게 발견된다. 이 시기 대표적인 개혁은 장기 복무 기간 도입과 군관 양성 방식 변경이었다. 10 년으로 연장된 복무 기간과 병사 출신 군관 제도는 소련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는 북한 군대에서의 소련 유산 퇴조에 기여했다. 또한 이 탈냉전 시기 북한 군대에서는 노동 동원이 훨씬 대규모로 일어났으며, 상징 분야에서도 소련과 완전히 다른 여러 상징들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북한 군대의 핵심적인 구조와 상징 제도는 소련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를 '경로 의존'이라는 사회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건국과 역사적 발전은 북한 군대의 '경로 의존'이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본다.

즉, 지금까지도 북한 군대의 틀을 구성하는 원리는 '소련식 모델'에서 유래한 것이라 주장해도 과장이 아니며, 소련 군대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 군대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군대가 소련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소련 사료 기반으로 깊게 분석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소련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시킨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공개 자료를 비롯해 러시아 도서관과 기록원들에 보관돼 있는 소련과 북한 자료, 대한민국 국군정보사령부와 육군본부가 발행한 문서, 유출된 북한 기밀자료를 활용했으며, 북한 군인 출신자 9 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모든 사료들과 인터뷰 대상자들의 증언은 연구의 기본 가설들을 뒷받침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경로 의존'이라는 사회학의 기본 개념을 북한 군대에 적용해 북한이 폐쇄적인 나라이며 조선인민군은 특이한 사회 조직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 북한 군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북한 군대에는 소련의 경로 의존이 분명히 보인다.

앞으로 연구자들은 이 주제를 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새로운 사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북한 군대를 지금보다 더 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 1940 년대의 북한 관련 사료가 대부분 이미 기밀 해체됐지만, 북한 체제 개방이나 붕괴 시 연구자들은 북한 기록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연구자들은 모든 북한 군사 규칙과 규율, 군내 매체, 북한 당국의 기밀 명령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료가 기반이 된다면 북한 군대를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때는 1950 년대 중반의 군대 숙청, 1957 년 최용건을 민족보위상에서 사임시키고 공화국 차수 칭호를 박탈한 일, 1967 년 유일사상체제 도입, 1960 년대 후반 김광협 대장 등 숙청, 프룬제 군사대학과 제 6 군단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의 배경과 진행과정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자들은 북한 역사를 더 깊게 파악해 더욱 자세한 북한 군사(軍史)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내 유동성, 출신성분과 계층에의 진급 의존 등 현재에 파악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북한 군대의 조직과 상징 제도에 대한 모든 개혁을 빠짐 없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분석도 더 깊은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기록원 개방은 북한학 전체에 혁명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북한 군사 연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참고 문헌

북한 문헌

정기물:

- 로동신문
- 조선인민군
- 군인생활

“공업 생산 및 기본 건설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는 민청 단체들을 표창할 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14호, (1958), p. 22.

“군사칭호,” 『백과전서 제 1 권』(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 521.

“조선인민군 상급 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규집』(평양: 국립출판사, 1961), pp. 365-369.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을데 대하여 주신 지시』(평양: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2010), (절대비밀).

『모든 군무생활을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1998), (대내에 한함).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 인민군대는 무적 필승의 혁명적무장력이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당안에 한함).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군 기률규정』(평양: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55).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군 내무규정』(평양: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55).

『조선 인민군 군인 봉급 규정』(평양: 민족보위성 재정국, 1955), (비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 185 조 (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 2012.

김상선·리성히, 『주민등록사업참고서』(평양: 사회안전부 출판사, 1993), (절대 비밀).

리권무,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8).

남한 문헌

● 평양소련 대사관 비밀서철

"북한군 '보위 총국'의 실체" (1) 장길산 전 국가안전보위부 인입공작원," 『블루 투데이』, 2013 년 5 월 20 일,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253.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1952 년 12 월 31 일 정령 "조선인민군 상급 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의 일부를 변경함에 관하여," 『북괴법령집』, (서울: 국토통일원, 1971), pp. 370-372.

"2011.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p. 39, https://www.unikorea.go.kr/cwsboard/board.do?mode=download&bid=1031&cid=19750&filename=19750_201405142001003830.pdf.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4 대군사노선,”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koreanChrctr=&dicaryId=10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교도대,”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3&koreanChrctr=&dicaryId=12.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군 복무기간별 국가표창,” 『탈북자 동지회』, http://nkd.or.kr/pds/nk/view/9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군대내 당 조직에 관하여,” 『北韓關係史料集 제 30 권』(경기도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8), p. 37.

“군대내 민청 조직에 관하여,” 『北韓關係史料集 제 30 권』(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98), p. 38.

“군사제도,” 『북한 자료센터』, http://munibook.unikorea.go.kr/?sub_name=information&cate=1&state=view&idx=86&page=3&ste.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http://www.uniedu.go.kr/uniedu/etc/nkKnowldgDictionary/view.do?nkKnowledgeDictSn=31.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5&koreanChrctr=&dicaryId=3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노농적위군,” “북한 지식사전,” 『통일부』,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6&koreanChrctr=&dicaryId=4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북한 인민군은 10 년 복무,” 『DailyNK』, 2007 년 1 월 8 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35446.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북한군 창건일," 『국방일보』, 2008 년 8 월 24 일, https://kookbang.dema.mil.kr/kookbangWeb/m/view.do?ntt_writ_date=20080424&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0203.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북한군 해부③," 『인민군의 군사제도』,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2358&project=18.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북한군, 여성 '의무복무제' 올해 4 월부터 실시," 『DailyNK』, 2015 년 1 월 27 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105446&cataId=nk04500.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수교 현황", 『북한 정보 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PO017.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인민 군대내 당 정치사업 진행정형과 그 강화를 위한 금후제대책에 대하여," 『北韓關係史料集 제 29 권』(경기도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8), p. 18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조선인민군 군무자 봉급규정 선포에 대하여," 『北韓關係史料集 제 8 권』, (경기도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89), p. 640.

"평양의 눈. 남북돋보기: 남북한 군생활의 비교," 『북한 전략 센터』, 2014 년 5 월 14 일, http://www.nksc.co.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4&num=11367.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북괴군 개인전기』, (서울: 육군본부, 1976).

『북괴군 경보병대대 소개』, (서울: 육군 사령부, 1978).

『북괴군 연대전술』, (서울: 정보사령부, 1974).

『북괴군참모업무』, (서울: 육군본부, 1977).

『북한군의 불편한 진실: 탈북 군인 이야기』, (성남: 대한출판사, 2013).

『北韓全書』, (서울: 極東問題硏究所, 1974).

『北韓總覽:'45-'68』, (서울: 共産圈問題硏究所, 1968).

『北韓總覽』, (서울: 北韓硏究所, 1983).

『적전술편람』, (서울: 육군본부, 19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 28 조』,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recom=1&state=view&idx=93.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中國人民解放軍史』, (서울: 國防軍史硏究所, 1998).

姜聲才, 『참軍人 李鍾贊장군: 軍의 정신적 代父 그의 評傳』, (서울: 東亞日報社, 1987).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北韓硏究學會報』, 2 호, (2008), pp. 33-64.

_____, "북한 군 창설기 문화군관의 지위와 역할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8 권, 1 호, (2004), pp. 19-38.

_____, "북한군의 차기 수뇌부 구성과 성격 연구,"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0 권, 1 호, (2007), pp. 111-148.

_____, "북한의 위기전망과 대응방안," 『전략연구』 16 권, 3 호, (2009), pp. 7-36.

_____, 『북한 인민군 정치기관 특성연구 (1945~1950)』, (서울: 통일부, 2002).

교도통신사, 2014 년 9 월 20 일, "北 여성도 '징병제' …만 17 세부터 7 년간," 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4/09/098171.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권오국, “장민수 전 철도성산하 신의주분국 신의주 철길대원: "지선에서는 아직 증기기관차가 한몫 한다",” 『통일한국』, 24 권, 3 호 (2006), pp. 84-87.

김동엽,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17 권 제 2 호, (2013), pp. 87-117.

_____.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명섭, “한국전쟁이 냉전체제의 구성에 미친 영향,” 『국제정치논총』, 43 권, 1 호, (2003), pp. 115-133.

김병로, “북한 체제의 형성·발전과 중국 조선족 사회,” 『해외자료로 본 북한 체제의 형성과 발전 I』, (서울: 선인, 2006).

김영운. “탈북 수기: 군인 선서와 병사 시절,” 『겨레얼통일연대』, 2014 년 6 월 3 일, http://hanapd.com/~nkplf/board.php?board=skin1b603&page=2&command=body&no=74.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김중생, 『조선 의용군의 밀입북과 6.25 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pp. 142-151.

김태일·김용현, “북한 권력 내부의 당·정·군 관계 지도인맥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31 권, 9 호, (1996), pp. 63-83.

나영주, 『中國人民解放軍의 役割 變化』,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呂政, 『붉게 물든 대동강』, (서울: 동아일보사, 1991).

박균열, “북한 군대문화의 형성과정과 평가,” 『윤리교육연구』, 1 권, (2001), pp. 1-22.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파주: 나남, 2002).

_____,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 1-2 권, (서울: 나남, 1996).

박성용, “북한의 해양 비대칭 전력과 한국의 해양안보: 비대칭적 위협 양상 및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정치정보연구』, 14 권, 2 호, (2011), pp. 105-130.

박형중, “'선군시대' 북한의 경제정책: 2002 년 7 월 조치 이후 9 월의 '중공업 우선 발전'론의 대두,” 『아세아연구』, 46 권, 2 호, (2003), pp. 11-32.

박휘락,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전략연구 통권』, 57 호, (2013), pp. 273-307.

백학순 등,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파주: 한울, 2007).

백한순, “북한 정치에서의 군대: 성격, 위상, 역할,” 『세종정책연구』, 4 호 (2011), pp. 13-17.

변창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안보외교전략,” 『통일전략』, 9 권, 1 호, (2009), pp. 9-40.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통일문제연구』, 제 8 권, 2 호, (1996), pp. 159-193.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서울: 자료원, 1995).

션즈화 (沈志华), 김동길 역, 『조선전쟁의 재탐구』, (서울: 선인, 2014).

오창은, “선군시대 북한 농촌 여성의 형상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13 권, 2 호, (2010), pp. 84-117.

와다 하루끼 (和田春樹), 『朝鮮戦争全史』, 서동만 역, 『한국전쟁』, (파주: 찬비, 2003).

이달희, “북한 공식 발표 국방비의 진실 게임,” 『국방정책연구』, 70 권, (2005), pp. 137-163.

이명, “북한의 자랑, 평양 지하철,” 『北韓』, 532 권, 4 호 (2016), pp. 122-130.

이상용, “北여성 軍복무제, 돈 앞에 ‘무릎’…“뇌물로 면제 받아”,” 『DailyNK』, 2015 년 5 월 14 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5&num=10609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이정연, 『북한 군에는 건빵이 없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이휘성, "김정은 一族의 독재강화와 북한 小黨의 존재이유," 『DailyNK』, 2014 년 7 월 2 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10&num=104035.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_____, "북한, '國章 교체'에서도 김일성 우상화 빼놓지 않았다," 『DailyNK』, 2014 년 9 월 11 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10&num=104623.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_____, "태극기 삭제와 인공기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역사왜곡," 『DailyNK』, 2014 년 6 월 17 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10&num=10388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임옥규,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 형상된 주도적 감성," 『남북문화예술연구』, 14 호, (2014), pp. 243-266.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5 권, 3 호, (2012), pp. 146-202.

張受錄, "북한주민의 하루/광부: 후보당원에 맡겨진 '속도전 돌격대'," 『北韓』, 1 호 (1986), pp. 122-126.

張浚翼, 『北韓 人民軍隊史』, (서울: 서문당, 1991).

정성임, "북한의 민군관계: 군의 성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6 권 1 호, (2012), pp. 25-59.

_____,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 과 권력 승계 문제』, (경기도 성남: 세종연구소, 2013).

조웅. “남·북한 장교 양성제도 비교 연구.” 東國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2003.

한상용. “북한군 병영 문화 연구: 선군 시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한용원, “남북한 군대 창설과정 비교: 1945-1948,” 『남북한 정부수립과정 비교, 1945-1948』, (고양: 인간사랑, 2010).

_____, 『남북한의 창군: 미·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 오름, 2008).

許東粲, “조선인민군의 건설(1945. 8. 15-1950. 6. 25),” 『국제문제연구』, 16권 1호 (1992), pp. 67-107.

현성일, 『북한의 국가 전략과 파워 엘리트: 간부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외국 문헌

“Kim Il Sung addresses North Korean Army on their second Anniversary at Pyongyang Rail Road Station”, *Critical Past*, http://www.criticalpast.com/video/65675028811_Kim-Il-Sung-on-North-Korean-Armys-Anniversary_Tower-of-Liberation_Army-bands.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282]

“Japanese military police” in Handbook on Japanese Military Forces (TM-E 30-480),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4), pp.83-84.

“Manchukuo”,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orm Insignia*, http://www.uniforminsignia.org/?option=com_insigniasearch&Itemid=53&result=1336.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Abbott, Andrew Delano. *Methods of Discovery: Heur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4).

[282] 제목은 동영상의 실제 내용과 다르다.

Barker, A.J., *Japanese Army Handbook* (Shepperton: Ian Allan Publishing, 1979).

Berger, Adolf,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Vol. 43*,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68).

Bermudez, Joseph S.,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London&New York: I.B. Tauris&Co., Ltd., 2001).

Carreiras, Helena, *Gender and the Military: Women in the Armed Forces of Western Democracies* (Abingdon-on-Thames: Taylor & Francis, 2006).

Collins, Randall, *Interaction Ritual Chai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Durkheim, Emile,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1995).

Gabroussenko, Tatiana, *Heroes Raising Heroes: Changing Narrative of the Honourable Veterans in the North Korean Propaganda*. [283]

Giuseppe Caforio,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Berli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06).

Goffman, Erving. *Characteristics of Total Institutions*, http://www.markfoster.net/neurelitism/totalinstitutions.pdf.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Handbook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Washington: Department of Defense, 1984).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orm Insignia. Yugoslavia 1943-1992 (Socialist Federal Republic), http://www.uniforminsignia.org/index.php?option=com_insigniasearch&Itemid=53&search_id=main&state=219&search_id=top.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Kim, Sang Won, "The Chinese Civil War and Sino-North Korea Relations, 1945–5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7, No. 1, 2014, pp. 91-113.

283 미발간 원고.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Miyoshi Jager, Sheila. *Brothers at War: The Unending Conflict in Korea* (London: Profile Books, 2013).

Mongolian People's Republic: Outer Mongolia, (New Haven: Human Relations Area Files: 1956).

Moskos, Charles C. *Towards a Postmodern Military: The United States as a Paradigm* in "The Postmodern Military: Armed Forces After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Mulvenon, James C., Yang, Andrew N. 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s Organization* (Santa Monica: Rand, 2002).

Myers, Brian. *The Cleanest Race: How North Koreans See Themselves - and Why It Matters* (Brooklyn: Melville House Publishing, 2010).

Perlmutter, Amos, "The Praetorian State and the Praetorian Army: Toward a Taxonom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Developing Polities," *Comparative Politics*, Vol. 1, No. 3 (1969), pp. 382-404.

Sanders, Alan, *Historical Dictionary of Mongolia* (Lanham: Scarecrow Press, 2003).

Scott, W. Richard. *Organizations: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5th ed. (Upper Saddle River: Pearson Education, 2003).

Seth, Michael J. *A Concise History of Modern Korea: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10).

Shanafelt, Robert, "The Nature of Flag Power: How Flags Entail Dominance, Subordination, and Social Solidarity," *Politics and the Life Sciences*, Vol. 27, No. 2, (2008), pp. 13-27.

Sheingate, Adam, *The Oxford Handboo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Siebold, Guy L., "Core Issues and Theory of Military sociology,"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Vol.29 (Summer 2001), pp. 140-159.

Suh, Jae-Jung, *Origins of North Korea's Juche: Colonialism, War, and Development*,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3).

Tertitskiy, Fyodor, "1967: Transition to Absolute Autocracy in North Korea" in *Change and Continuity in North Korean Politics* (Abingdon-on-Thames: Routledge, 2016), pp. 82-94.

_____, "Star and Stripes: History of the North Korean Flag and its Place in State Ideology,"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vol.3, (2016), pp. 265-284.

Uniform Insignia, Equipment: North Korean Army (Tokyo: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ern Command, 1950).

"Форменная одежда" (제복), Российский уголь (러시아 석탄 공업). http://www.rosugol.ru/museum/mundir.php.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Андрей Кокошин (안드레이 코코쉰), Геннадий Осипов (게나디이 오시포브), *Политология и социология во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군사 전략 사회·정치학 연구) (모스크바: УРСС(우르쓰), 2005).

Армейские знамёна и флаги ВВС СССР (소련 육·해·공군기) http://www.vexillographia.ru/russia/USSRarmy.htm.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Веремеев, Юрий (유리 웨레메예프). *Оплата воинского труда: Денежное содержание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군사 복무 지불: 소련 군인 임금), http://army.armor.kiev.ua/hist/finansy.s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_____. *Знаки различи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РККА по званиям. 1935-40 гг.* (노동자·농민의 붉은 군대 군인의 계급장, 1935-40 년), http://army.armor.kiev.ua/forma/rkka-35-40.php.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_____. *Знаки различи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РККА по служебным категориям. 1924-34 гг.* (노동자·농민의 붉은 군대의 급수 및 급수장. 1924-1934 년), http://army.armor.kiev.ua/forma/rkka-24-34.php.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_____. *Знаки различия звани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расной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1943-54гг.* (붉은 군대와 소련 군대의 계급 및 계급장. 1943-1954 년), http://army.armor.kiev.ua/forma/rkka-43-54-01.php, http://army.armor.kiev.ua/forma/rkka-43-54-02.php, http://army.armor.kiev.ua/forma/rkka-43-54-03.php.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_____. *Иерархия воинских формирований* (군 부대 단위 제도), http://army.armor.kiev.ua/hist/ierarx.s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_____. *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ая Красная Армия 1940-1942 гг.* (노동자·농민의 붉은 군대. 1940-1942 년), http://army.armor.kiev.ua/titul/rus_8.s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_____. *Анатомия армии* (군대의 해부) http://army.armor.kiev.ua/.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_____. *Красная Армия в нача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Как готовились к войне солдаты и маршалы* (제 2 차세계대전 초기에 붉은 군대. 병사와 원수들 어떻게 전쟁에 대비하였는가), (모스크바: Litres, 2016).

Военный совет (군사위원회),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ом 3 (소련 군사 백과사전 제 3 권), 모스크바: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소련 국방부 군사출판사, 1979), pp. 273-274.

Декларация Совета Республик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в связи с созд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독립국가연합을 설립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최고 소비에트 공화국 소비

에트의 선언); http://www.uni-potsdam.de/u/slavistik/zarchiv/1296m/k242-14.htm.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Декретъ Совѣта Народныхъ Комиссаровъ (인민위원회의 명령), 1918 년 1 월 15 일, (날짜는 당시 사용했던 율리우스력에 따라 작성), http://www.istorya.ru/imagens/sobytya/rkka-dekret.gif.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Красные знамена (붉은 기),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소련 백과대사전), http://allencyclopedia.ru/37892.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Кудашкин, Александр (알레트산드르 쿠다쉬킨), *Военная служб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прав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러시아 연방에 군사 복무. 법률 조절의 이론과 실천), (모스크바: Litres, 2015).

Кузьмин, Сергей (세르게이 구지민), *Легитимация теокра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монголь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в начале XX в.* (신권정권의 합법화와 20 세기 초에 몽골의 독립 복원) в кн. *Россия и Монголия в начале XX в. Дипломатия, экономика, наука, кн. 3, ч. 1*. (20 세기 초에 러시아와 몽골. 외교술, 경제, 과학 등. 제 3 권 제 1 장) (이르쿠츠크: БГУЭП(바이칼 국립 경제 법학 대학교 출판사), 2014), pp. 48-67.

Ланьков, Андрей (안드레이 란코프), *Август, 1956 год. Кризис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1956 년 8 월. 북한의 위기) (모스크바: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러시아 정치 백과사전), 2009).

Мзареулов, Валентин (왈렌틴 므자레울로프). *Особые отделы* (특별부), http://shieldandsword.mozohin.ru/VD3462/nkvd4143/osobist.htm.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Михайлов, Андрей (안드레이 미하일로프). *Военная реформа: генерал без Академии* (군사 개혁: 군사 대학을 졸업하지 못 한 장군), Pravda.ru, http://www.pravda.ru/society/how/21-02-2012/1108727-reforma-0/.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Некрасов, Владимир (블라디미르 네크라소프), *МВД России: энциклопедия* (러시아 내무부: 백과사전) (모스크바: ОЛМА Медиа Групп (올마 메디아 그룹) 2002).

Николай Черушев (니콜라이 체루셰프), *1937 год: элита Красной армии на Голгофе* (1937 년: 붉은 군대 엘리트의 골고타), (모스크바: Вече (웨체), 2003).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и знаки отличия Красной Армии (붉은 군대의 군복과 계급장), http://ww2history.ru/redarmy.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Попов, Игорь (이고리 보포브) et al. *Корея в огне войны: к 55-летию начала войны в Корее 1950-1953 гг.* (병화 속의 한반도: 1950-53 년대의 한국전쟁 발발 55 주년 기념) (모스크바: Кучково поле (구찌코보 폴레), 2005).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1942 년 10 월 9 일,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полного единоначалия и упразднении института военных комиссаров в Красной Армии»* (붉은 군대에 완전한 유일 지휘 체계 설립과 정치위원체계 폐지에 대하여).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 *Указ от 6 июля 1945 года «О званиях, форме одежды и знаках различия начальствующего состава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иат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и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иа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ССР»* (1945 년 7 월 6 일에 "소련 내무 인민위원회와 국가안전 인민위원

회의 계급, 제복 그리고 계급장에 대하여"), http://www.libussr.ru/doc_ussr/ussr_4551.htm.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Приказ Народного Комиссара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 711Ц «О выполнении Указа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т 4 сентября 1943 г. „О введении персональных званий и новых знаков различия для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교통로 인민위원회 위원의 제 711-ㅈ 명령 «1943 년 9 월 4 일에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의 «철도 교통 일꾼에 개인 칭호와 새로운 계급장에 도입에 대하여» 명령에 집행에 대하여»), 1943 년 9 월 13 일, http://polygonv.narod.ru/pervoist/1943-09-13-nkps-711pr.pdf.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Протокол № 62 (제 62 기록), Решения Политбюро ЦК ВКП(б) за 27 января - 17 марта 1948 года (1948 년 1 월 27 일부터 3 월 7 일까지 전소련공산당 (볼셰비키)의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 От 3.II.48 г. (1948 년 2 월 3 일).

Россия: полны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й справочник, (러시아: 그림이 있는 대백과 사전) (모스크바: ОЛМА Медиа Групп (올마 메디아 그룹), 2002).

Руководство для бойца пехоты (보병 병사를 위한 입문서), http://www.rkka.msk.ru/rbp/rbp2.s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Сапожников, Борис (보리스 사포지니코프), *Положение в Корее: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водка* (조선의 상태: 통보 보고), 1945 년 9 월 13 일, ЦАМО РФ(러시아연방 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Ф. 32, Оп. 11306, Д. 692 (문서군 32, 목록 11306, 문서철 692).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소련 군사 백과사전) (모스크바: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소련 국방부 군사출판사), 1976-1980).

Указ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т 2 сентября 1940 года «Об учреждении маршальского знака отличия "Маршальская Звезда" (1940 년 9 월 2 일에 공포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정령 «원수의 휘장인 원수 별 제정에 대하여»).

Форма солдат армий стран Варшавского договора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나라들의 군복), https://vk.com/album-62474637_204391219.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Хренов, М. М., Коновалов, И. Ф., Дементиюк, Н. В. (흐레노프, 코노왈로프, 데멘티육), *Военная одежд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и России (1917-1990)* (소련과 러시아의 군복 (1917-1990)) (모스크바: Воениздат (군사 출판사), 1999).

『日本帝国陸軍組織』 (일본제국 육군의 조직), http://www.geocities.jp/yh482600/taihei/rikugun23/rikusosiki1/rikugunsyou.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菅孝行 (강 타카유키), 天皇制の理論と歴史 (천황제의 이론과 역사) (도쿄: 柘植書房 (츠게 쇼보), 1987).

下斗米伸夫(시모토마이 노부오), 『モスクワと金日成—冷戦の中の北朝鮮 1945-1961 年』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 시기의 북한, 1945-1961), (도쿄: 岩波書店 (이와나미 쇼텡), 2006).

『政务院关于划分农村阶级成分的决定』 (정무원의 농촌에서 계급 성분 제도 도입에 관한 결정),

http://cpc.people.com.cn/GB/64184/64186/66655/4492593.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南昌起義"(남창 봉기), 『中華百科全書』 (중화백과대사전), http://ap6.pccu.edu.tw/Encyclopedia/data.asp?id=2592&forepage=3.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流动红旗评比制度』 (유동홍기: 비교와 평가의 제도) http://www.doczj.com/doc/8600d3d7f61fb7360b4c65ec.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取消中国人民解放军军衔制度的决定』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국인민해방군 군사 계급 제도의 폐지에 대한 결정),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0-12/25/content_5004360.htm.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欧阳青(구양청), 『1955 共和国将帅大授衔』 (1955 년: 공화국에 장성과 원수 칭호를 대규모적 수여) (제남: 黄河出版社(황하출판사), 2008).

梅宏(매굉), "军旗升起的地方——纪念南昌起义 80 周年" (군가 게양된 곳: 남창 봉기의 80 주년 기념), 『中国共产党新闻』 (중국공산당신문), 2007 년 8 월 29 일, http://cpc.people.com.cn/GB/68742/70427/70428/6184742.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Shim, Kyong-wook, "Les forces armées soviétiques face à la diversité des nationalités: situation et perspectives. Un mécanisme d'intégration?" (다민족 문제에 직면한 소련 군대: 현재 상황과 전망, 그리고 통합 매커니즘?) Thèse de doctorat à l'IEP de Paris(파리 정치 대학 박사학위 논문) (1989).

Froh, Klaus, *Chronik der NVA, der Grenztruppen und der Zivilverteidigung der DDR 1956-1990*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인민군, 경비대 그리고 민방위의 편년사. 1956-1990) (Berlin: Köster, 2010).

БНМАУ-ын Маршалын од (몽골인민공화국 원수의 별), 2008 년 12 월 23 일, http://soronzon.blogspot.kr/2008/12/blog-post_23.html. (검색일: 2017 년 5 월 3 일).

Ushtria jone popullore (우리의 인민군) (티라나: 8 Nëntor, 1983).

기타 자료

안드레이 란코프가 한 인터뷰.

영화 "병정님" (兵隊さん) (감독 방한준, 1944년 경성에서 제작).

영화 "어버이 장군님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계시여" (북한에서 제작).

1992 년 4 월 25 일에 한 조선인민군 열병식 동영상.

부록 1. 인터뷰 대상자 목록

1)북한군 군관

#	군사 칭호	성별	복무 기간	인터뷰 날짜	비고
O1	경비대 소좌	남	1990 년대 초기 – 2000 년대 말기	2014 년 11 월	
O2	해군 상위	여	1984 년 4 월 – 1994 년 11 월	2014 년 12 월	
O3	육군 중위	여	1994–2000 년	2015 년 4 월	육군 신병 교육 대대 근무 (정치 지도원)
O4	육군 중좌	남	1972–1985 년	2015 년 6 월	
O5	육군 소위	남	2001–2010 년	2016 년 7 월	포병대 소대장
O6	공군 중좌	남	1980–2003 년	2017 년 4 월	소련 유학 경험 있음

2)북한군 하전사

#	군사 칭호	성별	복무 기간	인터뷰 날짜	비고
S1	육군 특무상사	여	1992 년 4 월– 1999 년 8 월	2015 년 4 월	경비대 간호 중대 근무
S2	육군 상사	남	1998 년–2007 년	2015 년 5 월	부소대장
S3	공군 근위 특무상사	여	1996 년–2004 년	2015 년 7 월	공군 사령부 직속 통신병
S4	육군 상사	남	1990 년대 중기	2016 년 4 월	고급 간부 가족 출신

3)외국인 증언자

#	성별	비고	인터뷰 날짜
F1	남	2012–14 년 북한에 몇 번에 방문하였음	2013–14 년에 여러 번에 인터뷰 했음

부록 2. “조선인민군 상급 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인민군 상급 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군사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1952.12.3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미-영 무력 침공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매국 도당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대의 견고한 지주인 상급 지휘성원 및 군관들은 자기의 군사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인민 앞에 완강성과 충실성을 보여주었다.

조선인민군 창건이래 5 년 동안에 조선인민군의 지휘성원 들은 현대적 전쟁의 복잡한 조건하에서 풍부한 전략, 전술적 전투 경험을 획득하였으며 그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한 책임성은 무한히 장성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상급 지휘성원 및 군관들에게 대한 칭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조선인민군 군사칭호.

원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차수

장령
조선인민군 일반 군사
대장, 중장, 소장
조선인민군 포병
포병 대장, 포병 중장, 포병 소장
조선인민군 장갑전차병
장갑전차병 대장, 장갑전차병 중장, 장갑전차병 소장
조선인민군 항공병
항공 대장, 항공 중장, 항공 소장
조선인민군 통신병
통신병 대장, 통신병 중장, 통신병 소장
조선인민군 공병
공병 대장, 공병 중장, 공병 소장

조선인민군 기술근무
기술근무 대장, 기술근무 중장, 기술근무 소장
조선인민군 정리근무
경리근무 대장, 경리근무 중장 경리근무 소장
조선인민군 행정근무
행정근무 대장, 행정근무 중장, 행정근무 소장
조선인민군 군의근무
군의 근무 대장, 군의근무 중장, 군의근무 소장
조선인민군 수의근무
수의근무 대장, 수의근무 중장, 수의 소장
조선인민군 사법근무
사법근무 대장, 사법근무 중장, 사법근무 소장
조선인민군 해군장령
해군 대장, 해군 중장, 해군 소장

군관 군사칭호
조선인민군 일반 병종 지휘책임 성원들에 대하여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대위, 상위, 중위, 소위
조선인민군 기술근무
기술근무 대좌, 기술근무 상좌 기술근무 중좌, 기술근무 소좌,
기술근무 대위, 기술근무 상위, 기술근무 중위, 기술근무 소위
조선인민군 경리근무
경리근무 대좌, 경리근무 상좌, 경리근무 중좌, 경리근무 소좌,
경리근무 대위, 경리근무 상위, 경리근무 중위, 경리근무 소위
조선인민군 행정근무
행정근무 대좌, 행정근무 상좌, 행정근무 중좌, 행정근무 소좌,
행정근무 대위, 행정근무 상위, 행정근무 중위, 행정근무 소위
조선인민군 군의근무
군의근무 대좌, 군의근무 상좌, 군의근무 중좌, 군의근무 소좌,
군의근무 대위, 군의근무 상위, 군의근무 중위, 군의근무 소위
조선인민군 수의근무
수의근무 대좌, 수의근무 상좌, 수의근무 중좌, 수의근무 소좌,
수의근무 대위, 수의근무 상위, 수의근무 중위, 수의근무 소위
조선 인민군 사법근무
사법근무 대좌, 사법근무 상좌, 사법근무 중좌, 사법근무 소좌,
사법근무 대위, 사법근무 상위, 사법근무 중위, 사법근무 소위
조선인민군 해군
해군 대좌, 해군 상좌, 해군 중좌, 해군 소좌

해군 대위, 해군 상위, 해군 중위, 해군 소위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및 차수 칭호는 큰 연합부대 작전 지위에서와 조선인민군 무력 강화 및 전투적 강화 발전에 특출한 공훈있는 장령에 대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여한다.

3. 조선인민군 병종 장령 해군장령들에게 대한 군사칭호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개별적 제의에 의하여 내각에서 수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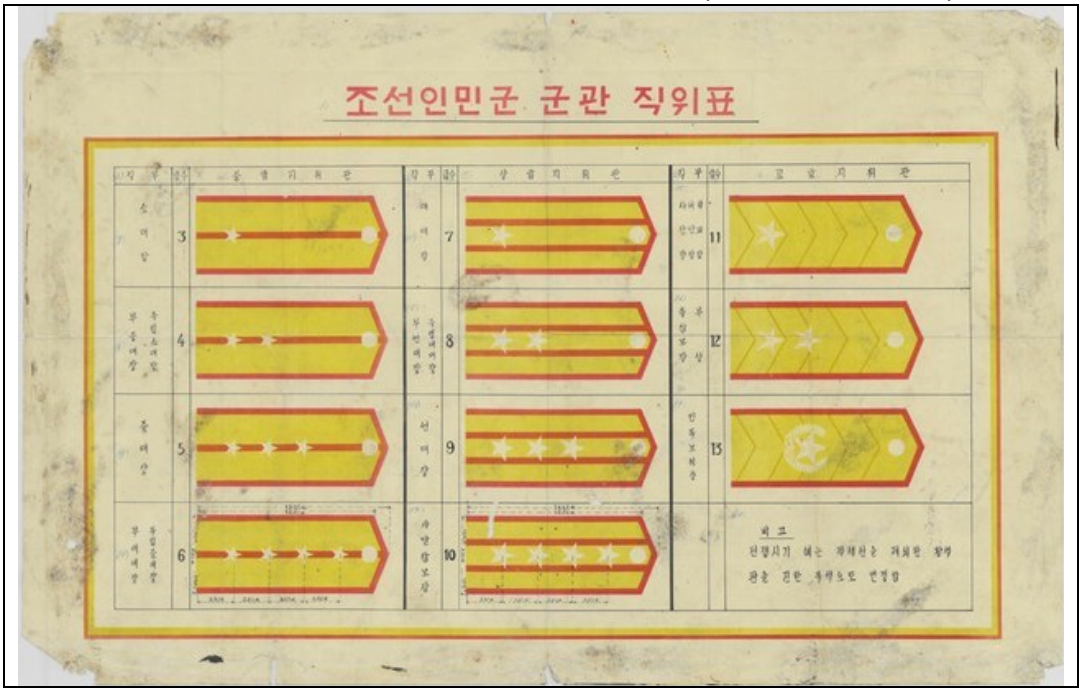
4. 내각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제출하는 군관 성원들의 근무연한에 대한 세칙과 군사칭호를 수여하는 절차를 비준한다.

5. 조선인민군 병종 장령 해군 장령 및 군관성원들의 견장 형태 및 도해를 승인한다.

6. 조선인민군대내의 견장과 동일한 견장들을 내무성 경비대를 제외한 각성 외 근무자들이 채용할 수 없다.

(1952.12.31)

부록 3. 조선인민군 군관 직위표 (한국전쟁 당시)



부록 4. 1955 년 당시 군인 개인 표창과 징벌 제도

조선인민군 병사 및 하사관 표창 및 표창 수여 권한 (1955 년 당시) [284]

표창	표창 수여 권한
대열에서의 감사 선포	분대장 이상
이 전에 준 기율 징벌의 취소	분대장 이상 (본인이 준 경우)
외출 허가	중대장 이상
단기 휴가 허가; 연대 학교를 졸업할 때나 예비역에 편입할 때의 상장 수여; 금전 또는 귀중품의 수여; 펼친 부대기 앞에서 찍은 개인 사진 수여; 고향 또는 전 직장에 수상자의 모범적 행위 와 받은 표창의 통지	연대장 이상
상장 수여	여단장 이상
모범 군인표 수여 군사 학교 학생의 성명을 명예 게시판에 기록	민족 보위상

조선인민군 군관 및 장령 표창 및 표창 수여 권한 (1955 년 당시)

표창	표창 수여 권한
구두로 군관 회의 석상에서 혹은 명령서로써의 감사 선포	중대장 이상
이전에 준 기율 징벌의 취소	중대장 이상 (본인이 준 경우)
금전 또는 성명을 새긴 귀중품의 수여; 정기 군사 칭호의 기한전 승급 제의; 근위 부대에로의 전임	여단장 이상
성명을 새긴 도검류와 사격 무기 수여	민족 보위상

[284]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군 기률규정』 (평양: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55).

조선인민군 병사 징벌 및 징벌 수여 권한 (1955 년 당시)[285]

징벌	징벌 수여 권한
병사	
경고	분대장 이상
1 개월 이하의 병영 및 부대 배치 지회부터의 견출 금지 혹은 함선으로부터의 상륙 금지	분대장 (1 차) 부소대장 (2 차) 특무장이나 소대장 이상 (3 차)
5 차 이하의 순번의 근무 (위병과 함선 당직 제의) 혹은 작업 당번	분대장 (1 차) 부소대장 (2 차) 특무장 (3 차) 소대장 (4 차) 중대장 이상 (5 차)
20 주야이하의 경영창 처벌	특무장 (2 주야 이하) 소대장 (3 주야 이하) 중대장 (10 주야 이하) 대대장 (15 주야 이하) 연대장 이상 (20 주야 이하)
15 주야이하의 중영장 처벌	중대장 (4 주야 이하) 대대장 (7 주야 이하) 연대장 이상 (15 주야 이하)
상등병의 군사 칭호 박탈	연대장 이상
정기 복무 하사관	
경고	분대장 이상
1 개월 이하의 병영 및 부대 배치지로부터의 외출 금지 혹은 함선으로부터의 상륙 금지	부소대장이나 특무장 (1 차) 소대장 (2 차) 중대장 이상 (3 차)
3 차 이하의 순번의 근무 당번 (위병, 함선 당직을 제외)[286]	
20 주야 이하의 경영창 처벌	소대장 (1 주야 이하) 중대장 (5 주야 이하, 징벌 대상자가 특무장인 경우: 3 주야) 대대장 (10 주야 이하) 연대장 이상(20 주야 이하)
10 주야 이하의 중영창 처벌[287]	중대장 (2 주야 이하)

[285] 당시 북한군 징벌 제도에 대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군 기률규정』(평양: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55) 참조.
[286] 특무상사에게 적용되지 않음.

	대대장 (5 주야 이하) 연대장 이상 (10 주야 이하)
직무 감하	연대장 이상
병사에 이르기까지의 군사 칭호 감하	여단장 이상
초기(超期) 복무 하사관	
경고	분대장
20 주야 이하의 경영창 처벌	소대장 (1 주야 이하) 중대장 (5 주야 이하, 징벌 대상자가 특무장인 경우: 3 주야) 대대장 (10 주야 이하) 연대장 이상(20 주야 이하)
직무 감하	연대장 이상
복무 년한 만기전 예비역 편입	여단장 이상
군관	
구두, 개별 명령서, 군관 회의 석상에서 명령서로 선포되는 구의, 경고, 근무를 수행하면서, 엄중 경고	중대장 이상
근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20 주야 이하의 근신 처벌	중대장 (하급 군관에 대해 2 주야 이하) 대대장 (하급 군관에 대해 5 주야 이하) 연대장 (하급 군관에 대해 10 주야 이하, 상급 군관에 대해 5 주야 이하) 여단장이나 사단장 (하급 군관에 대해 15 주야 이하, 상급 군관에 대해 10 주야 이하) 군단장 (하급 군관에 대해 20 주야 이하, 상급 군관에 대해 15 주야 이하) 민족보위상
20 주야 이하의 영창 처벌	
직무 태만에 대한 최후 경고	연대장 이상
직무를 감하하여 임명	민족보위상
군사 칭호 감하	

[287] 특무상사에게 적용되지 않음.

장령	
구두와 개별 명령서에 의하거나 축은 명령서로 선포되는 주의, 경고 및 엄중 경고	군단장 이상
직무 태만에 대한 척후 경고	민족보위상
직무를 감하하여 임명	

부록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노농적위대 설립에 대하여»라는 소련대사관 참고서 번역문

비밀

참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노농적위대 설립에 대하여>

1.

조선 동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비슷한 조직들을 알아봤고 노농적위대를 설립할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8 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과 정부의 대표단은 중국에서 귀국한 뒤 1959 년 1 월 초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문제를 토론하였습니다.

토론 결과 노농적위대를 19-47 세의 조선노동당 당원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사무원으로 구성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노농적위대 설립의 기본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러 지역에서 적군의 공중 투하, 파괴 암해조의 활동, 적대분자의 반혁명적인 불의의 공격 등으로부터 차단 무장해 국가 안보를 상시적으로 유지.

2. 군사적 원천을 준비하고 나라에 위협적인 상태가 발생할 경우 조선인민군 인원을 보충.

3. 필요한 경우 적의 후방에 조직화된 빨치산 부대를 이용.

정부 계획에 따라 전국의 노농적위대 인원수를 120 만명으로, 즉 전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의 12%로 할 계획입니다. 이 숫자(120 만명)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군사 행동 발생 시 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전 계획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정부의 노농적위대 편성은 계획에서 약 50% 진행되었습니다. 즉 60 만명 정도 선발되었고, 이들의 대부분은 조선노동당 당원과 가장 자각적이고 꼼꼼히 확인된 근로자입니다.

노농적위대의 부대 및 구분대 편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공화국의 도(道)마다 연대가 편성됩니다. 현재 나라의 능력을 파악해 1 개 대대만 무장하려고 합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도(道) 당 위원회

위원장을 연대장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부연대장으로는 도(道) 군사동원부부장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2. 군(郡)마다 3 개 중대로 편성된 1 개 대대가 편성됩니다. 1 개 중대에만 무기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대대장으로는 군(郡) 당 위원회 위원장을, 부대대장으로는 군(郡) 군사동원부부장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3. 리(里)마다 1 개 중대가 편성되고, 1 개 소대가 무장됩니다. 중대장은 리(里) 위원장입니다.

4. 또한 나라의 모든 공장과 제작소에는 노농적위대 부대들을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ㄱ) 평양시 공장 노동자와 기관 사무원으로 1 개 사단이 편성되었습니다.

ㄴ) 인원 5000 명 이상의 공장과 제작소에는 1 개 연대 이상을, 더 작은 공장에는 1 개 대대 이상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대와 구분대의 부대장은 공장이나 제작소의 지배인이 맡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결정에 따라 노농적위대는 낡은 소총, 기병총, 자동 소총으로 무장될 것입니다.

이미 편성된 부대(60 만명) 전체를 위한 무기가 있지만, 나머지 부대들은 조선인민군을 칼라시니코프 자동 소총으로 재무장하는 과정이 완성된 뒤 낡은 무기로 무장할 것입니다.

3.

현재 평양 사단을 제외한 노농적위대 부대들의 무장 계획은 35-40%가 수행되었습니다. 포술, 공병학, 화학 전쟁 훈련, 탱크 훈련 등을 위하여 도(道)에 위치한 정상적인 조선인민군 부대 및 구분대의 병력과 능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농적위대 편성에 관한 결정에 따라 훈련은 매일 2 시간 동안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농적위대의 부대 훈련은 1 주에 2 번씩 진행되며 공장이 바쁘거나 불참자가 있는 일부 부대에서는 훈련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노농적위대 성원 훈련은 대체로 군사 동원부 군관, 노농적위대 부대와 군부대 근처에 배치된 군사 수비대 군관, 예비역군관들의 지도 하에 진행됩니다.

민족보위성에 전투훈련(군사 훈련)에 관한 교육안은 없습니다. 다양한 병과와 과목별 교육안을 민족보위성에서 작성 중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훈련 주제는 대체로 대열 훈련, 규약 알아보기와 사격 무기 등입니다.

노농적위대는 민족보위성의 지도를 받습니다.

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대사관 무관
1959 년 7 월 19 일
중장
알렉산드르 말쩨브스키이[288]

[288] 평양소련 대사관 비밀서철, KM012104, pp. 2-4.

Abstrac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System of Symbols in the North Korean Army: Focusing on the Soviet Legacy

Fyodor Tertitskiy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evolu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The author argues that the KPA was initially constructed by the Soviet Union in its own image and while the Soviet legacy declined in importance over time, many basic traits of the KPA, such as unit hierarchy, institution of political officers, uniform, Party organisations in the army etc. remain distinctively Soviet.

Meanwhile while it is often assumed that North Korean army was greatly influenced by China as well, the author shows that there are no grounds for such a line of argument: apart from the existence of the Party'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here is little, if any, facts to substantiate the claim for Chinese influence over the KPA (however, it should be noticed such influence is very distinctive in North Korean paramilitary organisations).

The author based his research on a broad collection of various sources ranging from interviews with former KPA service members to North Korean films and Soviet archival documents and hopes that it would be of use to people interested in North Korean military and social history.

Keywords: Korean People's Army, North Korean army, military symbols, Red Army, Soviet Army, military sociology

Student Number: 2014-31486